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청년생활

제9호 (72)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九호 내용

탐오와 랑비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 애국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二)

민청원들은 국가 법령을 모범적으로 지키자!……양 계 (五)

젊은 탄부들에게……조 선 수 (一四)

☆ 민 청 생 활 ☆

랑만은 어데 있는가……김 영 기 (七)

소년단 사업의 내용에 신중한 주목을 돌리자!……김 용 환 (一六)

창의 고안을 광범한 로동 청년들에게 보급하자……함 영 선 (一九)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 (지상 토론)……(二三)

초급 단체에서 민청원들이 이동함에 따르는 맹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二六)

청춘의 거센 불길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라!……방 군 (二七)

☆ 복 구 건 설 장 에 서 ☆

청춘의 리상은 농촌에서 꽃핀다……윤 세 용 (三四)

어렵고 힘든 일의 선두에 서서……리 달 호 (三八)

우리들은 어떻게 절약하고 있는가?……(四〇)

☆ 학 습 교 양 자 료 ☆

탐오 랑비에 대한 자백 운동은 대중적 사상 개변 운동이다……리 두 진 (四五)

청년과 민청……정 동 석 (四九)

우리 조국의 력사……박 시 형 (五四)

동무—이는 자랑스러운 말이다……므·보도빠노브 (六〇)

술어 해설……(六五)

표 지……청춘의 건강과 활기……엄 도 만 그림

과학과 기술 원자력은 인간에게 복무한다……그·오스뜨로우모브 (68)

종교와 미신은 어떻게 다른가?……(33)

(문예) 민족 예술의 찬란한 개화……박 승 완 (76)

탐오와 랑비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 애국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우리 조국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웅장하고 대 규모적 건설이 지금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광명 찬란한 사회주의의 락원이 이루어질 그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이 장엄한 건설 속에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과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확신하고 용기 분발하여 힘차게 로력하고 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은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폐허 우에、그리고 일제 식민지 통치가 남긴 공업의 락후성이 극복되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서 진행된다。 우리의 건설은 또한 전쟁전의 현상을 복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 과학 기술에 기초한 현대적 대 공업 건설을 목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막대한 자금과 기자재와 원료와 로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형제적 원조 외에 주로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분적 일꾼들과 청년들 속에는 악독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또한 경제 관리 운영의 지식과 생산 기술이 부족한 데로부터 각 방면에서 랑비、탐오 현상을 발로하여 경제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여기서 인민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각 분야에서 엄격한 절약을 강화하며 국가 재산에 대한 탐오와 랑비를 근절하는 것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경제 절약 및 반 탐오、반 랑비 투쟁을 강화할 것을 전 국가적、전 인민적 과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이 제시한 이 과업을 신성한 애국적 운동으로 또한 전 인민적 사상 개조 운동으로 받아들였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학습하면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현저히 앙양되였으며 경제 절약 투쟁에서 다대한 성과를 뵈여 주고 있다。

민주 수도의 다층 건설에 돌격대로 참가하고 있는 중앙 제二 건설 트레스트 청년들은 자기들의 창발적 로력의 결과로 지난 五월과 六월에만 연 로력 三、五五七공수를 절약하였으며 자갈 一三七립방、벽돌 一二六、〇〇〇여매를 절약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다수 공장 기업소내 민청원들은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각종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있는바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의 첫 제창자들인 김 책 제철소내 민청원들은 금년 一·四분기 동안에만 九七건의 창의 고안을 하여 국가에 九천여만원의 거대한 리익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국가 사회 재산을 탐오、랑비한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솔선 자

백하며 또한 탐오、랑비 분자들을 폭로하여 절약 투쟁에서 청년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경제 절약 및 반 탐오、반 랑비 투쟁에 아직 불만족스럽게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적지 않은 민청 단체들이 경제 절약 및 반 탐오、반 랑비 투쟁은 강력한 사상 투쟁으로써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구호와 만세식으로 절약하라고 호소만 하고 있으며 심오한 계급적 교양 사업 및 강력한 사상 투쟁을 밀접히 결부하여 심각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혁명적 사상 의식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경제 절약이 얼마나 중요하며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귀중한 국가 사회 재산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것은 조선 청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고상한 품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교양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 적지 않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계속 국가 및 사회 재산을 랑비하고 있다。

둘째로—적지 않은 민청 단체와 민청 일꾼들은 아직도 경제 절약의 중요 원천들을 최대 한도로 탐구하며 오작품을 근절시키고 생산품의 품질을 제고시키며 각종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로력과 자금、자재들을 절약하여 국가에 리익을 주며 규률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랑비와 절취 등 일체 부정적 현상들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 조직 사업을 불만족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강력한 경제 절약 투쟁과 반 탐오、반 랑비 투쟁을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국가 사회 재산을 소홀히 하고 랑비하며 횡령 절취하는 근원은 그들이 아직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쓰려는 개인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과 민청 일꾼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면서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는 고상한 품성으로、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혁명적 의식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며 경제 절약 및 반 탐오、반 랑비 투쟁에 청년들이 자각적이며 모범적으로 참가하도록 정치 조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절약과 검박성은 조선 청년들이 가져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자본주의 사회와는 정 반대로 중요 공장、광산、탄광、철도、운수、산업、지하 자원、학교、병원、극장 등의 모든 부원들이 인민의 소유이며 인민의 재산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사회 재산이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확고한 기초로 된다。

경제 절약은 우리 청년들의 모든 활동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증대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원가와 류통비를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단위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원료를 최대한도로 절약하며 오작품과 불합격품 생산을 근절하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재의 보관 관리 사업에서도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더욱 높은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주인답게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합 재산을 애호하고 그를 침해하는 자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조합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

여야 할 것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기자재의 절약 뿐만 아니라 산 로동력의 절약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로동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자기 기술에 정통하며 작업에서 기계화를 적극 도입할 것이다。 이리하여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고 새 기준량을 높이는 투쟁에 솔선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행위는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는 반 인민적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좀먹는 탐오、랑비 분자들의 범죄 행동을 높은 경각성으로 대하며 이를 반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탐오、랑비하는 온갖 해독적 현상들과의 투쟁을 전 당적、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이 투쟁에서 중요한 대책으로 되는 자백 운동을 공개적인 대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청 단체들과 전체 민청원들은 당의 지도 하에 당이 제시한 이 자백 운동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백 운동의 의의는 이미 탐오、랑비、절취、횡령한 자들을 자백 반성시킴으로써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시키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전체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국가 사회 재산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며 국가 경제 생활에서 사업상 질서와 제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일꾼들의 지도 수준을 높임으로써 탐오、랑비의 근원을 철저히 퇴치하는 데 있다。

자백 운동은 대중적 사상 개변 운동이다。 당은 이 운동을 관대와 징벌의 방법을 엄격히 결합시켜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를 물론하고 범한 과오를 당과 국가 앞에서 량심적으로 자백하고 반 탐오、반 랑비 투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처리하며 범한 죄과를 자백하지 않는 자、허위적으로 자백하는 자、자백한 후에 다시 과오를 범하는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민청 단체들과 일꾼들은 우선 온갖 선전 선동 수단을 동원하여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자백 운동의 의의와 내용을 광범히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자각적으로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솔직성과 정직성은 민청 일꾼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품성이다。

국가 사회 재산을 많건 적건 탐오、랑비하였거나 횡령、절취한 사람들은 누구나 솔직히 자백해 나섬으로써 깨끗한 사람이 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탐오、랑비한 사람은 물론 나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폭로하지 않는 사람도 그만 못하지 않게 나쁘다는 것을 옳게 해설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과오만 자백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엄중한 탐오、랑비 행위를 폭로하도록 동원함에 심중한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반 탐오、반 랑비 투쟁은 일시적 깜빠니야 사업으로 조급하게 진행하여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은 이 투쟁을 통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근절하며 탐오、랑비의 틈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국가 사회 재산의 탐오、랑비를 반대하며 그를 절약하는 전 인민적 애국 운동에로 전체 인민과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인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철저한 절약 투쟁과 일체 탐오、랑비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애국적 운동에서 모범이 되자!

민청원들은 국가 법령을 모범적으로 지키자!

내각 사무국장 양 계

지금부터 七년전 一九四八년 九월 八일에 력사적 조선 최고 인민 회의 제一차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은 우리 나라의 기본 법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국가 사회 제도의 기초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과 법령들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광범한 근로 인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민 주권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인민들이 전취한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와 인격상 및 재산상 복리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옹호하고 그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인민 정권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되며 따라서 공화국 매개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때문에 공화국 헌법 제二七조에는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법령에는 지배 계급인 착취 계급의 의사가 표시되여 있으며 그것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도구로 리용된다。 부르죠아지들은 이 법령이 마치 전 사회의 리익을 옹호하는 듯이 떠들지만 그것은 허위와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 하면 자본가와 로동자、지주와 농민、즉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에는 공통된 리해 관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시대의 법령들은 일제와 극 소수의 지주、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광범한 근로 인민들을 착취 억압하는 반 인민적 법령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인민들의 증오와 반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헌법과 법령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국이 해방된 후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 기구와 그의 팟쇼 경찰적 법령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수립된 새 형태의 인민 주권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들은 인민의 원쑤를 반대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위력한 무기이며 또한 우리 나라 경제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온갖 위법 행위는 그것이 크거나 적거나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국가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오늘 조선 로동당은 우리 인민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를 축성하는 력사적 위업에로 인도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 혁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면서 인민들이 국가 규률과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국가 법령들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인민 정권을 공고히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 중에는 국가 법령을 위반하며 국가와 사회의 규률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 일부 청년들은 로동을 천시하는 데로부터 태만하며 로동 규률을 지키지 않으며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하며 또 일부 청년들은 사회 공중 규률을 문란히 하는 비 도덕적 행위를 감행하며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생산 시설과 원자재를 혹사 랑비하며 오작품을 생산하며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절취, 횡령, 랑비하는 등 국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주며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저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국가 법령과 규률을 위반하는 일체 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국가 법령을 위반하고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더러운 범죄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투쟁으로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이며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인 민청원들은 누구보다도 국가 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그를 위반하는 모든 현상들과의 투쟁의 초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동시에 민청원의 엄숙한 규약상 의무로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할 것인가?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원인은 첫째로 낡은 일제 및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데로부터 우리의 법령의 성격과 의의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있으며 그것은, 둘째로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일반 문화 수준이 낮으며 또한 대중 정치 사업이 불원만하게 진행된 데로부터 국가 법령과 결정, 지시들의 내용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으며 세째로는 일부 민청 일군들과 민청원들이 아직도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며 실무 수준이 낮은 데 있다. 그러므로 매개 민청원들은 우선 국가 법령과 결정 지시들의 내용을 일상적으로 학습하여 그 본질과 내용을 잘 리해하여야 하며 또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일체 국가 법령 위반 현상과 개인 리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리익과 국가 사회 재산을 침범하는 사소한 현상도 묵과함이 없이 그를 반대하는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 탐오, 반 랑비 투쟁은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는 투쟁이며 동시에 이것은 국가 법령을 신성 불가침으로 옹호하며 그 위반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반 탐오, 반 랑비 투쟁은 또한 전 인민적 사상 개조 운동으로 된다. 당과 국가는 자백 운동을 통하여 관대와 징벌의 방법을 결합시켜 반 탐오, 반 랑비 투쟁을 전개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중대한 국가적 사업에 있어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선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인 정직성과 솔직성을 발휘하여 전 인민적 자백 운동에 솔선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의 임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며 대중 정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청년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며 국가 법령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매개 민청원들로 하여금 로동과 집단을 사랑하며 국가 사회의 규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신성 불가침으로 보호하며 일체 위법 행위, 비 규률적, 비 도덕적 행위를 반대하는 군중적 투쟁을 강화하며 전체 청년들을 자각적 규률 준수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매개 민청원들을 공화국 헌법과 법령의 모범적 수호자로, 모범적 준수자로 교양하며 일체 위법 행위를 반대하는 용감한 투사로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랑만은 어데 있는가

김 영 기

어느 군 민청이라고 하자.

군 민청 위원장은 담배 연기에 싸여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민청 사업의 랑만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을 들추어 본다— 그러나 사전에 있는 랑만이라는 문구 해석도 만족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기상 천외의 색다른 사업을 머리 속에서 조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뵈여 줄 것 같지 않다.

그는 랑만에 넘친 어떤 사업이 홀연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책상 머리에서 이것을 꾸며내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는 청년들의 생활에 눈을 돌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는 관혁이 없이 활을 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그는 청춘 그 자체가 벌써 생거발발하고 약동하는 생명이며, 그의 로력과 학습과 생활 자체가 끓어 넘치는 환희이며, 창조적 정열이며 랑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청춘—이 매혹적인 말을 들을 때 동무들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감격을 느끼며 황홀한 꿈을 그리지 않는가? 그것은 이 말의 음향 속에서 인생의 봄을, 꽃피는 생명을, 보람찬 미래의 화폭을 보기 때문이다.

청춘 남녀들은 천리 준마처럼 항상 발구름 구르며 앞으로 내닫는다. 그들에게는 태산 준령이라도 허물어낼 의기가 있으며 이 세상을 뒤 흔들만한 위대한 일을 해 보려는 동경심으로 가득차 있다. 하물며 영웅 조선의 영광스러운 청춘으로, 찬란한 조국 건설의 둘격대로, 그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희망의 세대들인 공화국 청년 남녀들의 생활에 있어서랴!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사업이 어떻게 되였는가? 일부 민청 일군들의 고식적이고 틀에 박힌 무미 건조한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생활과 그들의 요구와 흥미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는 『민주 청년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의 결정에서 민청 사업을 청년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도록 생동하고 활기 있게 조직하며 민청 사업에 환희와 열정이 끓어 넘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실로 민청 일꾼들에게는 우리 나라 청춘들의 생활 속에 가득찬 랑만성을 찾아볼 줄 알며 이를 높이 발양시킬 줄 아는 눈과 머리가 필요하다.

독자들이여! 이제 책상 머리를 떠나 기자와 함께 랑만이 어데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년들의 생활을 찾아가자! 감발을 튼튼히 졸라매고 우리 청년들의 생활 속에 넘쳐 흐르는 랑만을 찾아 가자!

위대한 목적 불같은 열정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경축하는 축포가 꽃보라로 피여 오르는 평양에서



우리는 감격의 축배를 들었다。 우리는 축배를 들면서 지난 一〇년간의 보람찬 생활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남아 있는 가지가지의 자랑을 이야기하였다。

민주 조국 건설의 一〇년、 금자탑으로 쌓아 올린 찬란한 승리 속에는 젊은 우리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지 않은가! 지금도 심장 속에 새겨져 력력히 떠오르는 감격된 화폭들 — 민청원들의 열정이 도가니 처럼 끓고 크나큰 건설장에 아름다운 민청 깃발이 물결치던 그날의 감격된 화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 지는 것이다。 력사적 민주 개혁들이며、 일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던 보통강 개수 공사며、 단천 축항 공사며、 백두산 룡림 림철 공사며、 안주 나무리벌 관개 공사며、 철산 광산 개발 공사며……

바로 이 속에 민청원들의 힘과 지혜가 스며 있다。

동무들도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경축하는 감격의 축배를 나누며 생생한 이 화폭들을 펼치고 감격된 이야기에 밤가는 줄을 몰랐을 것이다。

이날 기자는 평양시 민청 부 위원장을 찾았다。 우리는 지난날의 감격을 회상하며 민청 일군들의 불뎅어리와도 같은 창조적 열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민청원들과 민청 일군들의 심장을 태우는 이 불뎅어리 — 그것이 없이는 민청 사업의 랑만성은 이야기할 수 없지요』 시 민청 부 위원장은 그 이글이글한 눈에 광채를 더 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해방 직후 우리가 일하던 때를 생각하십니까? 그때야 정말 온 세상이 내 세상 같고 가슴엔 불뎅어리가 타올랐지요、 집이라고는 一년이 지나도 한번 가볼 생각도 않고 책상이 침대요、 양복 저고리가 이불이라、 일하다 밤 늦으면 쓰러져 자고、 핏득 밝으면 또 부지런히 뛰여 나가 돌아 다니며、 밥을 않먹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물불을 헤아리지 않았지요、 이렇게 일 하노라니 어깨에 신바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해방 직후부터 일해 온 민청 간부들이 되여 앉으면 흔히 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언제 이야기해도 새삼스럽지 않고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자유의 태양 아래 누리는 생활의 기쁨과 해방된 조국을 건설하는 무거운 책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우리들의 심장을 그렇게 뜨거운 불뎅어리로 타오르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뎅어리를 안고 력사적인 제반 민주 개혁을 비롯한 조국 건설의 위업에 나섰던 것이다。

그때 우리 생활이 열정과 환희에 가득차고 랑만이 흘러 넘치지 않았던가!

어떤 독자는 『주먹 치기』로 일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타박할른지 모른다。 물론 일하는 방식은 서툴려서 『주먹 치기』였던 것이 틀림 없지만 우리들에겐 확실히 불뎅어리로 타오르는 랑만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니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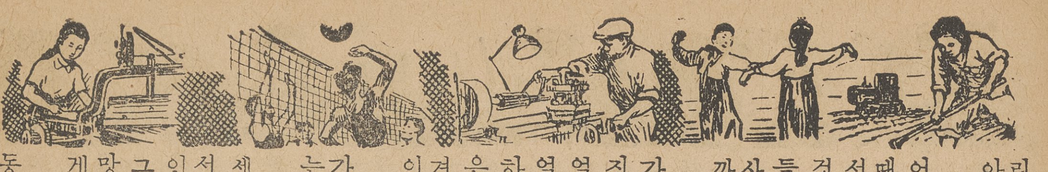
그러면 다시 시 민청 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때의 그런 불뎅어리가 전쟁 시기에 또 타올랐습니다。 그게 一九五二년 봄이였지요。 그때 비행장을 보수 확장하는 사업이 제기됐드랬지요。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였는데 하루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이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긴장된 전투였지요。 하루에도 몇번씩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때야 말로 일하는 청년들이나 지도하는 우리들이나 한 몸둥이가 되여 불뎅어리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내 일생가운데 이렇게 벅차는 감격과 열정 속에서 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을 기한전에 끝마치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서로 붙들고 울었더랍니다。

바로 이런 불뎅어리가 상시적으로 우리 가슴에 타올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길 하면 어떤 동무들은 그게야 전쟁 때와 같은 비상한 현실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이 하는 전후 복구 건설 사업이 그만 못하단 말입니까?』



그렇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이며 또 열마나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는가를 일부 민청 일군들은 말로만 알고 심장에 새겨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심장의 불뎅어리가 타 오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는 당이 내세운 과업을 실천하는 길에서 그 위대한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가 실행하는 그 사업의 위대한 목적과 전망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행동을 낳는다。 이때 타 오르는 심장의 불뎅어리는 기적을 창조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표현되는 발랄한 생기와 끓어 넘치는 창조적 열정과 환희와 랑만의 원천이 있다。

이 불뎅어리가 식은 곳에서 형식주의、 고식주의、 관료주의 등 온갖 유해로운 잡초가 솟아나며 민청 일군은 청춘 남녀들의 생활에서 떨어지고 만다。

대지에서 뿌리를 뽑힌 식물은 시들고 만다。 청년 대중과 떨어진 청년 일군의 운명도 바로 그럴 것이 아닌가?

산 인간과의 사업

얼마전에 사리원 시 민청은 초、 고중 졸업생들이 자기들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조직하였다。

청년들이 자기 일생의 지망을 결정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아마 그 본인은 이날을 자기 생활에서 가장 감격적인 날로서 일생을 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충실하며 자기의 훌륭한 리상을 실현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실로 청년들의 인간적 장성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민청의 책임은 무거운 것이다。 때문에 과수를 다루는 원예사처럼 사람을 배양하는데 세심하라고 위대한 쓰딸린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그러나 사리원 시 민청 일군들은 원예사로서가 아니라 사무가로서 일했다。 그들은 책상 우에서 짠 『계획』에 의하여 『솜씨』 있게 이 사업을 『조직』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 초、 고중 졸업생들은 자기들을 농촌으로 부른 당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나서고 있다。 만일 사리원 시 민청 일군들이 그들의 자각된 열성에 호소하고 애국적 결의를 토론하도록 지도하였다면 당 정책을 더욱 광범한 군중 속에 침투시키는 데서나 그들의 애국적 열성을 높여 주는 데서나 더욱 큰 효과를 보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들이 청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위하여 일하며 청년들 속에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산 인간을 상대해서가 아니라 종잇장과 전화통으로 사업하는 것인가?

그들의 잘못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일하고 있는 청년 남녀를 잊은데 있는 것이다。

민청 일군들은 자기들이 교양하는 수천 수만의 청년들과 소년들 속에서 조옥희도 리수복도 강렴도 안상조、 조최 기룡도 자라났으며 또 앞으로 헤일 수 없이 많은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청년들을 교양하고 훈련 육성하는 산 인간과의 창조적 사업 속에 민청 사업의 진실한 랑만성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어느 때나 태양을 따르는 해



바라기처럼 새롭고 선진적인 것을 견결히 따르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자기 사업에서 진실한 삶의 뜻을 찾아 낼줄 알며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빛나는 창조의 불꽃을 태우고 있다。 민청 일군들이 그들의 창조적 열정에 타는 생활을 고식적인 틀에 마춰 지도하지 않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부쳐 준다면 그들은 진실로 훌륭한 일을 할줄 안다。

김책 제철소 민청 일군들은 청년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로력성과를 위하여 혁신적 창안을 하려는 민청원들의 창발적 의견을 옳게 받아들여 그를 지지하고 기사、기수들로 하여금 그들을 방조하도록 조직하여 주었다。

초급 단체에서 회의들이 진행되였다。 그들은 작업장에서도 휴식의 짬을 리용하여 수시로 나타난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세웠으며 새로운 경험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회의 준비에 골머리를 싸맬 필요도、회의 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도、오랜 시간 답답하게 토론을 듣노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었다。

진실로 그들에게 있어 회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였다。

이런 속에서 세탄 분 초급 단체에서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이 발기되였다。

공장 민청은 곧 이를 전 공장에 보급할 대책을 민청 열성자、혁신자、기술자들을 모아 놓고 협의하였다。 이 운동은 이내 전 공장에서 대중적 운동의 불길로 타 올랐다。 불과 二〇일만에 一七五건의 창의 고안이 나오고 그중 많은 것이 생산에 도입되여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가져 왔다。

이 운동은 얼마 가지 않아 전국적으로 보급되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의 이러한 창조적 로력의 생활 속에 진실한 랑만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생활과 영예와 보람을 느끼며 번영하는 조국의 광명한 미래 속에 빛나는 자기들의 높은 리상을 보며 그를 향하여 부단히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다。

강의한 청년들의 난관 극복의 의지

우리는 쓰딸린 거리를 걷는다。 모란봉 해방탑을 향하여 곧추 뻗은 폭 넓은 거리、차렷 자세의 의장병들 처럼 일어선 가로등、수양 버들 너울어지고 잔디 깔린 록지대、오가는 뻐스와 사람의 흐름、거리 량옆으로 일어서는 다층 건물들 — 더욱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경축하는 오색 찬란하게 단장한 쓰딸린 거리는 한없이 아름다웁다。 우리는 이 거리를 거닐려면 그 아름다움에 취한다。 그 아름다움 보다도 더욱 이 거리에서 일어서는、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보기 때문에 더욱 큰 감격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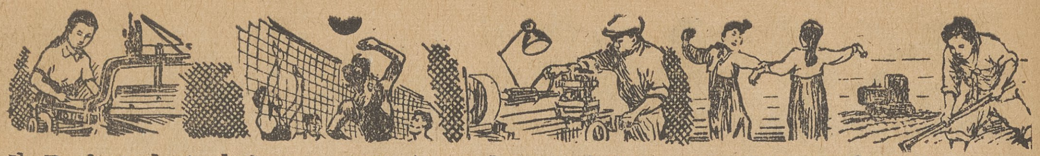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이 거리의 건설을 위하여 흘린 우리의 고귀한 땀이 그 속에 스며 있기에 벅찬 자랑을 간직한다。

이 거리에서 우리는 가슴에 너울치는 랑만을 느낀다。

살을 태울듯 내려 쪼이는 한 여름의 폭양도、억수로 쏟아지는 폭우도 민주수도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이기지 못했으며 일하는 우리의 손을 멈출 수 없지 않았던가!

"자 보라구 이 브록구 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 정도 받지 않는 암반이 있었어。 그리고 저 밑에루 저긴 감탕 흙 구뎅이였어! 정말 그땐 막 주저앉구 싶은 때도 있었어、그때마다 우린 이를 더 굳게 앙물었어』

『그리구 마지막으로 이 브록구를 놓을 때… 난 가슴을 쩍 펴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속으로 이렇게 웨쳤드랬어



「자 이래도 우리의 힘이 크지 않는가?」고』

만일 그때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힘든 일 앞에서 물러 서며 난관과 맞서서 동요하던 그런 청년이 지금 이들의 곁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량심의 가책으로 얼굴을 붉히고 활기 없이 구석을 찾아 숨을 것이 아닌가!

힘든 일、어려운 일 앞에서 물러서며 웅대한 조국 건설을 말로 격정하고 로력을 기피하는 그러한 『우국 지사』들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렬에 있을 자리가 없다。

전진하는 조국의 용감스러운 아들 딸들은 난관과 애로를 겁내지 않으며 결단성 있게 행동한다。

우리는 강의한 투사의 모습을 수 많은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민청 청년 돌격대의 활동에서 본다。 그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돌격대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함께 맡았던 것이다。 민청 청년 돌격 운동의 첫 발기자인 중앙 제二 건설 트레스트 민청 청년 사업소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결의를 들어보라!

『……우리가 이 이름을 접수하는 것은 이 칭호가 아름답거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이라는 영예로운 칭호에는 중첩되는 난관과 방대한 로력적 과제가 부과되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난관 앞에 서슴 없이 나선 것이다。 그것은 난관을 전승한 뒤에 오고야 말 민주 수도의 웅장한 건설과 훌륭한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아무런 파란 곡절도 없이 단번에 이렇게 훌륭한 투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남포 제련소 용광로 강 계선 민청 청년 브리가다가 걸어온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자。

공장을 복구했을 첫 시기 용광로에는 한 사람의 민청원도 없었다。 민청원 김 용섭이 처음으로 용광로에 배치되였다。

그는 三일도 못되여 민청 위원장을 찾아왔던 것이다。

『위원장 동무、간접 부문에서 일하게 해 주시요、용광로는 힘들어서……』

그는 동요했다。 이때 민청 위원회는 그를 붙잡아 주고 방조와 충고를 주며 고무하였다。

로동당원인 청년 강 계선이 용광로에 배치되였다。 그의 힘찬 투쟁에 고무된 동 제련 제二 초급 단체 위원장이였던 권 녕균을 비롯하여 민청원들인 박 문규、정 정호、리 찬수、금 동철이 용광로에서 일할 것을 자원했다。

지난 정월 어느날 그들은 총회를 열고 용광로 작업의 난관을 이기는데 모범이 될 결의밑에 용광로 민청 청년 브리가다를 조직했다。

첫 곤난은 기술 부족이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기능공 오 학삼、김 인호들이 그들의 브리가다에 배치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었다。 기술 습득을 위한 완강한 투쟁은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속에서 一一명의 투입공과 一一명의 우구공을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독립하여 제三호로를 맡게 되였다。

五월 二八일 대 연도 소제 작업이 제기되였다。 대 연도 안의 연회는 살이 익을듯 뜨겁고 옷에 붙으면 금방 타오를 것 같았다。 안전 기사는 땀이 흐르면 곳 작업을 중지하고 나오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을 극복하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작업 도중 박 문규와 김 용섭이 연도 안에서 쓰러졌다。 연회가 덮어 씨웠다。 강 계선은 그들을 연도 밖으로 끌어 내놓고 작업을 계속했다、잠시 후 박 문규와 김 용섭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들은 六월 五일까지 三천여 톤의 연회를 파내고 작업을 끝마쳤다。



난관과의 투쟁에서 그들은 승리하였으며 성장하였다。

민청 집단의 힘이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서로 도웁고 서로 힘을 합쳐 나갈적에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되며 이 힘은 그들 앞에 나서는 어떤 난관도 능히 이기고 전진할 수 있게 해 준다。

실로 우리 나라의 강의한 청년들의 생활은 이렇게 끊임없이 전진한다。

이번 八·一五 해방 一○주년 기념 축전에 참가하였던 쏘련 정부 대표단 단장 아·브·아리쓰또브는 우리 청년들의 창조적 로력의 생활을 높이 평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는 곳 마다에서 자기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농민、인테리 특히 당신들의 훌륭한 청년들의 단결되고 긴장된 로력과 창발적 열성을 보았습니다』

전진하는 생활의 로상에는 언제나 난관과 애로가 있었다。 이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는 데만 승리가 있었다。 이 난관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만만한 자신을 가지고 끊임 없이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생활 속에 진실한 랑만이 있지 않는가!

흥겨운 생활 유쾌한 로력

우리 생활의 랑만성을 생각할 때 곧 노래와 춤과 체육 스포츠를 생각하게 된다。 이는 청춘의 생리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현실에서 사는 청년 남녀들의 생활적 요구이기도 하다。

언젠가 기자는 건설장에서 청년들이 작업의 휴식 짬에 어떻게 유쾌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든지 오가는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겹겹히 둘러 서서 구경하는 것을 보았다。

구경하고 있던 군중 가운데서 감탄에 겨운 어조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과연 청년들이로군……』

『어 그 젊은이들이 기세 좋다』

중년 나이 된 사람들이 주고 받는 말이였다。

휴식의 짬 뿐이 아니다。 그들이 작업에 착수 했을 때도 노래와 웃음은 멎지 않았다。 이 노래와 웃음은 자기의 생활을 깊이 사랑하고 즐기는 환희에 넘친 청춘들의 본능에서 울어 나온 것이 아닌가!

활기 넘치고 기세 높은 브리가다들의 작업 실적은 一五○—二○○%로 오른다。

실로 노래와 춤과 체육 활동은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서 법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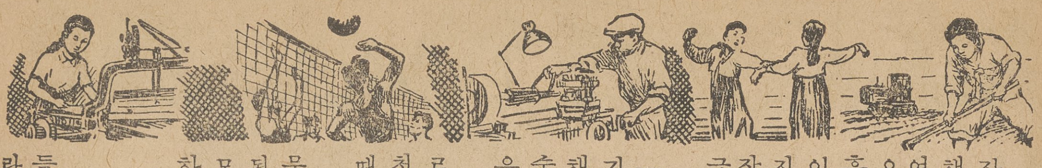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민청 간부의 『위신』을 깎는 것으로 생각하며、 민청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민청 일군이 있었다。

그들은 점잖게 뒤짐지고 서서 존엄한 표정으로 『구경군』이 되거나 한껏 해야 맥없는 박수를 치는 것으로 『위신』을 지키려 한다。 청년들의 웃음과 노래와 춤이 꽃처럼 피는 야회를 조직하고 민청 일군은 한마디의 연설을 하고 주석단에 높직이 올라 앉는 것만이 자기 임무처럼 안다。

이런 일군들이 청년들의 정서적 요구를 리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흥겨운 생활과 유쾌한 로력에 배려를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은 벌써 노래와 춤을 모르는 민청 간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철봉에 매달려 현수도 못하고 바득거리는 민청 간부는 청년들을 지도할 자격을 잃은 일군이다。 이미 인민 체력 검정 합격증이 민청 간부의 필수적 요구로 될 시대가 왔다。

노래와 춤과 체육이 우리 청년들 속에 군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세포군내 청년들은 자기들 끼리 바이오린、키타、행금 등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매개인이 하나씩 갖고 있으며 대 합창단을 조직하여 훌륭히 연주하고 있다。 그들이 창안한 악기는 도 민청의 지지밑에 一인 一종 악기 제작 운동으로 전 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개풍군 삼성리 민청원들은 『친선금』이라는 새로운 악기를 창안 제작하여 八·一五 해방 一○주년 경축 전국 예술 축전에서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들의 모범은 공화국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그것이 청년들의 생활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민청 일군들은 청년들의 문화 오락 생활의 조직자만 될 것이 아니라 우선 그의 모범적인 실천자가 되여야 한다。

× ×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의 생활의 구석 구석에는 랑만이 들어 차 있다。 우리는 랑만을 찾는 우리의 길을 얼마든지 더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만나자!

독자들이여! 우리는 민청 사업에서의 랑만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책상 머리에서 조직할 수도 없는 것이며 신기한 새로운 사업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 속에 사는 청년들의 심장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제 다시 사무실에 뫼여 앉자。 부위원장도 선전 선동 부장도 학생 소년 부장도 통계 지도원 동무도 한자리에 모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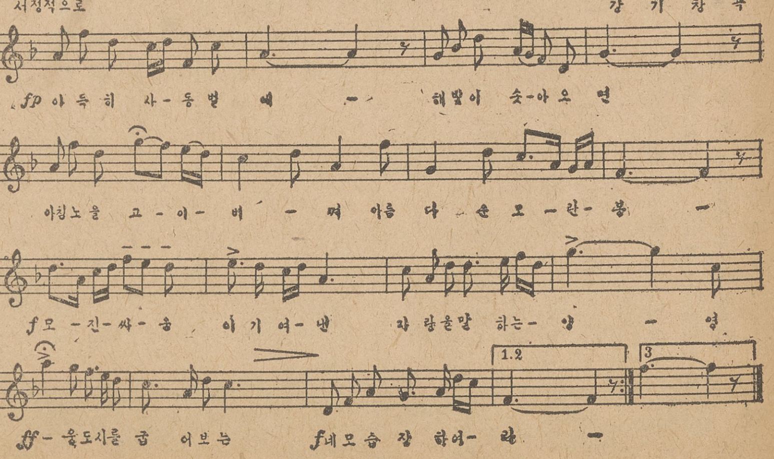
그리고 우선 스스로의 심장에 손을 얹어 보자。 심장이 높뛰지 않고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없거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심장을 불태우자。 자신의 심장이 불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심장에 불을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생활의 『조직자』나 『관람자』로서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웃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함께 일하기 위하여 청년들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나자。 불타는 심장을 갖고 청년들의 심장에 불을 부치기 위하여 노랫 소리 높이 울리며 길을 떠나자!

모란봉

리근 시
강기창 곡

Andantino
서정적으로



二、 네언덕에 빛나는 은혜로운 해방탑
오늘도 마음의 꽃다발을 드리노라
몸은비록 먼곳에 떠날때 있어도
마음속에 네모습 한시인들 잊었으랴

三、 영웅도시 건설한는 영광찬 이마음
네언덕에 영원한 행복을 꽃피우리
三개년 계획을 二개년에 맞춘날
그감격 그기쁨도 너와함께 나누리

젊은 탄부들에게

젊은 탄부 동무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뜻 깊은 명절—첫 탄부절을 맞이한다.



우리 나라 력사와 조선 탄부들의 생활에서 이런 명절을 가져 보기는 처음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진 인민 정권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당과 정부가 우리 탄부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특별히 두터운 배려의 표시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탄부 동무들과 함께 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열렬한 감사와 영예를 드린다.

젊은이들! 첫 탄부절을 기념하면서 나는 나의 과거 생활을 회상한다.

나는 해방 후 一〇년간을 포함해서 탄광 굴진공으로, 또는 광산 발파공으로 수십년간 로동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나 나의 보람찬 로동 생활은 해방 후 부터였고 당신들 처럼 불타오르는 그러한 아까운 청춘 시절과 장년 시절 합해서 근 반세기 동안이란 기나긴 세월은 일제 하에서 일하였다. 그때 내가 놈들 앞에서 겪은 고통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정말 일제 하에서 탄광이란 생 지옥이며 탄부들의 생활은 감옥 생활이였다. 로동 보호 시설은 전혀 없는데다가 놈들의 가혹한 로동 강도 때문에 숱한 탄부들이 불구자로 되고 갱내에 묻혀 죽어 버렸다.

그러나 一九四五년 우리 나라가 왜놈들의 통치에서 해방되자 전체 인민들과 함께 나도 그 몸서리치던 일제의 생지옥에서 벗어나 활기를 펴고 일하게 되였을 때 나의 마음은 무척 기뻤고 몇해 젊어진 것만 같았다. 그후 로동 법령이 실시되고 산업 국유화 법령이 실시되여 탄광은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이때 내 마음은 또 한번 더 젊어졌다. 그리하여 나는 해방후 오늘까지 탄광 일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로력하였으며 매년 내가 맡은 계획을 넘쳐 완수하였다.

오늘 탄부절을 기념하면서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나라가 요구하는 귀중한 석탄을 더 많이 캐 내기 위해서 힘껏 열성을 다하여 더 많이 일할 결심을 하고 있다.

젊은 탄부 동무들! 八·一五 해방 이후에 나는 항상 탄광에 젊은 사람들이 적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一—二년 전만 해도 탄광에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라군 드물었고 四〇세를 넘은 늙은 사

람들이 더 많았다.

나는 생각하기를 만일 나와 같은 나이 많은 탄부들이 더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죽으면 이 탄광을 누가 맡아 가지고 일할 것인가가 걱정되였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이 함북도에 오셔서 탄광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내가 일하는 탄광에도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돌격대가 되여 일하고 있다. 정말 우리 탄광은 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나도 더 정력이 났다.

젊은 탄부 동무들!

식량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는 것 처럼 석탄이 없으면 공장도 돌아 못갈 것이며 기차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공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석탄이 우리 탄부들의 손에 의하여 캐여지고 있으니 우리들의 로력이 어찌 영예롭고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있는가! 젊은 탄부의 영예를 지니고 힘껏 일하자!

나는 젊은이들 속에서 많은 공훈 탄부들이 나올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 나라는 무진장한 석탄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석탄을 캐 내기는 하지만 대규모적으로 발전하는 공업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석탄을 사 들이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젊은 탄부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석탄을 우리 손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분투하자!

나는 동지로서 또는 늙은 선배로서 젊은 탄부들 당신들에게 몇마디 이야기 하려 한다.

석탄을 많이 캐 내자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젊은이들의 뚝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의 탄부 생활 경험이 말하여 준다. 나는 과거에 기술이 없어서 지금 보다 몇 갑절 힘을 더 들였으나 능률은 지금 보다 못했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젊은 탄부들도 힘은 세나 아직 적지 않는 동무들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신들은 얼마든지 기술을 배울 광활한 길이 열려져 있다. 나는 우선 당신들이 기술을 배우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아직도 수공업적 방법이 많이 남아 있는 탄광 시설을 기계화하라! 그리고 「어려운 일의 선두에는 항상 우리가 선다」는 당신들의 자부심을 그대로 견지하라! 나의 생존에서 처음 들은 『돌격대』란 말은 당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예로운 칭호이다.

당과 정부는 탄부들의 생활에 특별한 배려를 돌려주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는 우리 탄부들의 생활에는 질서가 없고 수령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생산문화가 부족하며 임금을 받으면 망탕 써 버리는 등 과거의 나쁜 습성이 남아 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우리 생활을 더 문화적이고 깨끗하고 조직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부족점을 고치는 데는 아마 당신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며 그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을 맞이하여 당신들이 맡은 일에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당신들의 건강을 축원한다.

국영 신유선 탄광 二갱
공화국 공훈 탄부 조 선수 구술
본 사 기 자 김 학일 기록

소년단 사업의 내용에 신중한 주목을 돌리자!

민청 중앙 위원회 학생 소년부
부장 김 용 환

민청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四월 七일 결정에는 소년단 사업의 방법과 형태에서 성인식이며 기계적인 결함을 시정하고 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흥미 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내용에서 높은 사상성과 교양성을 보장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년단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학과 학습, 사상 정치 교양,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사회적 유익한 로동 각종 크루쇼크 활동 모임들과 견학, 답사 행군과 원족 등등—이 그 어떤 형태와 방법을 적용하던지 간에 당 중앙 위원회가 교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 정치적 교양적 내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급 민청 단체들이 많은 경우에 소년단 사업에서 형식과 틀을 차려 놓는데만 급급하고 그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목적과 사상 정치적 및 교양적 내용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거나 적게 주의를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가장 주요한 결함의 하나이다.

소년단 사업에서 형식주의는 각 방면에서 발로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소년단원들의 의무이다. 때문에 소년단원들이 학과 학습을 위한 책임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소년단 지도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년단 사업은 바로 그 대상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반드시 그들의 년령적, 심리적 특성과 요구와 흥미에 적응한 방법과 형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년단 사업의 형태와 방법들은 반드시 그것이 그 속에 보장하여야 할 사상 정치적 교양적 내용과 분리할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와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엄중한 결함이 발로 되고 있는바 그것은 학과 학습을 위한 사업에서 행정적 방법과 형태를 그대로 소년단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학교에 『학습반』『학과 토론회』『복습 반』등이 조직되여 시간전과 방과 후에 의무적으로 되여 복습, 예습을 하며 『꼬마 교원』으로서 교원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거나 모방하고 있다. 소년단원들의 학과 학습 지도에서 이와 같은 행정적 방법의 기계적 적용은 소년들의 학습에서의 자립성과 독자성과 완강성을 마비시키며 의뢰심과 불성실한 학습 태도를 조장할 수 있게 한다.

소년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과 문화 예술 활동에서 이데오로기적 무경각성과 무사상적 경향들이 적지 않게 발로 되고 있다.

소년단에서의 정치 교양의 기본으로 되고 있는 경애하는 수령의 애국적, 혁명적 활동을 알고 모범 받도록 하는 사업에서 부분적인 소년단 단체들은 이 사업을 잘 지도하지 못함으

로써 일률성과 도식적 경향들이 있고 그 방법과 형태들이 아주 국한되고 있다.

정치 시사 이야기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정부의 현행 정책과 그 본질, 국제 국내 정치 정세, 우리 조국의 현실과 전망 등이 소년들에게 알기 쉽고 명백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과 틀만 차리고 그 내용에 무관심한 것은 문화 예술 활동에서 특히 많이 발로되고 있다. 소년단원들의 연예 써클이나 크루쇼크에서 취급하는 노래와 춤과 희곡과 스케취들은 그 내용에서 사상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고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것은 소년단 사업 지도 일꾼들과 교원들이 소년단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제반 사업의 내용에서 고상한 사상성과 교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이다.

형식에만 치우치고 그 내용에 무관심한 것은 소년단 단체들의 모임에서 가장 많이 발로되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소년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노래와 춤, 오락과 유희는 소년들과의 사업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단 단체들의 모든 모임들이나 모든 행사에 기계적으로 노래와 춤, 오락과 유희를 도입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써 소년단 모임이나 사업에서 성인식, 기계식, 고식적 방법이 다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소년단 단체들의 모임들에는 모임전에 『오락 책임자』의 지도 하에 일정한 오락을 하며 모임 시작은 반드시 합창으로 하여야 하고 모임 도중—보고나 이야기, 토론이 끝날 때마다—소년들이 지루함과 권태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래와 춤을 조직하고 폐회 후에 또 반드시 일정한 오락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류행되고 있다.

보기에 이러한 모임 형식은 다채로운 것 같고 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모임과 결부되여 진행되는 노래와 춤과 그 모임의 주제와 추구하려는 사상적, 교양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그에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왕청 같은 노래와 춤과 오락이 벌어지군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오락과 유희의 기계적 도입은 모임 자체의 목적을 애매하게 만들고 소년들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할 대신에 혼란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일률적 기계적 오락의 진행은 오히려 소년단원들의 감정과 정서의 자유로운 발현을 억압하고 마는 것이다.

모임과 소년단 사업의 각 부문에 기계적으로 오락과 유희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소년단 사업을 겉으로만 화려하고 다채롭게 만들고 그 사상적 교양적 내용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민청 일꾼들과 소년단 지도원들은 소년단 단체들이 진행하는 모임의 제마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임 제마의 옳바른 선택은 모임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첫 걸음에 불과하며 그것은 반드시 모임이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결합되여야 한다.

실례를 들어 보자.

『四五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제마는 학과 학습—특히 수업에 대한 책임적 태도로 교양하기 위한 좋은 제마이다. 그러나 꼭 같은 이 제마를 달고 진행한 다음의 두가지 모임을 대비하여 보자.

한 분단 모임에서는 학습 시간에 규률을 지키지 않고 지각한 소년단원들을 심의하였다. 분단 위원장이 보고하고 토론을 잘 하는 몇 동무가 격렬한 비판을 주었다. 본인은 억지로 자기 비판을 하였다. 분단 지도원이 결론을 지었다.

다른 분단에서는 공장에 가서 四八〇분 작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분초를 아껴 생산을 보장한 로력 혁신자의 작업을 보고 담화를 하였다. 돌아와서 분단 모임을 가졌다. 공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시간의 귀중성에 대한 생동적인 감각은 소년단원들에게 자기 학습 태도에 대한 자기 비판적 자극을 주었다. 모두가 열성적으로 토의에 참가하였다. 두 모임의 례는 모임을 조직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성과가 판이하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소년단 사업 지도에서 형식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조선 소년단 규정』에 지적되여 있으며 또 소년단에서의 전통으로 되고 있는 행사들과 질서와 규정들을 마음대로 변갱하며 망각하여도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최근 소년단 사업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의식과 절도와 질서와 규정들이 무시되고 있거나 외곡되여 집행되며 또한 소년단에서의 고유한 전통적 행사—입단 서약식, 사열식, 행진, 우등불 모임, 행군, 야영 등—들이 망각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 말할 수 없다. 소년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교양의 수단으로써 제정된 일정한 규정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또 정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소년단 사업 지도에서 반드시 시급히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적용되여야 할 방법도 많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벅찬 현실 속에서 소년단원들을 지도하고 교양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소년단 단체 사업과 활동의 매 분야에서 그들에게 적용할 좋은 형식과 방법과 함께 반드시 그 사상 정치적 및 교양적 내용을 보장함에 제一차적 주목을 돌리여야 할 것이다.

속 담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럭 거린다고 한다.**

자기의 큰 결점이나 과오는 덮어두고 남의 조그마한 잘못을 추켜드는 뻔뻔한 자를 가리켜 이르는 말.

☆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한다.**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 무슨 큰 일이나 한것 처럼 뽐내는 자 또는 못난 것이 잘난체 하는 경우를 풍자하는 말.

☆ **어사는 (御使) 가 어사가 더 무섭다.**

덜된 자가 벼슬자리나 하면 더 권세를 쓰려고 하는 꼴을 두고 이르는 말.

☆ **노루 보고 그물 짊머진다.**

사태가 급해서야 허둥 지둥 준비를 하는 꼴을 두고 이르는 말.

창의 고안을 광범한 로동 청년들에게 보급하자

민청 중앙 위원회 로동 청년부 부부장 함 영 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산업, 운수, 건설 직장내 민청 단체들 앞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증산 경쟁 운동의 선두에 서게 하며 새로운 창의의 제창 자로 전달 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창의 고안은 우리의 장엄한 전후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며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에로 지향하는 로동 청년들의 애국적이며 창발적 운동이다.

민청 단체들은 당 단체의 지도 하에 창의 고안 운동에서 이미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년 상반년 동안에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二、二七九건 (이는 一九五四년 하반년에 비하여 一八〇%의 장성이다)의 창의 고안이 로동 청년들 속에서 제출되여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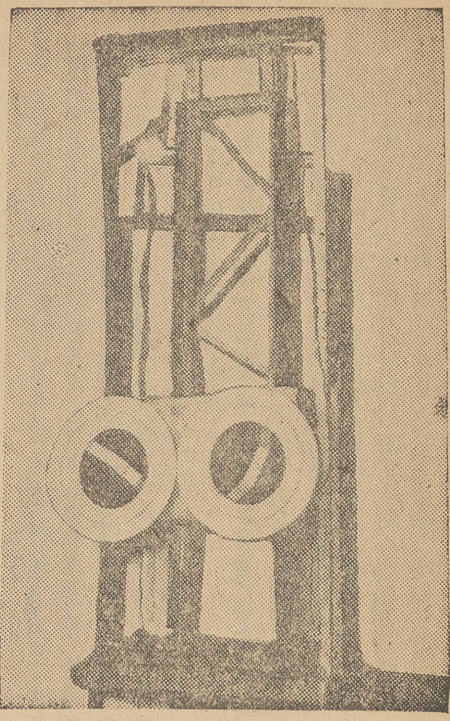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창의 고안 운동에서 김 책 제철소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모범을 뵈여 주고 있다.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의 발기자인 그들은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지난 상반년도 기간에 一二一건에 달하는 창의 고안으로 국가에 二六四만 三천여원의 리익을 주었다. 창의 고안자들의 대렬 속에는 점봉 리용 조형법 및 구릿트 제작법을 창안하여 四천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케 한 젊은 창의 고안의 명수 최 윤수를 비롯한 수백명의 로력 혁신자들이 들어 있다. 최 용섭 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민청 청년 브리가다반장 석봉 동무는 쏘련 공청 쁘라우다 신문을 통하여 쏘련 로력 영웅 쥐로브 동무의 선진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강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리루를 창의 고안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五·四배로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고 형태 동무는 줄칼 재생법을 창안하여 三三만 여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승호리 쎄멘트 공장 건축 직장 목공 성 기정 동무의 이름은 젊은 발명가로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제함기, 기계 숫돌, 홈치기 기계, 자동 제재기 등 무려 수십건의 귀중한 창의 고안품을 내놓았다. 이로써 그는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고 로력 기준량을 三배 이상으로 제고시키는 기록적인 성과를 쟁취하였다.

최근에 와서 경공업성 산하 기업소들에서도 새롭고 많은 창의 고안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평양 고무 공장에서는 민청원들의 창의에 의하여 원형 빳지의 리용, 개인별 원단위 실행 카트의 적용 등으로 지난 六월달에만 하여도 원가를 一四·七%나 저하시켜 三三九만 여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로동 청년들 속에서의 창의 고안 운동은 날을 따라 더욱 발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 고안 사업과 그의 보급사업에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결함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생산 기업소내 민청 단체들과 도, 시, 군, 민청 단체의 지도 일꾼들 가운데는 창의 고안 운동을 한개의 자랑 거리로 삼거나 또는 그릇되게 인식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일부 기업소 민청 단체들에서는 생산이 량적으로

장성되기만 하면 큰 창의 고안이라고 떠들면서 로력의 불합리한 조직, 자재의 랑비, 기계 설비의 훼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지난 기간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창발적 발기에 의하여 제안된 창의 고안들이 그를 창안한 혁신자들과 그 기업소 로동자들에게만 독점되고 그것이 같은 직종의 기업소들과 광범한 로동 청년들에게는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그의 몇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 자동 미장기(선 우기 동무 창안)

검덕 광산 조 두실 로력 영웅이 창안한 "대공 발파법" 만년 광산 젊은 로력 혁신자 라 동식 동무가 창의 고안한 "부채형 발파법" 등 선진적 작업 방법들이 광산 부문 민청원들에게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도일꾼들이 잘 일하지 못한 결과 자기 광산내에 전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一년 전에 최 용섭 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석봉 동무가 창의 고안하여 기록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 달성하고 있는 "쥐로부 도리루"가 아직 자강도내에 있는 같은 직종 부문인 기계 가공 직장내 로동 청년들에게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제 결함의 원인은 생산 기업소내 민청 단체들과 도, 시, 군 민청 단체들이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제안되는 창의 고안 경험들을 연구하며 그를 보급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부족한 데 기인된다. 특히 이 부문에서 중요한 결함은 생산 기업소내 민청 단체들이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꼬미샤와의 련계가 부족한 그것이다. 결과에 민청에서는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 고안을 자랑하나 해당 꼬미샤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며 꼬미샤에서 인정하는 창의 고안은 민청 단체가 지지 호응하지 않는 등의 결함을 발로시키고 있다.

실례로 만년 광산의 젊은 착암공 라 동식 동무가 쏘련 로력 영웅 이야·징꼬브의 "부채형 발파법"을 광산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높은 생산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민청 단체와 기술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꼬미샤의 활동이 미약한 탓으로 이 좋은 제안이 오랫동안 묵살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이 밖에도 창의 고안 운동에 기사, 기수, 기술자들을 적극 인입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창발적 발기에 대하여 제때에 지지하며 그를 옳게 평가해 주지 않음으로써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일어나는 창발적 발기들을 묵살하는 폐단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결함들은 창의 고안 사업의 의의가 급격히 제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급속히 극복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은 로동 청년들의 창의 고안 운동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릴 것이며 그의 보급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로동 청년들의 창의 고안을 보급하는 사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민청 일꾼들이 창의 고안과 그의 광범한 보급 사업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창의 고안을 깜빠니야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구체적이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민청

단체들은 기사, 기수, 기술자들이 참가한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꼬미샤와의 일상적인 련계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와 방법으로 창의 고안 보급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즉 보급하여야 할 창의 고안품의 성능, 그의 우월성을 기술적으로 연구 측정한 다음 다른 기업소들에서 보급되고 있는 선진 경험과 자기 기업소의 여러가지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그를 기술적으로 리론화하여 일정한 완성된 기술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완성된 기술 문건에 근거하여 쎄미나르를 조직하며 광범한 로동 청년들에게 보급 침투시키되 가능하다면 기술 문건을 등사하여 배포하거나 도표 설계도, 포스터, 화보 등 발간을 통하여, 직장 신문, 유선 방송, 선동원들을 통하여 소개 선전함으로써 그의 가능성과 성과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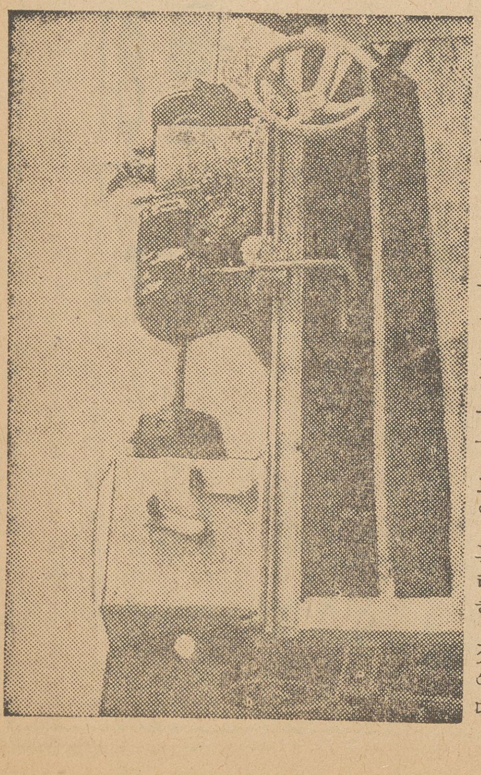
다음으로 창의 고안 보급 사업과 함께 그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적 조건을 충분히 지어 주는 문제이다. 때문에 민청 단체들은 새로운 창의 고안과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생산 조건들과 개정된 기술 공정 합리화 제의에 적합한 시설들과 조건들을 행정에 제기하여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더 광범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창의 고안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 추세에 방임한다면 창의 고안 운동과 그의 보급 사업이 잘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다음에는 창의 고안 경험과 새로운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지금 이미 제안된 창의 고안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며 그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민청 단체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는 혁신자 학교, 증산 선구자 학교들이 가장 좋은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각종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실제적 실습을 통하여, 각종 혁신자들의 초청, 견학을 통하여, 기술 꼰페렌찌야를 통하여, 개별적 혹은 집단적 담화, 좌담, 해설, 강연 등과 직관물, 기술 까비네트를 통한 기술 선전 또한 창의 고안품 전람회 등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당 당 단체의 지도하에 민청 단체들은 이 사업에 책임적으로 참가하여 정치적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일반적 기술 지식과 그들의 생산 기능 수준의 향상이 없이는 새롭고 더 선진적인 창의 고안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청 단체들은 로동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깊은 주목을 돌려 일상적 지도와 방조를 줄 것이며 특히는 고급 기능공들의 기술 학습을 적극 방조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창의 고안 운동의 선두에 서도록 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애국적 증산 투쟁에서 온갖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을 항상 꾸준하게 탐구해 내며 그것을 보급하는 발기자와 전달자가 되도록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교양 훈련할 것이다.

※ 빠이프 가공기(김 경도 동무 창안)



지상 토론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그것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

탐오 랑비 행위를 묵과하면 그것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탐오、랑비하는 온갖 해독적 현상들과의 투쟁을 전 당적、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이 투쟁에서 중요한 대책으로 되는 자백 운동을 공개적인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며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조치로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바야흐로 자백 운동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 류통 부문내에 있는 일부 민청원들의 낡은 사상 잔재로 인한 부정적 경향을 폭로하려 한다。

우리 벽성군 소비 조합 산하에는 여러개의 농촌 소비 조합 상점이 있다。 이 상점들에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가 국가 재산이며 인민의 재산이다。

벽성군 소비 조합 제二 상점은 한때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었다。 그것은 이 상점 물자가 시장에 비하여 값쌌으며 또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되였든 것이다。

따라서 상점에는 고객이 많았으며 매상고도 높았다。

상점 책임자 최 승화는 이 기회를 노렸다。 그는 상점에 고객이 많으며 또 상점에는 자기와 또한 부기원 황 순영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틈타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길을 택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생물 혹은 잘 팔리는 물건이 들어오면 저울 눈을 속인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얼마씩 더 받아냈다。 그는 부기원이 눈치를 채릴가 우려하여 『부기원 동무 이번에 온 염명태는 차에서 치워 감모량이 많이 났는데 값을 조금 높여서 팝시다』라고 말했다。 부기원도 이 말에는 동의했다。 이렇게 하여 첫『수확』은 二천여원이 되였다。 여기에 재미를 본 그는 종종 이런 수단을 썼다。 그는 어떤 때에는 술을 퍼 내고는 술독에다 맨 물을 퍼 넣었다。

상점 책임자 최 승화의 행동을 부기원 황 순영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기원 황 순영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책임자가 한일인데……』라고 하며 상점 책임자 최 승화의 행동을 융화 묵과하였다。

내가 토론하려는 것은 바로 민청원 황 순영에 대하여서이다。 그것은 왜냐 하면 상점 부기원이였던 황 순영

이 탐오、랑비 분자인 최 승화의 행동을 묵과 융화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였겠는가? 만일 부기원 황 순영이 절취、탐오 행위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였다면 인민의 재산인 七만여원의 귀중한 물자가 최 승화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최 승화 역시 범죄의 구렁 속에 깊이 빠지지 않았을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부기원 황 순영이 탐오、랑비 행동에 대하여 융화 묵과한 태도는 최 승화에 못지 않게 응당 민청원들의 배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탐오、랑비 행위를 묵과함으로써 황 순영은 최 승화의 범죄 행동을 방조해 준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당과 국가는 우리 민청원들로 하여금 인민적 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즉 절취、도적 및 사기사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와 인민의 재산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더우기 그것에 더러운 마수를 뻗치는 도적들을 묵과하는 태도——이것은 낡은 자본주의 사상의 표현이다。

민청원들은 언제 어데서나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탐오、랑비 분자들과 그들을 방조하는 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는 투사가 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민청 단체가 자백 운동에 참가함에 있어서 민청원들 속에는 탐오、절취 행위가 『그리 큰 것이 없다』하여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없도록 옳게 지도할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황남 벽성군 소비 조합
민청 초급 단체 위원장
김 종 국

집단 로동에 대한 불 성실성과 견결히 투쟁하자

『청년 생활』 제八호 지상 토론에서 평남 송호군 삼천리 一반 임 경권 동무는 자기의 일이라면 『황소』처럼 꾸준히 하는데 집단 로동에는 불성실한 조합원 신 정훈과 김 보현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임 경권 동무의 비판은 옳은 것이였다。

우리 창성 협동 조합원의 절대 다수가 지금 조합 일을 자기의 일로 알고 농사 일에서 열성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집단 로동은 (주로 협동 조합의 일을 말함)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일부 민청원들이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협동 조합의 민청원 김 영석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七월 어느날 김매기 때의 일이다。 김매기에 나선 조합원 二〇여명 중에서 김 영석은 아침부터 남보다 앞장서서 밭 고랑을 헤쳐갔다。

여느 때와 달리 김 영석이가 김매기에서 선코를 차 나가고 있는 것을 본 우리는 모두 그를 칭찬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칭찬』은 얼마 가지 않아 비난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김을 맨 것이 아니라 밭고랑을 호미로 긁고 나갔든 것이다。

조합의 일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자기집 터밭은 알뜰히 가꾼다。

이러한 행동을 안 민청 초급 단체는 『고약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그의 행동을 벽보에 실어 비판하였다。

그러나 김 영석은 이 정당한 비판을 접수하지 않았다。 그후 그는 조합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다 하여도 늦게 나오거나 빨리 들어가군 하였다。

七월 어느날、그는 일하기 좋고 능률이 나는 아침에는 자기집 일을 하고 조합에는 점심 때가 되여서야 나왔다。 조합원들의 아니꼬운 눈치를 알아 차렸음인지 그는 남이 묻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하였다。『갑자기 배탈이 나서 좀 누어 있다가 인제 나왔수다』。

이 말을 들은 김 금인은『아픈 배를 끌어 안고 터밭을 매는 자네 꼴이 참 가엾데 그려!』하고 익살을 부쳐 냇구하였다。

물론 임 경권 동무의 토론에서 명백히 제기된 것과 같이 민청원 김 영석의 행동은『전체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진심으로 하지 않는 리기주의』에서 출발한 표현이다。

우리 민청 초급 단체에서는 김 영석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회의에서와 벽보들로써 폭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김 영석은 이 정당한 비판을 접수하고 그를 시정할 데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락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경우에 민청 초급 단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신중히 생각해 보았다。 회의에서와 그리고 벽보 등을 통한 대중적 비판과 압력을 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이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김 영석의 그 이후에 계속된 락후한 행동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민청 초급 단체가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다만 회의에서나 혹은 이러 저러한 수단으로 폭로 비판하는데만 그치고만 데 결함이 있다。

김 영석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를 회의에서 비판한 후 그의 사업에서 개선이 없을 때 그의 집 사정을 잘 료해하고 그가 애로로 되고 있는 문제를 동지적으로 방조해 주며 그를 해설 설복시켰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와의 투쟁은 일시적인 투쟁이 아니며 그것이 밥 먹듯이 쉽게 청산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민청 단체는 일상적으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다。

함남 덕천군 창성 一리 민청

조 홍 수

랑비에 대한 군중적 증오와 배격의 분위기를 조성하자

우리 나라 청년들은 자기 자신이 국가 사회 재산을 소중히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 사람들의 랑비와 탐오 행동을 반대하여 비 타협적으로 투쟁한다。 그러나 부분적 민청원들은 랑비 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직접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여 묵과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황해 제철소 조강 직장에서는 많은 규격 강재가 생산된다。 이 규격 강재는 우리 나라 공업 건설에 귀중한 물자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규격 강재가 필요 없는 곳에 랑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청원들의 군중적 증오와 배격을 받지 않고 있다。

조강 직장의 한 모퉁이에는 벽돌로 지은 변소가 있다。 이 변소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밖에서 볼 때는 벽돌집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철재로 지은 변소이다。 조강 직장 지도 일군들은 변소를 짓는데 귀중한 산형강이며 구형강 그리고 큰 건물을 지을 규격 발판재를 一톤이나 사용하였다。

변소를 짓는데 귀중한 규격품 강재를 쓸 필요가 어데 있겠는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랑비이며 비 국가적 태도이다。

조강 직장 내의 수많은 민청원들은 매일 같이 이 변소를 리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변소를 건축할 때에도 그랬으며 현재에도 규격 강재가 이렇게 랑비된데 대하여 마땅한 군중적 여론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이곳 민청원들이『지도 일군들이 한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로부터 귀중한 국가 재산의 랑비 현상을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리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톤씩 강재를 생산하는 황해 제철소에서는 규격 강재 一톤쯤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장에서 이 규격 강재가 단 한메터이라도 버림없이 귀중히 사용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이『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전 국가적、전 인민적 운동으로 탐오와 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 재산을 랑비한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여 묵과하거나 무관심한다는 것——이것 역시 낡은 사상 잔재의 한 표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남의 거야 어떻게 되던 내것만 건드리지 말라!』라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서 사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우리의 공장』『국가 재산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정신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전 인민에게 속하는 국가 재산이 랑비되는 것을 보고도 묵과하는 것은 국가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민청원들의 고상한 품성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

우리 민청원들은 어느 때 어떤 곳에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국가 재산을 랑비하며 침해하는 그런 현상과 묵과 융화하지 말며 랑비 행동에 대하여 군중적 증오와 배격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황해북도 민청 위원회

조직부 지도원

림 춘 핵

★ ★

초급 단체에서 민청원들이 이동함에 따르는 맹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생산 기업소 리(읍, 구) 학교 민청 위원회 내에서의 이동 수속 절차

분 초급 단체 위원장은 이동하는 민청원에게 『등록 상황 변동 보고』를 발행하여 주는 동시에 그를 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동하는 민청원은 분 초급 단체 위원장이 발행하여 준 『등록 상황 변동 보고』를 가지고 초급 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때 초급 위원회 위원장은 민청원의 이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맹원 명부를 정리하고 가는곳 분 초급 단체에 소속시킬 데 대한 통지를 하고 『등록 상황 변동 보고』는 시 군 민청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큰 생산 기업소내 민청원들의 이동 처리는 민청 중앙 위원회가 제정한 맹원 카트로서 한다. 기업소 민청 위원회는 기업소 전체적으로 되는 맹원 명부와 분 초급 단체 별로된 맹원 카트(1)을 가지며 분 초급 단체에서는 맹원 카트(2)만을 가진다. 그리하여 한 기업소내 민청원의 이동이 제기되면 해당 분 초급 단체 위원장은 이동을 요구하는 민청원에게 그의 맹원 카트(2) 이동란을 정리하는 동시에 그의 카트를 준다.

이동하는 민청원은 맹원 카트를 가지고 기업소 민청 위원회를 경유하여 새로 소속할 분 초급 단체에 맹원 카트(2)를 제출한다. 이때에 기업소 민청 위원회는 민청원이 제출한 맹원 카트(2)에 의하여 맹원 카트(1)을 정리한다.

둘째, 민청원이 다른 초급 단체에로 이동할 때의 수속 절차

민청원이 다른 초급 단체에로 이동하여 갈 때 초급 단체 위원장은 이동하는 민청원에게 『등록 상황 변동 보고』를 발행하여 주는 동시에 그를 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등록 상황 변동 보고』를 받은 민청원은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가서 이동 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청원들이 집단적으로 한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되는 민청원들의 위임에 의하여 해당 초급 단체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들의 맹원증을 모아 통일적으로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서 이동 수속을 할 수 있다.

이동하여 가는 민청원은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七일 이내로 해당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가서 전입 수속을 하여야 한다.

민청원이 전입한 초급 단체 위원장은 그를 소속시킬 데 대한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의 『소속 통지서』에 의하여 그를 맹원 명부에 등록하고 『소속 통지서』에 소속시켰다는 수표를 한 다음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그를 보내여야 한다.

초급 민청 위원회가 있는 분 초급 단체에서의 전입, 전출 수속은 초급 민청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셋째, 류학 또는 기타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민청원들의 이동 수속 절차

초급 단체 위원장은 류학 또는 기타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민청원들에 대하여 그에게 『등록 상황 변동 보고』를 발행하여 주는 동시에 그를 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민청원은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등록 상황 변동 보고』와 맹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로부터 돌아온 민청원은 자기가 소속한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를 통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 조직부에 보관된 맹원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네째, 외국 청년 단체(전 련맹 레닌 공산 청년 동맹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청년 단체에 한함)와의 전맹 수속 절차

초급 단체 위원장은 외국 청년 단체에로 전출하는 민청원에게 전맹 청원서를 발행하여 주는 동시에 그를 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전맹 청원서를 받은 민청원은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를 경유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에 와서 맹원 소개신을 받아야 한다.

외국 청년 단체로부터 조선 민주 청년 동맹에 전맹하여 왔을 때 초급 단체 위원장은 전맹 청원서와 그가 지참하고 있는 해당 청년 단체 근거 문건과 함께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맹 문제가 중앙 상무 위원회에서 비준된 다음 초급 단체 위원장은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의 소속 통지서에 의하여 본인을 민청 생활에 참가시키며 소속 통지서에는 소속시켰다는 수표를 한후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청춘의 거센 불길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라!

—련애 문제에서의 일부 청년들의 옳지 않은 태도에 대한 약간의 의견—

방 군

一

련애 결혼, 이는 청년 남녀들의 절실한 문제로써, 남녀 사이의 사랑은 사람들의 행복스러운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장성한 청년 남녀들은 누구나 뜻에 맞는 배필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생활의 대로를 전진할 것을 원한다.

우리 나라 인민들이 봉건적 혼인 제도를 타파하고, 자산 계급의 련애 관점을 비판한 데로부터 이 몇해 사이에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이미 혼인 문제에서의 자주적 권리를 갖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련애관의 지도 하에 자신의 련애 혼인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련애하는 수많은 청년 남녀들이 상호간의 애정을 더욱 용감히 전진케 하는 한개의 동력으로 되게 하여 사업과 학습을 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로동 청년들이 국가 생산 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약혼자의 량해를 받고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서는 집에 돌아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언제 어데서나 보고 들을 수 있다. 항미 원조 운동과 목전 진행 중인 보충병 초모 사업 과정에서 수다한 처녀들이 자기의 애인을 입대시키는 감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으며 우리는 또한 아직 나어린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습에 일심 전심하기 위하여 결연한 태도로 잠시 련애를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청년 남녀들이 자신의 련애 문제를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모두 정확한 것이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행복스러우며 마음이 유쾌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련애 혼인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정확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일부 청년 남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들 중의 어떤 사람은 오랫 동안 심각한 고민 상태에 빠져 있으며, 어떤 사람은 련애로 인하여 사업과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다. 『중국 청년』 편집부는 일상적으로 각지 청년들의 편지를 받고 있는바 거기에는 이 방면에 관계되는 일부 정형들이 반영되고 있다. 례를 들어, 서주 어느 기관 청년의 편지에는 『나는 련애의 실패로 인하여 심중한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그녀자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잃고는 개인의 일체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고 했으며 동북 어느 건설대의 동무는 『건설대 동무들은 일년 내내 공사장과 농촌에 있기 때문에 혼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동무

들은 이 때문에 사상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느끼며 동요하고 사업에서 열성이 높지 못하며, 심지어 혼인 문제로 하여 개별적 동무들은 과오를 범하기 까지 했습니다.』고 쓰고 있다. 강소성 어느 간부 학교의 어떤 동무의 편지에는 학교의 한 학생이 이 종매를 사모하다가 거절 당하고 일평생 행복을 찾을 길 없다고 느낌으로써 정신 이상에 걸려 늘『생명이란 정말로 귀중한 것이나 사랑은 그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것』이라고 외우고 있다고 하였다. 해남도 어느 집단 농장의 동무는 편지에 쓰기를 그곳의 한 녀성 동무가 련애를 하게 된 후부터 사업과 학습에서 라태해지고, 사업 시간에 련애 편지를 쓰며 학습 시간에도 련애를 운운하기에 영향이 아주 좋지 못하다고 쓰고 있다.

여기에 두서 없이 몇몇 청년들의 편지를 렬거한 것은 기관, 공장, 농장 그리고 학교를 막론하고 어데나 자신의 련애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는 일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청년 남녀들에 대해서 청년단 단체들과 관계 방면에서는 인내성 있는 방조를 줌으로써 그들의 사상의 부담과 내심의 고민을 제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쾌한 심정과 충만된 활기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대렬을 굳건히 따라가게 해야 한다. 이 글은 청년들의 편지에서 발로된 일부 사상 인식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二

우선 말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청년들이 련애로 인하여 사업과 학습에 지장을 받거나 혹은 련애로 인하여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를 막론하고, 그 원인과 배경이 서로 같지 않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련애 문제를 적당치 못한 위치에 놓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련애 문제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고,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그것이다. 때문에 련애 문제만 제기되면 사업과 학습을 돌보지 않으며 일단 이 문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면 일체 생활의 의의를 잃고 전진의 동력을 잃는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맑스주의자는 청년들에게 도승이 되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독신주의를 제창하지도 않는다. 혁명 일군도 역시 련애를 하며 애정 생활도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유사 이래 인민이 주인으로 된 오늘과 같은 시대에서만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을 남녀 쌍방의 상호 평등의 기초 우에 건립하게 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숭고한 의의를 부여하게 되였다. 물론 우리는 또한 청년들이 애인을 사모하다 정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고민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위대한 문호 케테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남자 어데 있으며, 봄을 그리워 하지 않을 소녀 어데 있으랴』라고 했다. 새 중국의 청년도 례외가 아닐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어느 청년이 장기간 혼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정의 상례사라고 할 수는 없다.

실련(失戀)은 사람을 고민케 하지 않는가? 물론 사람을 고민케 한다. 애인들 사이에 서로 알륵이 생기고 부부간에 서로 다투게 되면 자연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정으로써 완전히 모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하나니 즉 련애를 전체 생활 중의 차요한 지위에 놓아야 하며 만약 련애로 하여 고민이 생겼다면 그런 고민도 마땅히 종말을 지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련애를 하기 때문에 련애로 인하여 산생한 고민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열성과 로동의 적극성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더우기는 이 때문에 비관 염세하며 사랑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주로 우리들의 인생관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활의 주요한 위치에 놓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청년들이 혁명적 인생관을 확립한다면 필연적으로 위대한 생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며, 풍부한 생활 내용을 갖게 될 것이고, 인민에 대한 높은 사랑과 고상한 동지적 우의를 갖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도 역시 련애를 희구하고 사랑을 귀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는 다만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절대로 그 전부가 아닐 것이며 또한 가장 주요한 부분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이러한 면에서 일시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생활 그 자체에 공허를 느끼거나 인생 자체의 의의를 잃었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모쓰크바를 멀리 떠러져서』라는 소설에서 청년 기사 알렉쎄이는 자기 애인 지나가 독일 침략자들과의 전투에서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마음 속으로 확실히 비통해 하지만 송유관 건설 소장 바뜨마노브에게서 송유관 용접 부설 공사의 진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가라 앉지 않던 마음 속에 쓰라린 고통을 깔아 앉히고』 즉시 긴장한 작업에 몸을 던진다. 또 소설에 나오는 제八공구 공구장 로고브는 녀의사 올리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몹시 보고 싶어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올리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의 말단에 있는 한 공사장으로 갈 것을 자원한다. 알렉쎄이와 로고브가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혁명적 인생관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혁명 사업을 첫 자리에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일체 불행과 고통은 자연히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깔리닌 동지는 『진실한 공산당원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고민이 종속적 성질을 가집니다』라고 하였다.

반대로 만약 청년들에게 혁명적 인생관이 수립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위대한 목표와 그 위대한 목표를 위하여 분투하려는 견인한 의지가 결핍되므로 흔히 감정이 연약해지며 정신 생활도 역시 매우 빈약하고 공허할 것이다. 이런 때 이성에 대한 생리적, 정신적 요구가 유달리 강렬해지므로 련애 문제를 생활의 첫 자리에 끌어 올리는 것을 면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주객을 전도시킨다면 련애를 하려다 되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련애를 할 때에는 사업과 학습을 돌보지 않게 되며 련애에 실패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차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해진다.

일부 청년들이 련애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는 주요한 병근이 우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병의 증세에 따르는 료법은 사업에서 조동시킨다거나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대상을 물색하는데 편리케 해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방법을 써서 서로 사랑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랑하는 것이 적합치 않은 그런 한 쌍의 청년 남녀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를 근치하는 길은 혁명적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혁명적 인생관은 인생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서 련애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바로 깔리닌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자기의 성격을 확립시키고 여러분이 자기의 세계관을 명백히 확정하고 여러분이 사회주의 건설과 일상적 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할 일과 자기의 역할을 확정하고 자기의 주견을 실천에 옮겨 놓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상 과업으로 되여진 그때에라야 여러분은 온갖 생활상 형극과 실망과 풍파의 영향에 들지 않을 그러한 자신 만만한 면역성을 동시에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느 남학생이 어느 녀학생을 사귀다가 변절하고 다른 녀학생을 사귄다고 하면 — 이것은 아주 막대한 「비극」을 자아 냅니다…… 그런데 아직 성격이 확립되지 못한 어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비극」이 너무나 큰 의의를 갖게 되여 이로 인하여 대개 그에게 생에 대한 타락감이 생길 수 있고 여려해 동안 잊혀지지 못할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확정되고 립지가 굳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비극」이 비교적 그 흔적을 적게 끼칠 것입니다』。 깔리닌의 이 말씀은 련애 문제로 인하여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는 우리 나라의 일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처방이다。 우리가 혁명적 인생관을 수립하고 우리의 생활 중심을 련애로부터 사업과 학습에로 이전시킨다면 그야말로 『가없는 고통의 대해도 돌아만 서면 기슭』으로 될 것이다。 어떤 독자들은 『갈매기』란 책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책 가운데 마루샤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는 과거 정치적으로 비교적 락후한 녀자로써 공청에서 탈맹했으며 실련으로 인하여 비상히 고민하며 밤낮으로 우울해 있었다。 그후 까짜가 그를 새로운 생활에로 나가도록 방조해 줌으로써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생했다。 마루샤의 감정 변화를 묘사한 것을 보라! 『마루샤는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였다。 이 느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흡사 여려해 동안 잠을 자다 큰 일을 저질른듯 했는데 이제 잠을 깨고 나서 비로소 찬란한 생활이 그의 신변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 생활은 한없이 광활하며 풍요하고 광채로운 감동적인 일로 충만되여 있어 그로 하여금 련애의 실패를 최대의 한(恨)으로 삼는 자기 마루샤의 존재가 극히 광채 없고 극히 미소하며 극히 값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였다。 그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이여! 마루샤가 걸어간 길이 바로 동무들이 응당 걸어야 할 길이 아니란 말인가? 동무들은 괴로움을 버리고 들끓는 생활 속에 적극 뛰여 들어가라。 동무들은 오래지 않아 마루샤와 마찬가지로 우의와 애정、 그리고 햇볕이 열마던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三

만약 청년들이 진실로 혁명적 인생관을 확정하고 생활 속에서 련애가 차지해야 할 지위를 옳게 잡았다면 지금 련애에 대한 일부 론조들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없으면 사업에 동력을 잃게 되니 사랑을 위해서는 일체를 아낌 없이 희생시킨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애정에서부터 출발하며 일체는 애정을 위한다는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 목적이 얼마나 보잘 것 없으며 그의 세계가 얼마나 협소한가? 그의 마음에는 국가도 없고 광범한 인민도 없고、심지어 자기의 형제 자매도 없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과 애인뿐으로 그는 다만 자기 애인을 위해 살고 최후로는 자기 애인을 위해 죽어간다。 이런 소수 청년들의 듣잘 것 없는 목소리는 지금 우리의 수많은 청년들이 웨치는 우렁찬 구호와는 참말 九만리나 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통절히 느낀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의 웨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하여』『모든 것을 사회주의를 위하여』이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전투、 사업、학습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동력의 추동 밑에 바다와 륙지와 하늘에서 씩씩한 청년들은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기적적인 공훈을 세웠으며、로동 전선에서 남녀들은 끊임 없이 생산에서의 신기록을 조국앞에 보고하고 있으며、조국을 위하여 학습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은 과학의 요새를 전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이 위대한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 기개이다。 만약 광범한 청년들이 모두 애정을 생활의 동력으로 삼으며 애정을 위해서 일체를 희생시킨다면 우리 국가의 광범한 청년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 조차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력사 무대에 수천만의 량 산백과 축영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만일 량 산백과 축영대가 애정을 위해서 죽은 것이 그 당시 봉건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에 와서는 이와 같은 인물의 출현은 인민의 타기를 받을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어떤 청년들은 베도벤의 『생명은 진실로 귀중하다』란 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의 뜻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니 단두대에 올라 피를 흘릴망정 사랑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론법은 베도벤의 시에 대한 최대의 오해이며 외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도벤의 시 하단에는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 두가지를 모두 버리리라』는 구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인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며 사랑도 희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에 대해 말한다면 조국의 독립을 보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조속한 실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일체를 희생시킴을 아까워 말아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며 우리의 사랑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한다。『사랑은 일체 행복의 원천이니 사랑을 잃는다면 곧 행복을 잃는 것이다』 이런 론법도 혁명적 인생관을 구비한 사람의 관점과는 추호도 공통한 점이 없다。 잡지 『중국 청년』은 지난해 『청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던바 광대한 독자들이 행복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랑은 일체 행복의 원천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위위 동무의 『행복의 꽃은 용사들을 부른다』(『청년 생활』 一九五五년 三호에 실림)란 문장을 들어 말해 보자。 문장에는 이렇게 썼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즉 개인과 집단의 통일이며、 자기 사업의 의의에 대한 심각한 리해이며 자각적으로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리해한다。 그러나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사랑이든지 모두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위 동무는 자기 문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개 혁명가의 립장에서 볼 때 위대한 생활의 목표를 떠난 일체의 행복이라는 관념은 모두가 속된 것이다。 이제 애정을 례로 들어 본다면 어느 한 사람도 그 행복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대한 생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햇볕을 보지 못하는 꽃과도 같이 그 빛과 향기를 잃을 것이다。 고골리가 「옛 기질을 가진 지주」에서 묘사한 늙은 부부처럼 먹고는 자고、자고 나서는 처먹는 이것을、묻노니 무슨 취미와 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행복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의 일부 청년들은 이와 같이 행복을 아주 협애하게、아주 속되게 리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청년들은 이런 사상의 지배를 받아 련애를 말하며 사업과 학습에 성실치 못하고 심지어는 련애 문제로 하여 혁명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만 사랑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야 어찌 되였던、학습이야 잘 되던 못되던、혁명이야 어찌되던 관계치 않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이 만일 자신의 착오를 재빨리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리익에 손실을 주게 될 뿐더러 자신의 전도까지 잃게 될 것이다。 새 중국에 생을 받은 청년으로서 만약 사업과 학습을 잘 하지 않고、혁명에서 리탈한다면 시대의 락오자가 될 것은 틀림 없다。 일시적으로 애정에서 만족을 얻는다 할지라도 끝내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그 고통을 견디여 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독자는 이런 청년이 있다고 반영해 왔다。 그는 본래 상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한 후 서북에 배치되여 사업하게 되였다。 그는 서북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지 못하였

고、서북에서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오직 상해에 있는 자기의 녀 동무―『안치열』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끝내 그는 서북을 떠나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상해로 돌아갔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후 그는 본래 기관에 편지로서 그가 상해에서 하는 생활이 하루살이처럼 실없음을 통절히 말하면서 다시 대서북의 품속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마침내 만약 사랑의 꽃송이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 피지 않는다면 빨리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부정확한 론조들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일일히 들어 론의하지 않겠다. 끝으로 나는 오늘 일부 청년들이 그처럼 사랑에 열중하며, 그처럼 열광적으로 련애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위대한 시대와 적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몇차례의 五개년 계획으로 이처럼 경제、문화적으로 락후한 우리의 국가를 한개의 공업화한 고도의 현대적 문화 수준을 갖춘 위대한 국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 나라 령토 대만을 해방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위할 엄숙한 임무가 있다.

극히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령 모 주석은 우리 나라 인민에게 사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청년들에게『신체를 단련하며 학습을 잘 하고 사업을 잘 하도록』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모 주석의 위대한 호소와 위대한 조국의 보위와 건설에 대한 신성한 책임감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앙양된 의지와 왕성한 정신으로 각 방면에 거쳐 자신의 노력을 강화하게 하고 있다.

이런 때에 만약 일부 청년들이 애정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하고 련애문제에 지나치게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에 대하여 불리한 것이다. 바로 위대한 혁명의 스승 레닌이 말씀한 바와 같이 『현시기 성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생활에 쾌락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탈하고 있다. 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유해한 것이며 극히 유해한 것이다』 청년 자신에 대해 말하더라도 레닌은 이렇게 지적한 일이 있다. 『청년에게는 특히 생활의 기쁨과 힘이 요구된다. 건강에 유익한 유희、수영、산보、신체상의 각종 단련과 지력상의 각 방면의 취미에 대해서는 될수록 공동히 학습하고 연구하며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성(性)문제에 관계되는 그런 영구 불변한 리론과 토론 그리고 소위「인생을 충분히 향락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유익하다』고. 그러므로 청춘은 고귀한 것이며 위대한 시대의 중국 청년들의 청춘은 특히 고귀하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청춘을 련애에 소모해서는 안된다. 빠벨·꼴차긴처럼 자기의 청춘 시대를 인류의 해방 사업에 공헌하여야만 『장차 과거를 회상할 때 그는 무의미하게 삶을 보낸 탓으로 수치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만 림종할 때 그는 나의 온 생명과 모든 정력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여 청춘의 거센 불길을 조국의 사회주의 위업을 위하여 치렬히 불타게 하라!

「중국 청년」一九五五년 七호에서

☆ ☆



종교와 미신은 어떻게 다른가?

미신은 아주 일찍 발생하였다. 즉 자연과의 투쟁에 있어서 원시인들의 무력(無力)에서 미신이 생겨났으며 또한 원시적 종교 신앙이 생겨났다. 현대 사회에도 미신은 존재 하고 있다.

각종 미신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는 같지 않지만 실질적 내용은 완전히 같다. 그것은 모든 미신이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확한 인식 우에 세워진 것이며 초 자연적 힘의 존재에 대한 신앙 우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종교와 미신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 미신』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종교 신앙도 모두 초자연적 힘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는 모두 미신이다. 미신이 없으면 종교 신앙도 없다. 미신이나 종교는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초자연적 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반동적 반 과학적 관념으로서 오랜 력사를 갖고 있다. 특히 종교는 착취 계급의 피 착취 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사상적 무기로 또한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의 도구로 리용되여 왔으며 또 리용되고 있다.

종교가 비록 미신이라고 하지만 일체의 미신을 모두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방면에서 말한다면 종교와 미신은 일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종교로 말하면 각종 종교가 모두 일정한 신앙(일정한「신」「주」「하나님」등에 대한 신앙)일정한 교조와 교리、일정한 제도 혹은 조직、일정한 종교적 의식과 습관、일정한 활동、장소(례배당、절과 같은) 일정한 교도、(신자들)……등등을 갖고 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종교의 제도를 따라 일정한 수속과 의식을 거쳐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 종교에 가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종교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 신자들은 일정한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바 이 종교적 신앙은 또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종교는 항상 딴 교를 『이단』이라고 하며 공격한다.

미신은 그렇지 않다. 가령 할머니가 불공을 드리며 병자가 경을 읽고 점을 치며 가물 때 농민들이 기우제 지내는 등……이 모든 것들은 미신이다. 그런데 이를 종교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을 종교 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 중은 불교도들이다. 그들은 절이나 암자에서 각종 불교 행사를 하는바 이는 불교의 일종 종교적 의식이다. 그러나 절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불공을 드리는 일반 사람들은 불교도가 아니다. 그들이 불공을 드리는 것은 일종의 미신에 불과하다.

청춘의 리상은 농촌에서 꽃핀다

—고중 졸업생 안 희찬이 모범 조합원이 된 이야기—



안 희 찬 동무

안 희찬이 조합원이 된 것은 평북도 룡천군 쌍학리 북현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던 지난 해 一二월달이다.

희찬이 처음 조합에 들었을 때 조합원들은 『말이 쉽지 그 애야 늘 대학까지 나온 다음에 꼭 기술자가 되겠다구 했는데, 어디 이런 일에 마음을 부칠 수 있겠나, 이제 두구보게만 얼마 안가서 주저앉구 말거네…』 거의 모두가 이런 생각으로 그가 조합에 들어온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희찬에 대한 마을 농민들의 인식은 달라졌다.

작업반장인 희찬은 협동화의 새 생활에 들어선 고향 마을을 기계화되고 문화적이며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키려는 광활한 리상을 품고 온갖 정력을 다바쳐 일하고 있다.

* *

안 희찬은 북중 고중 졸업을 앞둔 一九五三년 봄 외국 류학생으로 추천되였다가 신병으로 떠나지 못하게 되였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다른 동무들은 몇해만 지나면 훌륭한 기술자들이 되여 돌아오겠는데 나 혼자만 농촌에 남아서 땅을 파는 「두더지」가 된다면야 리상이고 희망이고 인젠 볼장을 다 봤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때 고민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 이 고민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물론 고중을 나온 다음에 다시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내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도 좋기는 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희망이 영영 실현될 수 없단 말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이때 그는 『저만 노력한다면야 무엇이든 희망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다시 한번 새삼스러히 생각키워졌다. 『옳은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 많은 로력 혁신자들이, 기사, 기수들이 공장에서 농촌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농촌에 남아서 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지 않는가?

더우기 지금 우리 나라 농촌은 협동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청년들의 힘과 지혜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 주저할 것 없다. 나는 반드시 전변하는 고향 땅에서 나의 리상인 농업 기술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난 희찬은 이때까지 하는 일 없이 지낸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희찬은 『소채 작물 재배법』 『선진 농업』 등 새 영농 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책들을 통해 영농 지식을 습득했다. 그 후 그는 자기 집 채마전에서 자신이 습득한 선진 영농법을 적용해 볼 생각으로 감자, 호박 등을 가꾸기 시작했다.

하루는 희찬이 밭에서 호박에 인공 보충 수분을 끝내고 호박 순을 잘르느라고 분주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뒷집 할머니는 호박 순을 잘르는 것은 고사하고 예전에는 열매가 맺지 않을가봐 호박에 손가락질도 안했다고 하면서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희찬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이 어째서 터문이 없는 말이며 이 방법이 왜 좋은가를 자세하게 들려 주었다. 그러나 로인은 납득되지 않았다. 희찬이 호박 순을 잘랐다는 소문은 온 동리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반대했다. 이때 희찬은 한편 주저도 했다. 『단지 책에서만 본 것을 가지고 우기기는 했는데 여름에 가서 실패를 하게 되면 어쩔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이 지남에 따라 희찬은 자신을 가지게 되였다.

드디여 로력한 보람이 있어 희찬이 가꾼 밭에서는 례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호박을 따게 되였다.

이와 같이 실지 실험을 통한 학습은 그로 하여금 농사 일에 점점 흥미를 갖게 하였으며 그의 지식을 확고히 하여 주었다.

그해 겨울 어느날, 쌍학리 민주 선전실에서는 협동 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 이때 희찬은 선참으로 조합에 들었다. 그후 그는 당의 지도 밑에 관리 위원장을 도와 조합의 조직 관리 사업을 협조했다.

어느날 관리 위원장 동무는 희찬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동무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지 체험을 통해 더 풍부히 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을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희찬은 기여히 그렇게 하겠노라 굳은 약속을 했다.

제二 작업반에 배치된 그는 올 봄 파종 때에도 보잡이나 거름을 내는 일에서나 힘든 일을 솔선 담당하면서 자기 책임량을 다했다.

이렇게 되기 까지에는 적지 않은 애로도 있었다. 희찬이 처음엔 기여코 자기 리상을 실현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접어들었지만 파종이며, 발갈이며 뒤이어 부닥치는 고된 일에 지친 나머지 한때는 주저도 했다. 더우기나 남이 하는 것을 보면 그리 힘 안들이고 쉽게 해치우는 것 같드니 막상 접어들면 마음 먹었던대로 되지는 않고 힘만 들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희찬은 우선 『모든 일에 익숙해지려면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하자』 하는 일념으로 농사일에 들어서 미심한 것이 있기만 하면 서슴치 않고 경험 많은 조합원들에게서 배우며 일하는 한편 농산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데 열중했다.

이리하여 그는 선진 영농법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모범으로 되였다. 지난 봄, 조 파종 때만도 로력이 모자라서 곤난하던 것을 책에서 본 조파종기를 자신이 제작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바쁜 때에 일을 훨씬 덜게 했다.

그후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당과 조합 관리 위원회와 토의 밑에 희찬에게 영농 기술 강습회를 지도할 책임을 지웠다. 희찬은 이 중요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진 농업

과학 기술로 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느꼈다.

금년 四월, 작업반장이 되면서 부터 그의 선진 농업 과학 기술 습득을 위한 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진행되였다. 계속 자기 집 채마전을 실습지로 삼고, 각종 작물을 가꾸면서 그동안 습득한 선진 영농법을 적용해 보군 했다.

지난 여름, 희찬은 관리 위원회에 마령서 하기 파종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관리 위원회에서는 그의 제의를 지지해 주었다.

그런데 파종을 앞두고 뜻하지 않던 일에 부닥쳤다. 조합원들과 마을 농민들은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몇 一〇년씩이나 농사를 지어 왔는데, 네가 무얼 안다구 퇴화요, 파종이요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간 인제 종자마저 없애고 말기가 쉽지…』라고 하면서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희찬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우선 왜 나 많은 농민들이 매번 무턱대고 반대하여 나서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로 했다. 그는 틈을 타서 늙은 조합원들과 담화를 하여 보았다. 그 결과 그들이 거의 다 요번에 적용하려고 한 마령서 하기 파종에 대한것만 해도 어째서 이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민청 초급 단체 위원회와 토의 밑에 농산 기술 연구 써클원들을 발동시키기로 했다. 매 써클원마다 조합이나 마을에서나 할 것 없이 틈만 있으면 마령서 하기 파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좀체로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그들에게 꾸준히 해설해 주는 한편 게시판에 쏘련의 농학자 리쎈꼬가 실증한 마령서 하기 파종의 우월성과 파종법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써 붙였다. 그리고 희찬은 우선 자기 작업반에서 써클원들을 중심으로 파종을 끝냈다.

꾸준한 해설과 설복의 결과 농민들은 마령서의 수확이 해마다 줄어드는 원인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기온이 낮은 고산 지대에서 자란 마령서를 기온이 높은 평야 지대에 옮겨 파종한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데로부터 마령서 종자가 원래 자라던 기온과 비슷한 랭한 가을 철에 알이 들도록 봄에 하든 것을 여름에 파종함으로써 八〇%나 더한 수확을 걷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였다.

이리하여 협동 조합에서는 물론 마을 개인 농민들 까지도 적기에 마령서 하기 파종을 하게 되였다.



오늘 희찬이 조합의 주인이 되여 조합원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비단 이것 뿐이 아니다. 그는 실지 작업에서도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희찬이 작업반장이 된 후 얼마동안은 『농사에 경험도 없는 내가 더군다나 나 많은 조합원들을 지도할 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일에 주저하였다. 그러나 그후 조합 관리 간부들의 여러차례에 거친 충고와 따뜻한 지도로 해서 오늘은 작업반장으로서 훌륭히 일하고 있다.

지난번 립상 비료를 만들 때에도 그러했고 특히 달밤을 리용하여 인분을 모아오는 일이며 객토 작업을 할 때에도 힘든 일들을 앞장 서서 도맡아 해 치우군 했다.

금년 모내기 때와 제초 때에도 꼽박 뜬 눈으로 늪에서 물을 퍼가면서 모내기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희찬은 작업반내 민청원들과 함께 솔선 모범이 되여 적기에 이앙을 끝내고 이웃 부락의 백암 농업 협동 조합의 이앙까지 협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업 반장인 그가 언제나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 희찬은 작업 현장을 돌아 볼 때에도 작업 시간 내에는 분조장에게서 작업 정형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작업 현장에 나타나기가 바쁘게 조합원들과 함께 일에 접어들었다가 쉴 참에 가서야 발머리에서 그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며 시도 읊어 주고 하면서 그제서야 분조장들에게서 작업 정형을 듣는다.

『요즘 학생들이 다르단 말야 마른 일, 구즌 일 할 것 없이 접어들어 해치우는걸 보면…… 공부를 하려면 저렇게들 해야돼…』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인으로서 농촌 경리 발전의 역군이 되여 일하고 있는 희찬을 보고 이렇게 감탄들 하고 있다.

※ ※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영예로운 로력에로 지식있는 청년들을 뜨겁게 부르고 있다.

희찬은 당과 정부의 부름과 그의 시책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협동 경리의 행복한 새 생활이 피여 오르는 전원에서 자기의 창조적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조국이 부르는 일터에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광활한 앞날과 함께 자기 자신의 행복한 장래를 내다 보면서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기에 분투하고 있다.

안 희찬은 앞날의 자기의 결의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난 二년동안 실지 체험을 통해 희망과 행복에 가득찬 전변하는 고향 땅은 광활한 배움터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는 고향 땅에서 일하며 배우면서 내가 목적하는 농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본사 기자 **윤 세 용**

어렵고 힘든 일의 선두에서서



화평 림산 사업소 민청 위원장 리 달 호

우리 림산 사업소내 민청원 중에는 지난 봄 도시와 농촌에서 들어 온 신입 로동 청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림산 작업의 경험이 없는 무기능공들이였다.

사업소 민청 위원회 앞에는 신입 로동 청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새 생활에 안착시키며 림산 작업에 익숙케 하도록 할 과업이 나섰다.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신입 로동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에서 우선 그들에게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의 목재의 중요성、사업소의 구체적 실정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림산 로동에 대한 그들의 영예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첫 주목을 돌렸다.

그러나 초기에 있어서 신입 로동 청년들은 현장 일군들과 로숙한 기능공들의 따뜻한 지도와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즉 사업소내 일부 현장 일군들과 로숙한 기능공들은 신입 로동 청년들은 산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들과 같이 일하기 싫어 하였으며 그들에게 기술을 배워 주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들은 림산 직장의 직접 부문에 배치된 청년들이 안착된 마음으로 일할 수 없게 하였으며 많은 청년들이 간접 부문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 림산 작업장들에는 늙은 기능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은 새로운 작업 방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그를 꺼리는 보수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 해 보다 二배 반으로 증가된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저애로 되고 있었다.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이러한 경향들과 투쟁하였으며 미숙련공인 청년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매주 한번씩 진행되는 기술 강연회와 기술 전습회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빠짐 없이 참가시키면서 기술 기능 향상을 위한 개인 담당제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과 금년 중에 사업소내 전체 청년의 四五% 이상이 기능 급수를 한급 이상씩 높이였으며 무기능공들을 거의 전부 퇴치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 기능 수준의 향상과 무기능공들의 퇴치는 그들의 사업에 자신심을 가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솔선 담당하여 나서게 하였다.

남소 작업소 김 홍심 동무는 금년

一九세 밖에 되지 않는 무기능공 리 경태 동무를 맡아 가지고 그에게 기술을 꾸준히 배워 주었다. 그리하여 리 경태 동무는 불과 三개월만에 기능공이 되였다. 그는 자기의 기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면서 로력 영웅 김 와룡 동무의 줄채벌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하루 六三립방메터까지 벌목하여 사업소적으로 최고 기록을 냈다. 그후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청년 벌목공들의 경험 교환회를 조직하고 리 경태 동무의 경험을 일반화하였으며 벌목 작업을 어떻게 하면 더 기계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도 토의하였다.

벌목 기계화 운동은 광범히 전개되였는바 김 홍심 동무를 비롯한 많은 민청원들은 쏘련 인민들이 보내 준 우랄 기계톱을 능숙하게 조종하여 자기들의 벌목 실적을 배로 높이고 있다. 또한 많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리 경태 동무가 실시한 줄채벌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벌근고를 낮추고 초두목을 최소한도로 리용하면서 규격재를 보장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민청 청년 브리가다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일의 선두에 서게 하였으며 생산 실적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리 창섭 민청 청년 브리가다는 벌목 작업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자진 담당하여 독자적으로 림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였으며 다른 브리가다 보다 일상적으로 월간 계획을 먼저 완수하고 있다.

그의 모범을 따라 기타 작업소내에서도 민청 청년 브리가다를 광범히 조직하고 치렬한 증산 경쟁 운동을 조직 전개하고 있다. 석막 작업소 염 봉현은 一四六%、지 운학은 一七一%로 상반년 계획을 완수하였으며 그들이 속한 민청 청년 브리가다에서는 八월말 까지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할 목표로 투쟁하고 있다.

흑수 민청 청년 브리가다의 김 칠성 동무는 역우를 뜨거운 낮에는 쉬게 하고 서늘한 아침 일찍과 저녁을 효과 있게 리용하여 소의 피로를 적게 하면서도 소발구 운재 능률을 二〇五%로 높이였는바 지금 이 경험은 다른 소 발구 운재공들과 브리가다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이와 같이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어려운 일의 선두에서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휴식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배려를 돌리고 있다.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축구공과 배구공을 구입하여 사업소를 비롯한 산지 작업소들에 보내였으며 매 산지 작업소마다 운동장을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산지 작업소 운동장들에서는 남녀 민청원들을 중심으로 배구、축구、그네、철봉、쌍봉 등 다양한 운동과 스포츠들이 휴식 시간이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七월 二四일에는 작업소 대항 체육 경기를 진행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연예 써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벌써 수차에 거쳐 연극、바라이데、스켓취 등 다채로운 레빠또리로 군중 공연을 하였으며 각종 레빠또리는 항상 림산 로동자들과 청년들의 혁신적 로력 투쟁을 제마로 형상화함으로써 관중들에게 더욱 흥미를 가지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울창한 밀림 속에서 우리 사업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힘과 랑만에 넘쳐 흥겨웁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은 어떻게 절약하고 있는가?

「동무들은 어떻게 절약하고 있는가?」라는 본 잡지 편집부의 질문에 대하여 평양시 동평양 자동차 사업소 민청원들의 휘발유 절약 경험과 함흥 종합 공장 민청원들의 면사 절약 경험、국영 함남 광포 오리 목장 민청원들의 농후 사료 절약 경험、평양 방직 기계 제작소 민청원들의 로력과 자재 절약 경험을 보내 왔다. 편집부는 다음에 그를 소개한다。

기술、기능 수준 제고와 휘발유 절약

지난 二월에 우리 동평양 자동차 사업소 전체 종업원들은 공화국 전체 자동차 운수 부문 일군들에게 년간을 통하여 휘발유 소비 계획량의 一〇%를 절약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후 전체 종업원들과 젊은 운전사들은 휘발유 절약 목표를 넘쳐 실행하기 위한 군중적 절약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휘발유 절약에서 오늘과 같은 그런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매개 젊은 운전사들이 휘발유 소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자각적 태도가 부족한 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된 것은 운전 기능이 부족한 데 있었다。

례를 들면 운전 기술 수준이 높은 강병석 동무와 같은 젊은 운전사들은 국가 소비 기준보다 一三—一五%까지의 휘발유를 절약하였으나 김 응률、문 태현、김 중섭 동무와 같은 운전 기능이 부족한 젊은 운전사들은 오히려 국가 소비 기준에 비하여 一五—二〇%의 휘발유를 더 소비하였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기능 수준이 부족한 젊은 운전사들의 기능 수준을 선진 운전사들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즉 휘발유 절약 투쟁에서 앞선 동무들과 뒤떨어진 동무들의 경험을 각종 모임을 통하여 선전하는 한편 운전 기능이 부족한 동무들에 대하여는 행정에 제기하여 기술 꼬미샤 성원들의 개별적 담당 지도제를 실시하였다。 기사장 김 재완 동무를 비롯한 기술 꼬미샤 성원들은 직접 차를 같이 타면서 운전 기능이 부족한 젊은 운전사들에게 기술적 지도를 주었다。 결과에 운전 기능이 부족하던 동무들이 운전 기능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오늘에 와서는 휘발유를 국가 소비 기준량보다 一〇—一三%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은 기술 꼬미샤 성원들의 기술적 지도와 결합시켜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六〇만 키로의 무사고 운동의

선구자인 쏘련의 야이·찌또브의 자검 자수 및 타력 운전 경험을 광범히 보급하였다。

이리하여 젊은 운전사들의 운전 기능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선진 운전법을 광범히 도입 적용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전개되였다。 국기 훈장 三급 수훈자인 젊은 운전사 리 정일 동무는 쏘련의 혁신 운전사 야이·찌또브의 선진 운전법을 적극 도입 적용하여 무사고 운전과 휘발유 절약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많은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차량의 성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고 있다。 즉 항상 차량의 완전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기 전에 언제나 철저한 차량 정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행시는 차량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각 련결부들을 튼튼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핸들의 유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규정대로 간격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이 가볍게 잘 회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각 부문의 주유 개소에 충분한 주유를 보장함으로써 동력 절단을 민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원동기의 윤활유를 일정한 거리의 주행시 마다 교환하여 주고 있으며 시동시에는 농류 까스 및 고속도 회전과 공회전을 근절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시린다 내의 카봉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에야 크리나를 정상적으로 청소하는 한편 밧데리의 각 다미나루에서 산화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一회씩 청소하고 있다。

특히는 야간 운행과 장거리 운행시에는 반드시 세루 모다 대신에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히 스다쨩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일 동무는 일단 시동된 후에는 스로 회전에서 농류 까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유 이동과 능력을 원상태 보다 一五—二〇% 적게 보장되게끔 노즐 빠이프를 좁힘으로써 휘발유 감모률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있다。

특히 리 정일 동무는 운전시에 로면을 잘 고려하여 타력을 적극 리용할 뿐만 아니라 정차시에는 미리부터 정차할 곳을 정확히 정한 다음 타력으로 서서히 운전하며 급 카브、급 제동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휘발유 절약에서 결정적 작용을 노는 것은 캬브레타의 기능을 항상 정상화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는 캬브레타의 중요 부분인 벤제트 브르크의 간격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마모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자검 자수하며 캬브레타 조정을 심중성 있게 함으로써 휘발유의 류실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 정일 동무는 선진적인 자검 자수 운동과 타력 운전을 실시하여 매분기에 七九八키로그람 이상의 휘발유를 절약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주었다。 리 정일 동무의 운전 경험은 전체의 八〇%에 달하는 젊은 운전사들에게 보급되여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행정에 제기하여 매개 젊은 운전사들이 하루 작업이 끝나면 그날의 운전 일보와 휘발유 출급 대장과 대조한 다음 휘발유 잔량을 검량 받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결과 부분적 동무들이 휘발유를 팔아 먹거나 자기 집에 가져다 쓰는 비 국가적 도적 행위들이 근절되게 되였으며 특히는 운행 도중의 불필요한 정차、고속도 주행、도중의 빈번한 련속 기야를 넣는 등 현상들이 근절됨으로써 많은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자동차 사업소 젊은 운전사들은 휘발유 소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새롭고 선진적인 운전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여 국가 소비 기준량에 비하여 一〇—一三%의 휘발유를 절약함으로써 사업소적으로 매달 一〇톤 이상의 휘발유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동평양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운전사들로 하여금 휘발유 절약에 대한 자각적 태도와 운전 기능이 원만하지 못한 데로부터 아직 휘발유 절약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소 민청 위원회는 초급 단체의 지도 하에 더 많은 휘발유 절약을 위하여 젊은 운전사들을 절약에 대한 자각적 태도로 교양하는 한편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깊은 관심을 돌려 지도하고 있다.

동평양 자동차 사업소 민청
위원장 리 필 근

합리적 작업 방법으로 면사를 절약하고 있다

우리 함흥 종합 공장 편직물 부문에서 일하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양말, 장갑, 원단과 대환기로 메리야스를 짜는 작업에서 적지 않는 면사를 절약하고 있다. 양말, 장갑 원단을 짜자면 한사람이 하루에 八〇〇그람 내지 一키로그람의 면사 통그러미를 쓰게 된다.

그런데 년초 까지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실 통그러미가 풀려서 보통 一〇〇그람 정도 남으면 내깔리고는 새것을 바꾸는 것이 보통 일로 되고 있었다. 다 쓰지 않고 팽겨치는 실통그러미는 공 로력을 들여 다시 해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실에 꺼스레미가 일고 부서지군 하여 랑비된다. 그것은 하루에 한 통그러미에서 양말과 장갑을 각각 다섯쪽씩 더 만들 수 있는 면사가 랑비된다.

실 통그러미가 다 풀리기 전에 내버리는 원인은 압착된 실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민청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런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일을 쉽게 하려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실통그러미를 적은 것, 큰 것을 하나 건너 엇바꾸어 놓고 쓰도록 하였다. 결과 일시에 실 통그러미가 적어지는 폐단이 없어지고 실이 힘들게 풀리지 않으므로 면사의 랑비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은 창발적 작업 방법은 내의와 메리야스를 짜는 대환기 운전공들에게도 광범히 적용되고 있는바 하루 一二〇그람, 즉 양말 네 켤레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면사를 절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환기 운전공들은 실 통그러미를 기대 뒤에 놓는 방법도 고치였다. 즉 바른 편으로 풀려 오르게 놓으면 연도(탈리는 것)가 너무 심하여 메리야스의 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계 고장과 바늘이 부러지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이 왼편으로 풀리도록 통그러미를 돌려 놓음으로써 이런 현상을 근절하고 있다.

민청 초급 단체 위원회는 면사 절약을 다만 메리야스나 원단을 짜는데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널리 보급시키고 있다.

지난 한때는 재단공들이 표준 재단 규정을 위반하고 가위 밥을 지내 많이 나게 함으로써 많은 천을 랑비했다.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민청 초급 단체 위원회는 행정에 제기하여 재단 표준 규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현장에 붙이고 재단공들로 하여금 재단 표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일상적인 지도를 주었다. 이리하여 재단공들은 내의 한 벌을 재단하는데서 二〇—三〇센치메터의 천을 절약하고도 완전한 규격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하여 재단공들은 내의 재단에서만도 그전보다 二〇%의 면사를 절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공장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절약을 위한 투쟁은 점차 생활화되여 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공장 편직물에서는 지난 一・四분기에만 하여도 一톤 三〇〇키로그람의 면사를 절약하였으며 七월중에는 원단위 소비 기준보다 면사를 一二%나 절약하였다. 이것은 七백여 켤레의 장갑과 양말 그리고 三二〇여벌의 겨울 및 춘추 내의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면사량이다.

물론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면사 절약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절약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내부 원천의 광범한 동원 리용과 함께 선진 기술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함흥 종합 공장 편직물
민청 분 초급 단체
최 한 봉

농후 사료 절약을 위하여

우리 목장 민청 위원회는 지난 五월 一五일 위원회에서 농후 사료를 절약하고 자연 사료를 다량 채집함에 청년들이 광범히 참가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후 종금 부문 분 초급 단체 총회들에서는 산란에 지장을 주는 동물질 사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一、〇〇〇여정보나 되는 넓은 광포에서 시간외 로동으로 새우를 채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종금 一반 김 순하 동무는 오리의 정상적 방목과 함께 자연 사료 채집을 위한 사업에서 새우 六〇〇키로와 청초 一톤 六〇〇키로그람을 채집함으로써 八천여원의 금액과 三五키로그람의 농후 사료를 절약하였다. 그는 또한 동물질 사료 보장을 위한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부패된 오리알을 가지고 구데기 양식장을 만들어 그 구데기를 오리에게 뿌려 줌으로써 동물질 사료를 보충케 하였다.

종금 제 一작업반 고 승혁 동무는 새우 六七키로그람과 청초 一八九키로그람을 채집하여 농후 사료 一三四키로그람을 절약하였으며 一・四분기 산란 계획을 六六%로 초과 완수하여 四만五천여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민청원들의 이와 같은 열성으로 하여 지난 상반년도 기간에 새우 一一톤 六〇〇키로그람을 채집하여 오리에게 줌으로써 一一만 六천여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산란 계획을 一・四분기에 一一一・五%로、二・四분기에 一〇二・四%로 초과 완수하였다. 특히 산과 들에서 一七六톤의 청초를 채취하여 오리에게 급여하여 비타민의 부족을 타개하고 오리의 체중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五톤에 달하는 농후 사료를 절약하였다.

농후 사료 절약을 위한 사업은 농산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 속에서도 광범히 전개되였다. 농산 부문 민청 청년 작업반장 변 필남 동무는 지난번 이앙 때 역우가 여원 관계로 서레질이 곤난하게 됨을 타산하고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一일 二키로그람 정도의 개고리와 그의 알을 수집하여 소에게 먹임으로써 논갈이를 보장케 하였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 경험을 전체 민청원들에게 일반화시켰다. 농산 부문내 민청원들은 五四〇키로그람의 개고리와 그의 알을 수집하여 八두의 소에게 줌으로써 一일 평균 一、〇〇〇평 밖에 서레질을 못하든 소들이 최고 四、五〇〇평까지의 서레질을 하게 되여 전 목장적으로 제一착으로 모내기를 완료하였다.

축산 및 농산 부문 민청원들과 청년

들의 농후 사료 절약을 위한 사업과 함께 부화 및 육축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금년도 자기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로력하고 있다.

우리 목장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와 같은 성과들에 자만 자족하지 않고 농후 사료를 절약하고 자연 사료를 대량 채집하여 생산 원가를 저하시키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국영 함남도 광포
오리 목장 민청
위원장 박 설 자

절약과 창의 고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방직 기계 제작소 민청원들은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로력과 원자재를 많이 절약하고 있다.

종전까지 직기 부문에서 조립된 직포기는 그 중량이 一톤 五〇〇키로그람이나 되여 그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운반 기구가 불비한 관계로 一〇여명의 로력과 많은 시간이 랑비되고 있었다.

민청 직기 분 초급 단체 리 종진 동무는 운반 기구가 불비한 관계로 필요 없는 로력이 랑비되고 있는 이 사실을 목격할 때 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쉽게 운반할 수 있을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하였다.

그후 그는 기계 제작소 기술부 일군들의 방조를 받으면서 운반 기구를 개편하는데 전심을 기울였다. 그는 안되면 다시 뜯어 고치고 다시 연구하군 하여 약 一개월 동안에 거쳐 운반 기구를 개편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폐물로 된 간단한 수개의 호이루를 리용하여 조립식 운반 기구를 만들므로써 인력으로 운반하던 직포기 운반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력을 五〇% 절약하고도 운반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리하여 二만 四천여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다음으로 샷돌 분 초급 단체에서는 김 상복 동무가 목관 쎈따 구멍을 개편하는데 성공하였다. 목관이란 것은 천을 짜는데 실감는 기계인바 그의 내부 중심 구멍이 〇·五、六미리만 차이가 있어도 방직공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관의 내부 중심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목관 쎈따 구멍 뚫기 공정에서 진동 현상으로 인하여 六〇%에 달하는 오작품을 내게 되는 형편에 있었다.

기계 제작소 민청 위원회는 목관 구멍 뚫기 공정을 개편하기 위하여 고심하는 김 상복 동무를 기술적으로 방조해 주기 위하여 기술부 일군들을 이에 파견하였다.

김 상복 동무의 인내성 있는 로력에 의하여 목관 쎈따 구멍 뚫기에서 주축뿐만 아니라 도리루에 모타를 련결하여 고속 회전을 주어 일부 구로를 개편함으로써 진동 현상을 방지하였다. 결과 오작으로 인한 수정품을 六〇%로부터 一〇%로 저하시켜 생산 실적을 一五〇% 이상으로 높이게 하였다. 이렇게 목관 쎈따 구멍 뚫기 공정을 기계화함으로써 六만 六천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지금 우리 기계 제작소내 민청원들은 적으나 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로력과 원자재를 절약하며 국가에 조금이라도 리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작업 공정을 개편하며 창의 고안 운동을 대담하게 전개하고 있다.

평양 방직 기계 제작소
민청 위원회
위원장 홍 옥 철

탐오 랑비에 대한 자백 운동은 대중적 사상 개변 운동이다

리 두 진

경제 절약 재정 및 자재 통제 규률과 반 탐오、반 랑비 투쟁 강화에 대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근 五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탐오、랑비를 반대하며 절약을 위한 당 정책 실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이것이 심각한 사상 개변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청 단체들과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반 탐오、반 랑비 투쟁과 자백 운동의 의의를 옳게 인식함으로써 이에 보다 대중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반 탐오、반 랑비 투쟁과 자백 운동의 의의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인민이 진행하고 있는 웅장한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과 원료 자재들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제 건설의 결정적 토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오리의 실、한줌의 석탄、한방울의 기름이라도 랑비함이 없이 절약 리용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고상한 의무로 되며 인민 경제 발전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기관 및 기업소들에서는 이렇게 귀중한 자금、원료、자재、로력이 랑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이를 탐오、횡령、절취함으로써 경제 건설을 좀먹으며 국가에 엄중한 해독을 주는 범죄적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 건설 도상에 선 우리 나라에서 잠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형편으로부터 출발하여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엄격한 경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반 탐오、반 랑비 투쟁을 전 당적、전 인민적 투쟁으로 전개할 과업을 제시한 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로 되는 것이다.

실로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그를 탐오、랑비、절취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일부 일군들과 청년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의식을 개조하며 혁명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관리 질서를 더욱 확립하며 우리의 건설 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탐오、랑비를 반대하는 투쟁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여기에 있어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제기한 자백 운동을 공개적이며 대중적 투쟁으로 조직 전개하

는 것은 반 탐오、반 랑비 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및 조직적 대책으로 된다。

자백 운동의 의의는 이미 국가 사회 재산을 탐오、랑비、절취、횡령하여 과오를 범한 자들을 자백 반성시킴으로써 그들의 옳지 못한 사상 의식을 개변시키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이를 통하여 전체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국가 사회 재산을 철저히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며、나아가서 국가 경제 생활에서 사업상 제도와 질서를 더욱 확립하며、일꾼들의 경제 관리 지도 수준을 높임으로써 탐오、랑비의 근원을 철저히 퇴치하는데 있다。

당은 자백 운동을 관대와 징벌의 방법을 엄격히 결합시켜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범한 과오를 당과 국가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서던지 량심적으로 자백하고 반 탐오、반 랑비 투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처리하며 범한 죄과를 자백하지 않는 자、허위적으로 자백하는 자、자백한 후에 다시 과오를 범하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백 운동은 과오를 범한 자들이 그를 솔직히 자백함으로써 깨끗한 사람이 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더욱 헌신할 광범한 길을 열어 주는 교양적 대책이다。

자백 운동은 대중적 사상 개변 운동이다

탐오、랑비 현상—이것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관리 체계의 본성으로 되여 있었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인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 국가 재산은 근로 대중을 억압하며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애호 절약하는 것은 매개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되여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특색인 탐오、랑비、횡령、절취 현상들이 지금에 와서도 부분적으로 나마 계속 발로되고 있는 리유는 어데 있는가? 그것은 해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인민 경제 건설의 각 분야에서 통제、검열、결산 규률과 제도가 미약하며 이 부문 일꾼들의 지도 수준이 낮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많은 일꾼들과 청년들 속에 일제 통치 시대의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으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이 사상을 부식시키는 부르죠아 사회의 죽어가는 요소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탐오、랑비는 적대적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탐오、랑비 행위는 주로 국가 사회 재산 보다 자기 것을 더 귀중히 생각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자기의 탐욕과 향락을 위해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서슴 없이 좀먹으며 더러운 마수를 뻗치기를 즐겨하는 자본주의적 개인 리기주의 및 부화한 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탐오、랑비、횡령、절취를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 낡은 사상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 투쟁이다。

더우기 자백 운동은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목적과 의의、그리고 진행 방법으로 보아 일부 일꾼들과 청년들 속에 남아 있는 악독한 일제 사상 잔재와 부르죠아적 사상 영향을 반대하며 선진 근로자들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사상 개변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백 운동은 사상 개변 운동인 것만큼 대중들이 자각적으로 이에 참가함으로서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민청 단체들은 우선 민청원들과 청

년들 속에서 강연、담화、직관 선전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백 운동의 의의와 내용을 철저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의 자각적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광범한 청년 군중들에게 소유에 대한 낡은 사상 의식을 반대하고 국가 사회 재산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사상으로 교양하며 탐오、랑비 행위를 탐정이나 스파이 행동보다 못하지 않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락인하는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매개 청년들이 탐오、랑비、절취를 반 혁명적 행위로 인식하고 그를 증오하며 그와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백 운동은 자각성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자백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교양과 검열을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자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대중적 폭로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자백 운동을 사상 개변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기 위하여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국가 재산을 얼마나 손실 주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자백하는 데만 그치게 하지 말고 어떠한 사상적 근원이 그와 같은 행동을 감행케 하였는가를 심중히 반성하도록 할 것이다。 청년들 속에서의 탐오、랑비 행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자백 운동에 소홀히 대하는 현상이 오늘 일부 민청 단체들에서 발로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에 있어서 량의 대소를 막론하고 국가 재산에 손을 댄 그 리기주의적 사상의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를 교양적 견지에서 심중히 대하여야 한다。

자백 운동이 사상 투쟁인 것만큼 또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을 일시적 깜빠니야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조직 전개하며 탐오、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대중적 절약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배합시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탐오、랑비를 반대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인민 민주 제도의 본질과 국가 건설의 정책 상 요구로부터 출발되는 혁명적 투쟁이며 아주 복잡한 사상 투쟁이다。 일찌기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는 『재정 규률을 위반하고 국가 재산을 랑비하는 현상들과 투쟁하는 것은 일체 일제 사상 잔재와 자본주의적 영향을 퇴치하는 중대한 전투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수령의 교시를 명심하고 자백 운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사상 개조의 훌륭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솔직성과 결함에 대한 비 타협성은 청년들의 고귀한 도덕적 품성

『나는 귀중한 국가 재산을 절취함으로써 당과 국가 앞에 죄과를 범했으며 민청원으로서의 영예를 손상시켰다。나는 구라후 용지 五〇매、제도 용지 八〇〇그람 기타를 남몰래 훔쳐서 시장에 내다 팔아 먹었다。 나는 내가 범한 과오를 솔직히 자백한다。 나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학습하면서 크나 적으나 국가 앞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체험했으며 사람은 자기 량심을 속이고는 마음 편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이는 김 유필 지배인이 지도하는 공창 공정원 한 태경의 반성문의 한 구절이다。 과연 한 태경의 말과 같이 사람은 자기 량심을 속이고는 살 수 없다。 하물며 앞길이 천리 같은 청년들이 자기의 량심을 손상시키는 수치스러운 비밀을 가슴에 숨겨 두고 마음껏 피여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꺼리낌 없고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의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

솔직성과 결함에 대한 비 타협성은 민청 일꾼들과 청년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도덕 품성이다. 오늘 많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자백 운동에 솔선 참가함으로써 민청원다운 솔직성과 용감성을 뵈여 주고 있다. 사리원시 상업 관리소에서 일하는 민청원 계 용식과 신의주시 국영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는 민청원 고 경옥을 비롯한 일부 과오를 범한 청년들은 이러 저러한 방법으로 비록 거액은 아니지만 국가 재산에 손을 댄 자기들의 잘못을 량심적으로 자백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감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다. 국가 앞에서 아무런 과오도 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솔직히 자백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부분적 청년들 속에는 자기가 범한 과오는 별로 큰 것이 아니니까 우물 쭈물 넘겨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미 폭로된 사실만으로 자백하는 체 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것은 솔직하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는 덮어 둘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범한 죄과를 자백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써 만은 만족할 수 없다. 청년들은 자기 결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하여도 조금도 참지 못하는 비 타협성과 원칙성을 가져야 한다. 이리하여 청년들은 자기의 과오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탐오, 랑비, 절취 행위를 대담하게 폭로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사실에 있어서 국가 재산에 더러운 손을 뻗친 사람이 나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폭로하지 않는 사람도 그만 못하지 않게 나쁜 것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 투쟁을 통하여 솔직하며 원칙적이며 대담하며 당과 국가의 리익을 제일 생명으로 아는 고상한 품성들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

당은 국가 경제 건설의 각 분야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낡은 사회의 유물인 탐오, 랑비, 횡령, 절취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 인민적 사상 개변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것을 제시하면서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 앞에 새 풍습, 새 문화를 근로 대중 속에 배양하며 건설함에 있어 발기자적 역할을 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국가 건설을 좀먹는 낡은 사상 의식을 반대해서 적극 진출할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성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그를 부단히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창발성을 다하며 건설 도상의 곤난을 용감히 극복하며 명랑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건설함에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뵈여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 의식은 조국의 통일과 부강 발전을 위한 슬기로운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며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데서나 증산과 절약의 새 성과들이 창조되며 춤이 넘실거리고, 노래가 울려 퍼지며 생기 발발하고 기세 약동하는 참다운 새 생활, 새 풍습이 이룩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온갖 낡은 것을 씻어 버리고 새로운 혁명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여 증산과 절약에서 새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로 나서야 한다.

새로 가맹한 민청원들을 위한 교양 자료

청년과 민청

민청 중앙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정 동 식

민청은 어떤 단체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가

민청은 조선 로동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로서 로동 청년, 농민 청년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 각층의 선진적 청년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한 대중적 사회 단체이다.

민청을 로동당의 방조자 라고 하는 것은 민청이 청년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 수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그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과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시켜 조국의 믿음직한 건설자로 배양함에 있어서 로동당을 적극 방조함을 의미한다.

민청을 당의 후비대 라고 하는 것은 민청이 당의 령도하에 당의 정책과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광범한 청년들의 정치 사상 수준과 실무 능력을 제고시켜 그들을 국가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일군으로 준비시키며 동시에 우수한 근로 청년들을 배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당원의 조건이 구비되게 하여 당의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민청원이 로동당에 입당할 때에는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이 보증을 입당자에 대한 보증인 一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의 후비대로서의 민청에 대한 당의 두터운 신임의 표시이며 민청의 책임을 더욱 증대시킨 것이다.

민청은 그의 창건이래 자기의 헌신적 활동으로써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믿음직한 후비대임을 뵈여 주었다.

민청은 평화적 건설의 五년간에 있어서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언제나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호소를 받들고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 수행에로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였으며 또 조직 동원하고 있다. 민청은 로력과 조국 보위를 위한 영웅적 투쟁에서 광범한 청년 대중을 당과 혁명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애국주의와 영웅주의와 혁명적 견결성으로써 교양하여 수십 만명의

젊은 애국자들로써 당 대렬을 보충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민청은 로동당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의 지도 밑에서 사업한다. 로동당은 조선 근로 대중의 선진적 부대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자이다.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 및 풍부한 투쟁 경험과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모든 대중적 조직들을 령도하는 최고 형태의 조직이다.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민청 단체들의 임무는 자기의 력량을 당 정책 실천에로 조직 동원하며 청년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그들을 국가 경제, 문화 건설 사업과 사회 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의 담보인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 돌격대가 되게 하며 조국 보위의 용감한 투사로 배양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민청은 자기 조직을 부단히 강화하며 민청 사업에서의 일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청년들 속에 환희와 힘과 랑만이 약동하도록 자기 사업을 청년들의 감정과 요구에 알맞게 힘 있고 생기 있는 창조적 사업으로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민청원의 의무

민청원의 첫째 의무는 항상 선진적 과학 리론을 습득하고 그를 광범한 청년들에게 보급시키며 청년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선진적 과학 리론인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로동당의 정책과 김 일성 원수의 로작들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 사상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와 당의 정책을 잘 료해하여야만 계급의식이 높아지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사회주의 기초 건설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열성과 용감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과학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성실히 학습할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문화와 기술을 잘 학습하여 자기가 하는 일의 능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자기 자신이 학습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청년들에게 선진적 과학 리론을 선전하여 그들의 정치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열성적으로 방조하여야 한다.

민청원의 둘째 의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공화국 북반부와 같은 제반 민주 개혁을 전 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헌법은 우리 나라의 기본 법으로써 헌법에는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이 장구한 투쟁으로 전취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들과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가 법적으로 확인되여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곧 공화국과 자기 자신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청원들은 공화국 헌법의 내용을 잘 알고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한 민주 개혁을 전 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매개 민청원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의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민청원의 세째 의무는 국가 법령을 준수하며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인민 경제 건설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공화국 법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들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 정권을 공고히 하며 우리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무기이다. 때문에 전체 인민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민청원들은 국가 법령 준수와 정부의 제 시책 실천에서 모범이 되며 사회 질서를 존중히 하며 그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 재산은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 기초이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국가 사회 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그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절약에 힘 쓰며 일체 탐오, 랑비 등 반 인민적 범죄 행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 규률 준수에 모범이 되며 일체 태만과 비 근로적 행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매개 민청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증산 경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며 국가 과제를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수하며 농촌 민청원들은 농산물의 증산과 가축의 증식을 위하여 특히 농업 협동 조합을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청원의 네째 의무는 청년 군중과 밀접한 련계를 강화하며 청년들의 질문과 요구에 대하여 수시로 응하는 것이다. 민청원은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민청의 힘은 광범한 청년 군중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광범한 청년들을 단결시키고 교양하는 것은 당이 민청에게 맡긴 중요한 임무이다. 청년들을 단결시키고 교양하기 위하여서 민청원들은 청년 군중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생활에 관심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잘 접수하여 해결하여 주며 해설과 설복을 잘 하여 그들을 당과 정부의 시책 실천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또한 자기의 모범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실제 사업을 통하여 민청에 가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조국을 보위함은 민청원의 가장 영예롭고 고상한 의무이다.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 독립되지 못하였으며 미제국주의 자들은 공화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다.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남반부에서 팟쇼 테로 통치를 강화하여 남반부 인민들을 암흑과 무권리, 기아와 질병의 도탄에 빠트리고 있으며 기회를 엿보아 공화국 북반부에 침공하려고 각종 발악을 다하며 자기들의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파견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조선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민청원들은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만약 적들이 도발적 책동을 감행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격멸 분쇄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조국 보위의 신성한 의무를 실천하는 길은 조국 보위의 성벽인 조선 인민군에 복무하는 것이다. 민청원들은 인민 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에 복무함을 고상한 영예

와 명예의 임무로 인식하고 그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체를 단련하며 군사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민청원들은 군사적 및 국가적 비밀을 지키며 어느 곳에서든지 고도의 경각성을 발휘하여 반간첩 투쟁의 초소에 나서며 자기의 향토와 직장과 국가 시설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민청원의 다섯째 의무는 동맹의 결정과 지시를 실행하며 동맹의 규약에 복종하여야 한다. 민청원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초급 단체 회의에 반드시 참가하며 맹비를 규정한 시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개 민청원이 민청 생활에 충실하며 동맹 규률에 복종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민청이 당으로부터 위임된 영예로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이 한몸과 같이 통일되고 단결되여야 하며 따라서 전체 민청원들은 동맹의 규약과 결정을 철저히 그리고 자각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민청 규약과 결정 그리고 민청의 모든 위임을 책임적으로 완수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길에서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 타개하여야 한다.

또한 민청원들은 초급 단체 총회에 빠짐 없이 의무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결함을 비판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자기 과오에 대하여 솔직할 뿐만 아니라 동지의 결함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비판하는 것을 고상한 의무로 실행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맹비를 규정된 시일내에 초급 단체 위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민청 재정의 원천으로 될 뿐만 아니라 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함으로서 항상 그가 민청원이란 책임과 자각성을 가지게 되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

민청원의 권리

첫째로 민청원은 동맹내에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있다. 즉 민청원은 누구나 동일하게 초급 단체로부터 중앙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지도 기관을 선거할 권리와 또한 민청 지도 기관에 피선될 권리가 있다.

민청원은 지도 기관을 선거할 권리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을 검열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꾼들을 지도 기관에서 소환할 권리도 가진다.

민청원의 이 권리를 옳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규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결산——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청원은 동맹 회의와 동맹 출판물에 있어서 동맹 사업의 실질적 문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민청 사업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민청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민청원들은 초급 단체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결의권을 가지지 못한 회의에서도 민청 사업의 실질적 문제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민청 중앙 위원회의 기관지인 신문 『민주 청년』과 잡지 『청년 생활』을 비롯한 출판물에 자유로 투고하며 민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발표할수 있다.

세째로 민청원은 자기의 활동과 행동에 관하여 토의 결정하는 회의에 친히 참가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민청원들이 자기의 활동과 행동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민청원은 그의 모범적 활동에 대한 표창이나 그의 결함과 과오에 대한 비판 혹은 책벌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친히 그 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회의는 본인의 의견을 듣고 본인이 인정하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정당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네째로 민청원은 동맹내의 각급 기관 및 중앙 위원회에 까지 각종 문제의 신소와 제의를 할 수 있다.

매개 민청원은 민청 사업에 대하여서나 자기의 개인적 문제에 대하여 민청 각급 기관과 중앙 위원회에 까지 신청과 의견을 제출하여 해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청 및 의견이라는 것은 민청 사업에서의 창발적 제의와 지도 기관과 지도 기관 일군에 대한 비판과 신소일 수도 있으며 또한 민청 사업에 대한 의문을 해명 받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민청원이 비판을 할 때 억압을 당하였거나 불공평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고와 신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신소와 제의는 직접할 수도 있으며 서면으로, 또는 민청 출판물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민청원의 신소와 제의를 받은 민청 기관은 이것을 깔아 두지 말고 제때에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하여 민청내에서 정당한 의견이 말살되지 않으며 민청내의 규률이 위반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휘될 수 있다.

다섯째로 민청원은 동맹 각급 회의에서 각 기관 및 민청원들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 비판은 건전하고도 옳은 것이여야 한다. 다수 가결로써 접수된 결정에 대하여서는 비판할 수 없다.

비판은 민청 사업 발전의 무기이다. 때문에 민청 규약은 비판의 권리를 매개 민청원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비판은 언제나 정확하고 건전한 것이여야 하며 비판은 높은 정치성과 동지애가 충만하고 결점과 과오를 퇴치하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 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 다수 민청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이 접수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서는 비판할 수 없으며 그 결정은 전체 민청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 *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는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민청원이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한다면 그는 자기의 권리를 옳게 행사할 수 있다.

실례로 민청원은 민청내에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있는데 어떤 민청원이 지도 기관에 선거되기 위하여서는 그는 민청원의 의무를 잘 실행하는 모범이 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청원들은 민청 사업에 열성적이며 신망 있는 민청원을 지도 기관에 선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개 민청원들은 민청원의 의무를 충실히 리행하는 것과함께 민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일상 생활과 로동과 학습에서 민청원의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며 동시에 매개 민청원들은 자기의 권리를 옳게 행사하는 것이 민청의 조직을 발전 강화시키는 민청원으로서의 고상한 임무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청 생활과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주인다운 태도로써 민청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일상적으로 민청원들에게 민청원의 의무 실행을 요구하고 지도 방조하는 동시에 규약에 의한 정기적 회의의 소집, 비판과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의 발양, 신소와 제의에 대한 적시적 해결, 협의제의 강화 등 방법으로 민청원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며 그것을 침범하는 일체 관료주의적 행동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의 력사 (제一회)

— 근세 및 현대사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원사 력사학 박사 박 시 형

우리 조국의 근세사는 一八六〇년대 외래 자본주의 렬강의 침략 개시 이후 한편 낡은 봉건 체제가 점차로 붕괴되고 침략자들의 식민지화하는 과정으로서 시작된다。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은 一九一〇년 일제의 강점으로서 종결되였다。 외래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 기간과 이에 계속한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의 기간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있어서 가장 곤난이 많았던 시기의 하나로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우리 조선 인민이 외래 침략 자들 및 이들과 야합한 국내 봉건 통치 계급들과 예속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또 이 투쟁을 통하여 조선 인민은 점차 근대적 민족으로서 형성되고 그들 사이에 견결한 민족 의식이 장성하여 가는 시기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력사를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 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 북반부에 튼튼한 민주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통일 독립의 위업을 하루 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방조와 교훈을 줄 것이다。

一、미、불 등 자본주의 렬강의 침략 개시와 이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

一八六〇년대 봉건 조선의 국내 형편과 국제 환경

一九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조선은 락후한 봉건 국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되는 생산 수단인 토지는 대부분 봉건 지주들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었고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들의 많은 부분은 이들의 소작인으로 되여 있었다。 소작 농민들은 지주 및 봉건 국가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받고 있었다。 또 소작 농민이 아닌 농민들도 국가로부터 견딜 수 없는 가혹한 착취를 받고 있었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언제나 빈궁과 기아에 헤매이고 있었다。

소상인들과 수공업자들도 대체로 같은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이들도 역시 봉건 통치 계급들로부터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었다。

이리하여 통치 계급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의하여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고 농업과 수공업 등 모든 부

문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극도로 억제되여 있었다。

정권은 일부 량반들의 수중에 독점되여 있어 중앙 정부의 대관들로부터 지방의 도、군의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들은 오로지 인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데만 광분하였다。 량반、지주、관리들에 의하여 수탈되는 사회적 부는 그들의 사치 생활에 랑비되였을 뿐이요、국가나 민간에 국가 보위를 위한 무력이라던지 또한 당시의 선진적인 사회적 생산 방식인 자본주의적 생산을 준비할 만한 축적도 없었다。 인민들은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빈번히 폭동을 일으키였다。

국내가 이러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을 때에 미국과 구라파 자본주의의 렬강들은 동방의 후진 국가들에 대하여 발광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 조선의 린방인 중국과 (당시 청조의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다) 일본 등이 계속하여 이들 렬강의 침략의 선풍 속에 휩쓸어 들어 갔으며 벌써 조선에도 수차 이 렬강의 상선들이 찾아 와서 인심을 소란시키고 침략의 앞잡이인 천주교 신부들을 들여 보내여 비밀 공작을 진행하는 등 침략의 각종 방법들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후진 국가들을 원료 공급지、상품 시장으로써 이 나라들을 략탈하고 또 직접 령토를 탈취하여 식민지로 화하려는데 있었다。

一八六六년 불란서의 침입과 一八七一년 미국의 침입、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한 이들의 격퇴

一八六六년 七월에 미국의 해적선 샤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올라 와서 란포한 략탈질을 시작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평양에 있던 군대와 인민들은 협력하여 이 해적선을 소각하고 날강도 놈들을 몰살시키였다。 이것이 바로 샤만호 사건이다。

같은 해에 불란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조선으로 밀려와서 침략의 손을 뻗쳐 보려고 하였다。 이해 九월에 군함 七척으로 구성된 불란서 함대는 강화도로 처 들어와 야만적 포격을 감행하면서 조선 정부에 대하여 통상 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들은 조선이 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국을 무력으로써 강점하겠다고 선포까지 하였다。 당시 조선의 무력은 미약하였고 무장은 락후하여 있었지마는 인민들은 영웅적으로 궐기하여 이 강도들을 격파하고 구축하였다。

앞서 샤만호 해적선 사건이 있은 五년후인 一八七一년에 미국인들은 뻔뻔스럽게도 그에 대한 『복쑤』를 하고 또 조선과 강제적으로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군함 五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끌고 와서 강화도 포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조선 인민들은 이 파렴치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이를 분쇄 구축하였다。

미국인과 불란서인들을 구축한 사건은 당시 조선이 봉건 통치 계급의 반동적 역할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으로 대단히 락후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그를 보위함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조선 인민의 영웅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二、一八七六년 강화도 조약을 위시한 렬강과의 불평등 통상 조약들의 체결、외래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 계급을 반대한 一八九四년 농민 전쟁

一八七六년 강화도 조약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미、불 침략자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봉건 통치 계급은 여전히 페쇄된 국가안에서 정권을 잡고 인민들을 억압하

고 착취하는데만 몰두하였다。 이리하여 생산력은 발전할 수 없었으며 선진 과학과 기술이 수입되지 못하였다。 국가는 더욱 더욱 쇠약하여 가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력량은 조선을 강제로 개방시키고 침략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략탈자들은 침략 경쟁의 선두에 나섰다。

일본은 원래 구 미 자본주의 렬강에 비하여 한개 후진 국가로서 초기에 이들의 침략 대상으로 되였지마는 그의 소위 명치 유신 이후 자신도 급속히 자본주의 국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자본주의 발전에서의 후진 국가로서 급속한 팽창을 요구하는만큼 또 조선에 지리적으로 가까운만큼 조선 략탈을 위하여서는 다른 어느 강국보다도 더 발광적이였다。

일본 략탈자들은 一八七六년에 군함 六척을 끌고 와서 조선을 위협하여 가장 불평등적인 통상 조약—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봉건 통치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고 외국 침략자들의 앞에 굴복하였다。 이 조약 실시의 결과로 조선은 일본 부르죠아지들을 위한 상품 판매 시장으로 되였으며 한편 원료 공급지로서 혹독한 착취를 받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농촌은 더욱 몰락하고 독자적 산업 발전의 가능성은 막히고 말았다。

일본 강도들이 조선에 강화도 조약을 강요함에 있어서 미、영、불 등 렬강은 일본을 적극 방조하였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一八八二년에 와서 미국 강도들이 조선을 강압하여 강화도 조약보다도 더 가혹한 략탈적 조약 조、미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에 뒤이어 영、불 및 기타 렬강들도 조、미 조약과 비등한 략탈적 조약들을 조선에 강압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은 점차 외래 침략자들의 반 식민지로 전락되여 가고 있었다。



一八八二년 군대 폭동과 一八八四년 정변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봉건적 착취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봉건 통치 계급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一八八二년 서울에서 군인들과 하층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 군중은 권력을 잡고 있는 민가 一족의 대관들의 주택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매국적 민가 一족 대관들은 청국 군대를 빌어다가 잔혹한 방법으로 폭동을 탄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일본 략탈자들에게 굴복하여 그에게 공사관 보호의 구실하에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권리까지 허여하였다。 통치 계급에 대한 인민의 증오와 반대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 가고 있었다。

모든 반역적 행동을 감행하는 민가 一족 대관들을 반대하여 일부 젊은 관료들의 그루빠가 진출하였다。 이 시

기에 전자를 수구당이라고 하고 후자를 개화당이라고 하였는바 개화당의 수령은 김 옥균이였다。 수구당은 청국 통치 계급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개화당은 이에 반대하여 일본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그의 힘을 빌어 수구당을 타도한 후 우로부터 개혁을 단행하여 조선을 봉건 국가로부터 부르죠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개화당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였지마는 그러나 개화당 활동의 첫날부터 일본 침략자들은 이들을 자기의 침략 목적에 리용하였다。

一八八四년 一〇월에 개화당은 일본인의 힘을 빌어서 수구당 대신들을 모주리 암살하고 하루 밤 사이에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 곳 一八八四년의 정변이였다。(갑신정변이라고도 한다) 정권을 잡은 개화당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적인 정강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정권은 三일간도 계속하지 못하였다。 수구당의 잔당들은 청국 군대의 힘을 빌어 개화당을 전부 몰아내고 다시 반동 정권을 회복하였다。

一八八四년 정변의 실패 이후 一〇년간 정권은 수구당의 수중에 속하여 있었다。 당시 청국의 봉건 지주들과 매판 상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청국 통치자들은 조선 정부내의 수구당을 조종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조선에서 확장하려고 하였다。

자본주의 렬강과의 강제적 통상 조약들이 체결된 이후 특히 일본 상인들의 세력이 조선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었는데 一八八四년 사건 이후 청국 상인들의 세력이 급격히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은 새 경쟁자들을 타도할 기회를 백방으로 노리고 있었다。

一八九四년 농민 전쟁

외국 침략자들과 교통 통상이 개시된 이후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조선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이들에게 예속되여 가고 있었다。 조선의 봉건 통치 계급은 무너져가는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점 외국 침략자들의 주구로 화하여 가면서 한편 인민에 대한 억압 착취를 강화하였다。

국내외의 모든 적들에 대한 전체 인민의 분노는 마침내 一八九四년 농민 전쟁으로서 폭발되였다。 농민 전쟁은 전라도、충청도들의 대부분과 기타 광범한 지역들을 포괄하였다。 농민들은 외래 침략자들과 반동 봉건 통치 계급을 반대하는 뚜렷한 기치하에 무장을 들고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극도로 당황한 봉건 통치 계급은 곧 정부 군대를 파견하여 농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동시에 한편 그의 상투 수단으로써 또 다시 청국 군대를 끌어들여 농민 전쟁을 탄압하려고 하였다。 대량의 청국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은 구실로 하고 일본 략탈자들도 즉시 더 우세한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한꺼번에 조선으로 들어온 청、일 량국 군대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였다。

청일 전쟁이 개시된 후 병력이 적고 무장이 락후한 봉건 청국의 군대는 패배를 계속하였다。 한편 침략자 일본군은 개화당 정부와 협력하여 궐기한 농민군의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농민 전쟁은 국내 반동 통치 계급과 이를 조종한 외국 침략 세력에 의하여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다。

三、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강점、이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의병 투쟁

一八九四년—一八九五년 청일 전쟁과 一九一〇년 일제의 조선 강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자본주의는 급속

히 제국주의에로 발전하면서 한층 더 큰 세력으로써 조선을 략탈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경부 철도 부설권을 위시하여 조선의 많은 토지, 산림, 광산, 어업 등의 리권을 략탈하였다. 략탈적인 대 조선 무역도 더 큰 속도로 발전되였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제국주의 자들도 이리떼와 같이 몰려와서 조선의 리권들을 략탈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 략탈에서 미 제국주의 자들은 발광적인 진출을 하였다. 운산 금광의 채굴권을 위시한 많은 리권들이 미국 강도들에게 략탈되였다.

일제는 조선 침략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만주 침략에도 광분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침략 행위는 당시 동방으로 진출하고 있던 짜리 로씨야와 충돌하게 되였다. 조선과 만주에서 일제와 짜리 로씨야와의 리해가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여 가던 중 그것은 결국 一九○四년 로, 일 간의 전쟁으로 폭발되였다. 이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방조하였다. 그 댓가로서 일본은 미국이 비률빈을 식민지로서 략탈하고 영국이 중국에서의 많은 리권을 략탈하는 것을 적극 지지 방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제국주의 자들은 동방의 후진 국들을 분할 략탈할 것을 상호 보장하였던 것이다.

로, 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이제는 일본 강도들은 미, 영 등 동반자들의 적극 방조하에 조선 침략에서 완전히 독점권을 차지하게 되였다. 일제는 一九○五년 조선 봉건 정부를 강압하여 『을사 조약』을 체결하여 그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조선에서의 사실상의 주권 기관인 일제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의 독립은 거의 명목적인 것으로만 남게 되였다.

一九○七년 일제는 당시 얼마간 남아 있던 조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키고 경제적 략탈을 일층 가혹하게 진행시키며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면서 완전한 강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제 강도들은 조선의 매국적 대관들과 반역자들의 집단 『일진회』의 적극 협력하에 마침내 一九一○년 八월 二二일 한국 황제와 소위 『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자기 식민지로서 완전히 강점하였다.

일제를 반대한 조선 인민의 의병 투쟁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의 전 력사는 조선의 봉건 통치 계급의 일관한 매국적 립장과 일제와 아울러 미, 영 등 일련의 제국주의 자들의 조선에 대한 파렴치한 강도적 략탈 행정을 뵈여 준다. 동시에 이 력사는 조선 인민들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는 것을 뵈여 준다.

특히 一九세기 중 말엽 이후, 국내의 경제적 련계가 점차로 확대되고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면서 조선 인민은 자기들이 단일한 민족으로써 급속히 발전 공고화되고 있다는 자각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되였다. 광범한 인민들 사이에 조국을 옹호하고 국가적 독립을 보전하려는 강한 의식이 장성하였다. 인민들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적지 않게 새 교육 기관들과 숱한 가관들이 발생하였고 조선어와 조선 력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또 새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리하여 인민들은 더욱 더 애국적으로 교양되고,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용감히 진출하게 되였다.

특히 一九○七년 일제에 의한 조선 군대의 강제 해산을 계기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의병 운동이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각도에서 궐기한 의병들은 이해 一二월에 서울에 집중하여 일거에 『통감부』와 일제 군대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이 운동이 실패된 이후에는

의병들은 각지에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의병들은 애국적 인민들의 적극 지지하에 무장을 갖추



고 일제 관청과 군대, 철도, 련락로 등을 공격하여 이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의병들은 인민의 원쑤 매국 역도들인 일진회원들을 다수 처단하였다.

일제의 통계에만 의하더라도 一九○七년 八월부터 시작하여 一九一○년 八월 일제 강점에 이르는 기간에 의병들의 전투 회수는 二、七九五회에 연 一四一、三九三명의 의병들이 참가하였다. 의병 투쟁의 실지 정형은 물론 이보다 훨씬 치렬하고 광범한 것이였다. 그리고 의병 투쟁은 일제의 강점으로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국내 국외의 많은 지역들에서 계속 견결히 진행되였다.

의병 투쟁의 특히 현저한 실례는 함경도 의병 대장 홍범도 부대의 투쟁이였다. 이 부대는 一九○七년 겨울에 북청 후치령에서 일제 군대 一개 중대를 섬멸한 것을 시초로 하여 삼수 갑산 등 국경 지대의 광범한 지역에서 오랫 동안 계속 과감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도 이들은 간도와 로령 연해주 등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다.

의병 투쟁은 강포한 일제 군대에 비하여 수량상 현저하게 미약하고 무장도 락후하여 있었으며 또 조직 훈련상으로도 미약하였을 뿐 아니라 또 자기들의 투쟁에 있어서의 뚜렷한 방향과 적절한 정치적 구호들을 내세우지 못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의병 투쟁은 자기들의 목적인 일제의 구축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였다. 그것은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전통을 여실히 뵈여 주었으며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도 꾸준히 계속한 조선 인민의 영웅적 민족 해방 투쟁의 선구로 되였다.

동무―이는 자랑스러운 말이다

쏘련 영웅 므 • 보도빠노브

쏘베트 인민들이 좋아하는 노래에서는 『동무―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말은 모든 아름다운 말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심오한 의미로 가득찬 동무라는 이 훌륭한 말은 우리들 매개 사람에게 명백해졌고 또 귀중하게 되였다。우리들은 함께 배우며 일하며 휴식하는 사람들을 동무라고 부른다。우리 쏘베트 사람들은 모두가 동무들이며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공산주의적 미래를 건설한다。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인―수백만의 우리의 외국 벗들에게도 우리들은 역시 동무라는 바로 그 아름다운 말로써 대한다。

대학생으로부터 교수에 이르기 까지、장군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 까지、공장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 까지、꼴호즈원으로부터 상에 이르기 까지―누구를 물론하고 동무란 말을 따뜻하고 성실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우리들은 이에 습관되였으므로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다른 부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무라는 이 말이 우리 나라에서 거의 금지당하다 싶이 된 때가 있었던 것이다。왜냐 하면 짜리 전제 제도와의 투쟁을 위하여 단합된 로동자―혁명가들이 서로 동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그들은 동지적 결합과 우의에서 어렵고도 위험한 투쟁을 위한 힘을 얻었다。

알렉쎄이 막씨모위츠 고리끼는 그가『동무!』라고 이름 부친 초시기의 어떤 자기 이야기에서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의 동지애의 위대한 힘을 훌륭하게 뵈여 주었다。

한 도시에 사람들이 살았다。그러나 그 어느 한때『쓸쓸하고 타락적인 원한에 찬 그들의 생활에、많은 모욕을 당함으로써 마비된 심장에、강한 자들의 교묘한 가지 각색의 거짓으로 어지러워진 의식 속에―천대에 싸인 비애로 가득찬 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활에 평범하고 밝은 말、즉 동무！란 말이 던져졌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말이 아니였다。그들은 이를 들었고 또 자신도 발언하였다。그 시기까지는 이말이 잊어 버릴 수는 있으나 좀체로 사라지지 않는 즉 모두가 알며 평범한 말과 같이 무미하고도 무던 소리로서 울리였다。

그러나 오늘 명백하고도 확고한 이 말은 다른 소리로 울렸다。이 말 속에는 다른 정신이 흘렀고 또 그 속에는 금강석과 같이 굳고 번쩍이며 또 다각적인 어떤 것이 있

었다……

이리하여 이 말의 밝은 정신을 보다 깊이 껴들어 볼수록 그들에게는 이 말이 더욱 밝고 더욱 훌륭하며 또 더욱 맑게 생각되였다。

―동무！―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자유에로 궐기시키며、그들을 새로운 뉴대와 호상간의 존경 및 사람의 자유에 대한 존경의 굳은 뉴대로서 또는 사람의 자유를 위한 뉴대로서 결합하는데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였다。』

…내가 약 八세가량 되던 몇 一〇년전에 처음 우리들이 부여한 그런 의미에서『동무』라는 이 말을 들었었다。우리 가족은 그때 사면이 대 밀림으로 둘려싸인 찌비리의 따이쉐뜨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살았다。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적이 없고 산딸기가 많은 지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더 없는 쾌락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시기부터 우리들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주위 사람들은 모두가『류형 범인』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였다。즉 류형지로 호송된『수감자』들의 그루빠는 위병을 소멸해 버리고 밀림 속에 숨은 것이였다。그러니『탈주자』들이 어데 있는지는 모르나 도시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았다。

한때 나는 나보다 몇살 더 나는 두 어린아이들과 함께 밀림 속으로 패멀리 들어 갔었다。맑은 대 낮이였으나 컴컴한 삼림의 벽지에는 쓸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엄숙성에 무의식적으로 사로 잡히여 우리들도 역시 침묵을 지키였다。심지어는 어리둥절 하였으나 누구도 물론 그것을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막 속에서 우리들은 신음소리 비슷한 똑똑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바로 이 소리는 대단히 약하게 들리였으나 우리들은 어떻게 놀랐던지 달아날 수조차 없었다。

신음 소리인지 또는 한숨 짓는 소리 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반복되였다。이때 우리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소년이 우거진 관목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 갔다。나도 나머지 소년과 함께 그의 뒤를 따랐다。그 순간 우리들은 관목 밑에서 족쇄를 채운 죄수가 움직이지 않고 누어 있는 것을 보았다。그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수많은 벌레들이 그의 큼직한 이마에 드러 붙어 있었다。그는 죽은 사람 같이 보이였다。

―아저씨、아저씨、―나의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살았서요、죽었서요?

―물을……―이렇게 그는 애처롭게 요청하였다。

차차 더 무서워졌다。우리들은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였다。그가 어떤 사람인지간에 그의 운명은 우리들의 수중에 있었다。우리들 만으로도 그에게 방조를 줄 수가 있었다。

나는 물을 가질러 달아 갔다。내가 삼림 속의 늪에서 더럽고 흐린 물을 바께쯔에 가지고 돌아 왔을 때에는 이미『탈주자』는 나무가지가 너저분 하고 이끼가 낀 자리에서 포근한 자리로 옮겨져 있었다。여기에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부상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루바슈까를 찢어서 그의 어깨를 감아 주었다。

四일간 이나 우리들은 밀림에서 발견한 사람의 곁을 거

의 떠나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었으며 그에게 버섯국을 끓여 주었고 집에서 빵을 가져다 주었다。 『탈주자』의 이름은 뾰뜨르 알렉쎄예위츠라고 불렀었다。 그는 우리와 많이 담화하였다。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여 그가 무엇 때문에 체포되였는가를 물었을 때 뾰뜨르 알렉쎄예위츠는 미소를 띠우면서 누구도 때리지 않았으며 도적질 한적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다만 우리의 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자신과 같은 그런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생활을 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짜리 정부는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시간은 흘러 뾰뜨르 알렉쎄예위츠가 모다불 곁에서 우리와 함께 진행한 그 신기한 담화들은 기억에서 사라졌으나 나는 마치도 지금 밀림 속의 초막과 꼼작 달삭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던 나의 어린 친구들의 얼굴들을 눈앞에 보는 것 같다。 우리들이 구원해 준 그 사람의 말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우리들은 운명이 훌륭한 사람과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갔다는 것을 느끼였다。

뾰뜨르 알렉쎄예위츠는 빨리 완치되였었다。 우리들이 그를 발견할 당시의 중상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그런 정도의 부상으로 바께 남지 않았다。 내 친구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따이쉐뜨에서 줄칼을 얻어다가 족쇄를 끊어 버리는데 방조하였다。 다음에는 온갖 진상과 허위를 다하여 뾰뜨르 알렉쎄예위츠를 위한 다소간의 의복을 획득하였다。

—내가 끄라스노다르쓰크까지만 다다르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는 려행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살아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탈주자』는 말하는 것이였다。

리별할 시간이 되였다。 큰 소나무와 잣나무 사이에서 우리들은 다 꺼진 모다불을 둘러싸고 일어섰다。 밤이 되였다。 이리하여 밀림은 전면적으로 검은 벽과 같이 보이였다。 뾰뜨르 알렉쎄예위츠는 우리의 어깨를 포옹하여 자기에게로 꽉 끼였다。

—나는 너희들을 어느 때나 잊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나의 어린애들아! 너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너희들은 진정한 동무들이다…

동무들! 나는 물론 그때에는 이 훌륭한 말이 가지는 전체 의미를 리해하지 못했다。 그러나마 나를 이렇게 부를 때 나는 이 말이 대단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적지 않은 세월이 경과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다시 친절한 부름인 동무!라는 말을 듣는데 이르렀다。 실로 나의 유년 시대와 소년 시대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즉 짜리 로씨야에는 다른 모든 자본주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승냥이다』라는 야수적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하여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낡은 사회는 네가 다른 사람을 략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략탈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하여 일하게 되며 네가 노예 소유자가 아닐 때엔 네가 노예로 되는 그러한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혁명이 바로 일어나기 전 마지막 시기에 나는 완전히 꿀라크—기생충들의 지배하에 있는 땀보브신이란 벽촌에서 살았다。 거의 전체 농민들이 문맹자들이였고 또 근로

자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 벌어진 도시로부터의 보도는 우리에게 아주 늦게、 그것도 완전히 외곡되게 전달되였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났고 로동자와 농민의 정권인—새 정부가 수립되였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까지 들려 왔다。

一九一八년 농촌 청년인 나는 자발적으로 붉은 군대에 입대하여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을 수호하는 데 나섰다。 내가 군사부로 갔을 때 거기에서는 나를 동무라고 불렀다。 나를 파견한 『일리야 무로베츠』 중비행선 대대에서도 지휘관은 나를 『전사 동무』라고 불렀다。 그후 나는 가는 곳 마다에서 나의 주위에는 모든 면에서 방조 하기에 준비된 친구들인 동무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였다。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나에게도 자동차 운전수로 되며 다음엔 비행기 조종수로、 이리하여 마침내 비행사로 될수 있겠끔 방조하였다……

신임、 존경、 우의 그리고 방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성의 표현으로 되고 있는 『동무』라는 귀중한 말은 一九一七년 이후 위대한 우리 나라에 승리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 말이 이전 짜리 관리배들이 『타민족』이라고 멸시적으로 부르던 무권리하고 억압 당하는 인민들이 살아온 먼 변강에 까지 인차 퍼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말은 차차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 갔다。 이리하여 그들이 이 말을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중간 생략)

…선량한 사람들의 우의와 동지애에 대한 옛날의 환상은 우리 나라에서 훌륭한 현실로 되였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승냥이 이다』라는 낡은 생활 법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세기를 다 살았다。 이를 교대하여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동무이다』라는 다른 불패의 법칙이 나왔다。

우리 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동지애의 아름다운 감정에 잘 익숙되여 있다。 그것은 이미 유년 시대에 그들에게 생기여 소년 시대에 동반하며 청년 시대에는 그들이 살며 로동하는데 방조한다。 이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목적에로 지향하는 수백만 인민들의 위대한 우의의 모범을 뵈여 주고 있는 우리 국가의 본질、 그 자체에 귀착된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은 쏘베트 정권이 수립된 후 곧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법칙이 군중의 습관과 일상 생활에 침투되도록 일할 것이다。』 오늘 이 법칙은 수백만 인민들의 생활에 광범히 침투된 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개인을 위하여—전투와 로동 및 학습에서、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를 물론하고 항상 어데서나 쏘베트 사람들은 이렇게 살며 행동하고 있다。 동지애의 위대한 감정은 알렉싼드로브 마뜨로쏘브가 자기의 불멸의 공훈을 세우는데 방조하였다。 즉 그는 자기 부대 전사들로 하여금 공격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적 화점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던 것이다。

이 감정은 또한 어깨에 파편을 맞고도 부상 당한 동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가강을 헤염쳐 건너간 전사 레오니드 메쉬끄브에게도 작용하였다。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든지 우리 나라에서와 같은 그런 결합、 동지애、 호상 구출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런데 우리들 속에서는 때때로 불행에 빠진 동무들을 내버리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를 격분시킨 한 사건에 대하여 나는 벌써 『모쓰크바 공청원』 지상에서 이야기 하였고 다음 국내 많은 공청 신문들은 『밀림에서의 세 동무』라는 나의 론문을 전재하였다。

이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세세히 서술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많은 독자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一九五三년 九월에 끄라스노야르쓰크 변강 에웬끼쓰크 민족 관구내 웨르흐니 뚜루한 강 부근에서 일어났었다。 쵸르노위쯔크 종합 대학 학생 쎌리웨스뜨르 막씨모브와 촬영 기사 게나지 끄루글로브는 불행에 빠진 동무인 울라지미르 뽈리까르뽀브를 내 버리였다。 결과 뽈리까르뽀브는 겨우 살아났고 두 다리를 짤리우면서 힘들게 구원되였다。 二〇세의 그는 불구자로 되였다…

젊은 사람들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회상시켰다。 뽈리까르뽀브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나타났다。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국내 각 곳으로부터 그에게 편지를 썼으며 선물을 보냈고 또는 손님으로 초청했다。 모쓰크바 정형(整形) 외과 대학에서는 그에게 고무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는 그것을 가지고 걸음을 배웠다。 사회 보장성은 그에게 제一급 사회 보장금을 급여하였고 세바퀴 모터찌클을 내 주었다。 뽈리까르뽀브는 무선 전신수 강습소에서 배우게 되였다。

그런데 끄루글로브와 막씨모브는 어떻게 되였던가? 리기주의자、 사리 탐욕자 및 비겁 분자는 항상 멸시를 받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격노에찬 뜨거운 충고의 말들이 막씨모브와 끄루글로브가 살고 있는 곳에 몰려 온 것이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적지 않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그러나 물론 군무 생활은 계속되였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기의 죄를 회복하려고 진실로 원하는 사람을 배격하지 않는 그것으로써 강력하다。 집단은 항상 이러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막씨모브와 끄루글로브에 대하여도 바로 이러하였다。 동무들의 엄격한 충고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과오를 옳게 판단하는데 방조하였다。 그들은 둘이 다 나에게 와서 밀림에서의 사건을 고통스럽게 참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의 죄를 심각히 자각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진실로 마음을 툭 털어 놓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쎌리웨쓰뜨르 막씨모브는 종합 대학을 끝마치게 되였다。 지금 그는 지질 학자로서 일하고 있다。 게나지 끄루글로브는 쏘베트 군대에 소환되였다。 자기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一八세이다。 나의 전 생애는 앞에 있다。 나의 량심에 수치스러운 오유가 있었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다… 내가 얻은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인젠 나에게 어떤 위험이 위협한다 해도 어느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며 비겁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조국이 나에게 준 무기를 영예롭게 잡을 것을 맹세한다…』

나는 이 젊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믿는다。 만일 내가 지금 막씨모브 동무와 함께 가장 어려운 탐험 사업에 나가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 내가 끄루글로브 동무와 한 대렬에서 궐기할 것인가를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스메나』지 一九五五년 四호에서

술어해설

계급 투쟁

사람들이 생산 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분렬된 계급 사회에서는 지배—착취 계급과 피지배—피착취 계급 간、생산 관계와 생산력 간에는 처음부터 불상용적 모순이 내포되여 있다。 이 모순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점차 그것이 발전하고 격화되여 표면에 나타나게 될 때 적대적 계급들은 투쟁을 전개한다。 착취에 시달리는 노예들과 농노들은 태공과 무수한 폭동으로써 노예주와 농노주들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착취자—지배자들은 또한 고문、학살、류형 등으로써 대항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은 처음에는 경제적 투쟁、그리고 자연 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정치적 성격을 띤 조직적 투쟁에로 넘어갔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관이며 그들의 계급 투쟁、혁명、해방에 관한 리론인 맑스주의가 발생한 이후 매개 나라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로서의 맑스주의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는 더욱 명확한 목적 의식성과 조직성이 부여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는 경제 투쟁、정치 투쟁、리론(사상) 투쟁의 제 형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투쟁이며 정치 투쟁에는 파업、시위、폭동 등 방법이 있는바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폭동이다。 계급 투쟁의 판가리 또는 최고 형식은 혁명이다。

계급 투쟁、혁명의 목적은 낡은 착취 계급의 주권을 전복하고 그들이 담당 혹은 수호했던 낡은 생산 관계들을 청산하고 생산력의 성격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 관계를 창설하는 데、또는 새로운 생산 관계의 지배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전의 모든 계급들의 투쟁과 혁명은 하나의 착취자적 생산 관계를 다른 착취자적 생산 관계로 교체하는 데 불과하였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혁명의 목적은 착취자적 생산 관계를 영원히 청산하고 착취 없는 무계급 사회를 창건하는 데 있다。 부르죠아적 생산 관계는 봉건 사회의 태내에서 형성되고 성숙되는 까닭에 부르죠아 혁명은 부르죠아지의 주권 전취로써 기본적으로 끝나지마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 전취로부터 낡은 생산 관계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의 건설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되는바 이 시기 즉 과도기에 있어서 전복된 착취자들이 발악적으로 반항하기 때문에 계급 투쟁은 약화될 대신에 더욱 첨예화한다。

독 재

계급 사회에서는 어데서나 지배 계급의 경제적 착취 제도—착취자적 생산 관계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지배 계급은 국가를 무기로 삼아 다시 말하면 국가 주권을 행사하여 피지배 계급들을 착취하며 억압한다。 근로 대중에 대한 국가 주권의 행사、이것은 언제나 지배 계급이 단독으로 한다。 이것이 곧 독재 즉 계급의 독재이다。 계급 사회에서의 지배 계급의 독재의 기능은 폭력에 의거하여 피착취 계급을 억압하며 그 반항을 진압하며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거나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다。

노예 국가는 노예주 계급의 독재 국가이며 봉건 국가는 봉건 귀족 계급의 독재 국가이며 부르죠아 국가는 부르죠아지의 독재 국가이다。 부르죠아지는 자기들의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떠들지마는 부르죠아 민주주의란 실지에는 부르죠아 계급 내부에서만의 민주주

의일 뿐이고 인민 대중에 대해서는 부르죠아지의 완전한 독재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복된 착취 계급들을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 한 계급의 독재가 실시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 한 계급 내부에서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해방된 전체 인민을 위한 전체 인민들 사이에서의 민주주의이다。 때문에 그것은 가장 철저한 최고도의 민주주의이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발생한 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대체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재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한개 특수 형태이지마는 매개 나라들의 특수한 력사적 조건에 따라서는 인민 민주주의 발전의 일정한 시기까지는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로동 계급과 농민의 련합 독재로 된다。 우리 인민 정권도 인민의 원쑤들ㅡ지주、예속 자본가、친일 친미파、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인민 민주주의의 독재 하에서의 인민적 민주주의 이것도 역시 전복된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인민 대중을 위한 인민 대중 사이의 민주주의인 만큼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이것은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외국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혁명과 국내의 봉건적 생산 관계、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이 결합된 혁명이다。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이러한 두가지 혁명의 결합으로써 시작된 전형적인 례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반제 민족 해방적 과업 실천이 계속되는 한편 반 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이 완수되면 계속하여 사회주의적 혁명의 과업 즉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넘어간다。

사회주의적 집단화

분산적인 개인 소농 경리와 개인 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유일한 방도는 그 것들을 협동 조합에 망라시킴으로써 집단화하는 것이다。 협동 조합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에 기초하는 사회주의적 경리의 한 형태이다。

물론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와 같이 생산 수단(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협동 조합적、집단적 경리에로 넘어 갈 수도 있다。

집단화 또는 사회주의적 집단화라고 할 때 그것은 보통 농업의 협동화、집단화를 두고 말하지마는 거기에는 수공업의 협동화、집단화도 역시 포함된다。

정치—도덕적 통일

여기에서 『도덕적』 이라는 말은 실지에는 사상、도덕 등 모든 정신적 령역을 포함한 『정신적』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계급 사회에서는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간의 정치적、정신적 통일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 계급들인 로동 계급과 농민들、근로 인테리들、도시 소 부르죠아지들 간에도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정치적、정신적 통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계급 사회에서도 피 착취、또는 근로자들이라는 계급적 립장의 공통성으로부터 지주와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로동 계급과 혁명적 농민들과 혁명적 인테리들 사이에는 일정한 정치ㅡ사상적 통일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또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

취가 완전히 또는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적 또는 전 인민적 소유가 설정되여 있는만큼 로동 계급과 농민、근로 인테리들의 생활 토대、물질적 리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또 거기서 전체 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설정된 생산 관계ㅡ사회 제도를 수호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정치적 리해 관계에 있어서도 전체 근로자들、인민들은 또한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상적、도덕적으로도 일치하게 된다。 이리하여 착취 없는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의 형성 발전에 따라 전체 인민의 정치ㅡ정신적 통일이 형성된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는 국영 경리가 지배적이고 농민은 토지의 주인으로、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있는만큼 또 조국의 통일 독립이라는 공동의 전 인민적 과업이 서 있는만큼 인민의 정치ㅡ사상 통일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발전하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

단순히 리기주의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모든 일에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으뜸으로 삼는 사상을 말한다。 이는 원래 부르죠아들의 본성이며 소부르죠아들ㅡ소 소유자들、소 생산자들에게도 농후하게 있는 사상이다。 오늘날 이것은 국가의 리익、공동의 리익、남의 리익을 돌봄이 없이 자기 욕심만 채리며 자기 개인의 리익만 취하려는데서 표현된다。 자기 본위주의도 개인 리기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낡은 의식 습성의 잔재는 공동의 리익、국가의 리익에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킴으로써 매개인의 복리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는 전연 량립할 수 없다。

전 인민적 소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립되는 사회적 소유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전 인민적 소유이고、다른 하나는 협동 조합과 같은 집단에 망라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 조합적 소유이다。

쏘련에서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것은 곧 국가인 만큼 전 인민적 소유는 곧 국가적 소유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 산업 국유화의 결과 국가 소유로 된 산업 기업소들、철도、기타 운수 수단、체신、그리고 산림、하해、지하 자원 등 자연 부원 및 국영 상업 기관들이 다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한다。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에 있어서나 협동 조합적 소유에 있어서나 생산 관계는 다 같이 호상 협조적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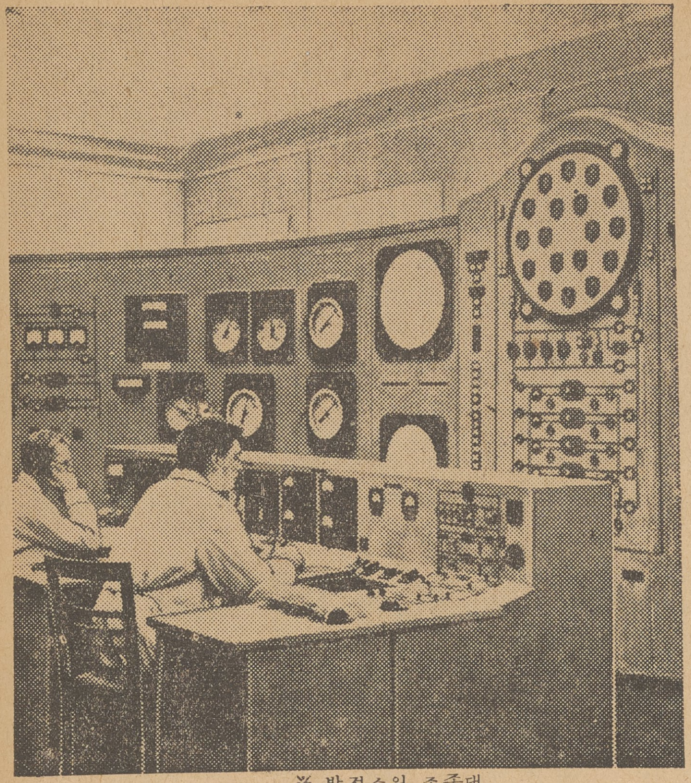
주관주의

객관적 현실 또는 대중의 객관적 판단과 요구에 의거하지 않으며 그것을 고려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생각、판단만이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주관적 견해、혹은 판단에만 근거하여 행동하며 사업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주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며 민주주의와 집체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관적 판단대로만 행동하다가 결국은 불가피적으로 과오에 빠지고 사업에 파탄을 가져 오게 한다。

원자력은 인간에게 복무한다

—쏘련의 첫 원자력 발전소 방문기—

기사 그·오쓰뜨로우모브



※ 발전소의 조종대

자동차가 정밀한 건축 양식의 三층 건물 앞에 와 섰다. 건물의 외모에는 아무러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매개 쏘련 사람들은 처음으로 『쁘라우다』 신문에 게재된 이 건물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았다. 그들은 쏘련 과학의 위대한 승리, 자기 조국의 위력, 그의 훌륭한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넓게 열려진 이 건물 입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역시 이러한 감정과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매개 사람들의 머리 속에 떠오른다. 입구의 한쪽 옆에는 단순하나 대단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말—"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원자력 발전소" 라고 쓴 간판이 걸려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을 전류로 변환시키는 발전소 지배인의 그리 크지 않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발전소의 운영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가 걸려 있다. 그 우에 굵직히 씌여진 세글자—『아·에·에쓰』(원자력 발전소)는 공상이 현실로 되였으며 우리에게 습관된 그·에·에쓰(수력 발전소)、떼·에·쓰(화력 발전소)、그·르·에·에쓰(국영 지방 발전소)의 유력한 동력 계통에 새로운 동력이 보충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지시봉을 가진 기사는 발전소의 총체적 구조에 대하여 말하여 준다. 다음에 그는 발전소의 『심장』의 구조와 작용 즉 원자 가마에 대하여 제도(製圖)로써 우리에게 설명하여 준다.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원자 가마가 설치되여 있는 중앙실로 들어 간다. 지배인실과 중앙실을 련결하는 복도는 다른 복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복도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끝나고 있다. 이 문은 참호와 같이 좁

고 구부려진 통로에로 인도 한다. 우리 안내자는 이 통로가 중앙실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二메터의 콩크리트벽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좌로 돌고 다음에는 우로 돌아서 우리는 크고 높은 방안에 걸려 있는 로대(露台)로 나온다. 이방은 중앙실이다. 여기는 거의 비여 있다. 로대의 마즌편 벽 가까이에 있는 바닥에는 선형(扇形)주철로 된 큰 원판이 박혀 있다.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원판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원자 가마의 상부이다—라고 우리를 안내하는 기사는 설명한다.

원판 아래에는 또 몇층의 주철로서 우로부터 폐쇄되여 있고 측면으로부터 물과 콩크리트로써 포위되여 있는 원자가마가 놓여 있다.

—원자 가마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여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동작봉들을 보고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 하면서 안내자는 한쪽 벽에 걸려 있는 관을 가리켰다. 흑연 불록크들로 된 원통 내에 적재되여 있는 一二八개의 이러한 동작봉들이 원자 가마의 기본으로 된다.

이 전체 동작봉들이 대략 반년의 우라늄 연료의 여유를 구성한다고 말 하면서 기사는 손으로 벽에 걸려 있는 동작봉들을 가리켰다.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러한 보호도 없다. 여기에는 콩크리트도 없으며 물도 주철도 없다. 이 동작봉들에서 우라늄은 마치 『잠들고 있는』것과 같다. 이따금씩 여기에 있는 우라늄의 어떠한 원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분렬되군 한다.

그러나 만약 이 동작봉들이 원자 가마에 흑연 적조물내에 함께 집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때 분렬시에 리탈되는 중성자들은 동작봉의 범위를 떠나 다른 동작봉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우라늄의 원자들은 이 중성자들을 흡수하여 다시금 중성자를 산생하면서 분렬된다. 마지막 중성자들은 또 우라늄의 다른 원자들을 분렬되게 한다. 만약 첫 분렬시에 세개의 중성자가 리탈되였고 전체 이 중성자들이 우라늄의 원자들에 명중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당신들이 리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분렬시에는 九개의 중성자들이 발생하며 이 현상이 계속된다. 이 과정을 련쇄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동력을 주는가?

매 분렬시에 발생하는 두 쪼각의 원자들은 큰 속도로써 여러 방향으로 날아헤쳐지며 그 도상에서 린접한 원자들에 명중하여 그것을 가열시킨다.

실지에 있어서 분렬할 때에 형성된 중성자들이 반드시 새 원자들을 분렬시킬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지연시켜야 한다. 이 역할은 동작봉들을 둘러싸고 있는 흑연이 놀게 된다. 그 외에 처음에 설명한 바와 같이 련쇄 반응이 진행된다면 분렬되는 원자의 수는 급격하게 장성되여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자들에 의하여 흡수된 중성자들이 모두 다 원자들을 분렬시키지는 못한다. 문제는 이 동작봉내에 있는 우라늄의 원자들이 전체 동일하지 않은 데 있다. 그의 대부분은 원자량 二三八을 가지고 있는 우라늄이며 작은 부분은 우라늄 二三五가 차지한다. 우라늄 二三五는 중성자들의 작용하에 가장 잘 분렬된다.

자연 속에 있는 우라늄에는 二三五의 중량을 가진 원자가 다만 〇·七% 포함되여 있다. 우리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二三五의 중량을 가진 원자들의 포함량을 五%까지 제고시킨 풍부한 우라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리해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련쇄 반응을 조종하여야 한다. 즉 원자 가마를 정지시키며 그것을 기동시켜 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희망대로 원자들의 분렬되는 수를 증가 또는 감소되게끔 분렬시에 형성되는 중성자들에 영향을 주는 데

있다。
유감스럽게도 전체 중성자들이 우리의 의사에 복종되지 않는다。 자신이 관단하여 보십시요。 중성자들의 리탈되는 순간으로부터 그것들이 흡수되는데 까지 다만 천분지 일초만 걸린다。 보통 기술 방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조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연 현상이 도움을 준다。 우라늄의 쪼각들、즉 새롭고 더 가벼운 원자들도 역시 중성자들을 발생하며 이 중성자들은 그의 발생 과정을 제외한 모든 다른면에서 우라늄의 분렬시에 발생하는 중성자들과 같다。 그것들은 분렬이 시작되자 몇초동안에 쪼각들로부터 리탈된다。 바로 이 『지연』된 중성자들에 의하여 안전하게 원자 가마를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원자 가마의 동작을 조종하는가?

례를 들어서 탄화 붕소와 같이 입술처럼 자체내에 중성자들을 세게 『빨아들이는』물체들이 있다。 만약 이 자료로 만든 동작봉을 원자 가마내에 넣으면 동작봉들 간에 있는 중성자들은 마치 『건조』되는 것과 같이 되여 이 장소에서는 련쇄 반응이 곧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동작봉들을 우리는 반응 과정을 조종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두 기계를 보라―하면서 기사는 작은 발동 권양기를 가리켰다。 그 밧줄에는 탄화 붕소봉이 걸려 있다。 이것은 소위 원자 가마의 『보호』봉이다。 어떠한 고장이 일어나기만 하면、 례를 들어서 원자 가마내에서 순환하는 물의 압력이 기준 이상으로 제고되였다면 보호봉은 자동적으로 중앙 구역에 떨어지며 원자 가마는 정지된다。

밑바닥에 있는 특수한 실내에는 원자 가마의 유효 구역내에 배치된 여러 동작봉들을 이동시키는 권양기의 전력 기동 장치들이 놓여 있다。 그것들의 일부는 우리가 부여하려는 수준에까지 원자 가마의 공률을 자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유효 구역의 공간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중성자의 흐름은 보이지 않으며 감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온화 감시실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계들이 그 흐름과 그의 강도를 일상적으로 감시한다。 그것들이 바로 자동 장치들을 기동시킨다。

마지막으로 원자 가마내에는 다른 사명을 가진 봉 들이 있다。 개별적인 한 우라늄 동작 봉 내에서는 련쇄 반응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회상하여 보라 형성된 중성자들이 제가끔 비행하지 않고 우라늄의 원자들에 명중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의 동작봉들이 필요하다。 이 우라늄의 수량을 『한계량』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원자 가마에 대하여서는 그 내부에서 련쇄 반응이 시작되기 위하여 六〇개의 우라늄 동작봉들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一二八개의 동작봉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六八개의 동작봉들의 『여유』가 필요한가? 이것을 리해하기 위하여 다시금 물리적 현상을 고찰하여 보자。 새로운 원자 가마를 기동시켰다고 생각하자、 우라늄 一二三五의 수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그것은 『타버린다』그 대신 그것의 분렬의 산생물인 바륨、크세논 등 각이한 물체의 원자들은 더 많이 축적되게 된다。 이것은 우라늄 연료를 태울 때에 받는 『재』와 같다。 화부가 탄을 피우는데 재가 방해되는 것과 같이 원자의 재도 우리에게 해독을 준다。 바륨、크세논、사마륨 및 다른 원자들은 중성자들에 대하여 무관계하지 않다。 그것들은 중성자들을 흡수하며 따라서 우라늄 一二三五의 원자들을 분렬시키는 유익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방해한다。 우리의 『재』는 련쇄 반응 과정을 조종하는 동작봉과 같이 작용한다。

그런데 기관차의 화부는 재를 쉽게 제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매우 곤난하다。 여기의 『재』는 전체 우라늄 덩어리에 미소 물체로 분산되여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한 정도까지 그것들이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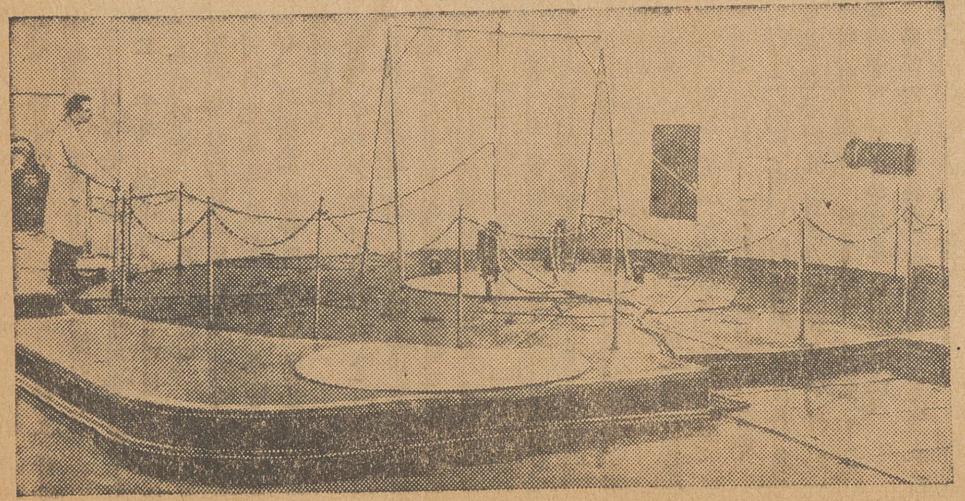
재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원자 가마를 장기간 동작시키기 위한 연료를 확보하고 쪼각들의 해독적인 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원자 가마내의 우라늄 동작봉의 수를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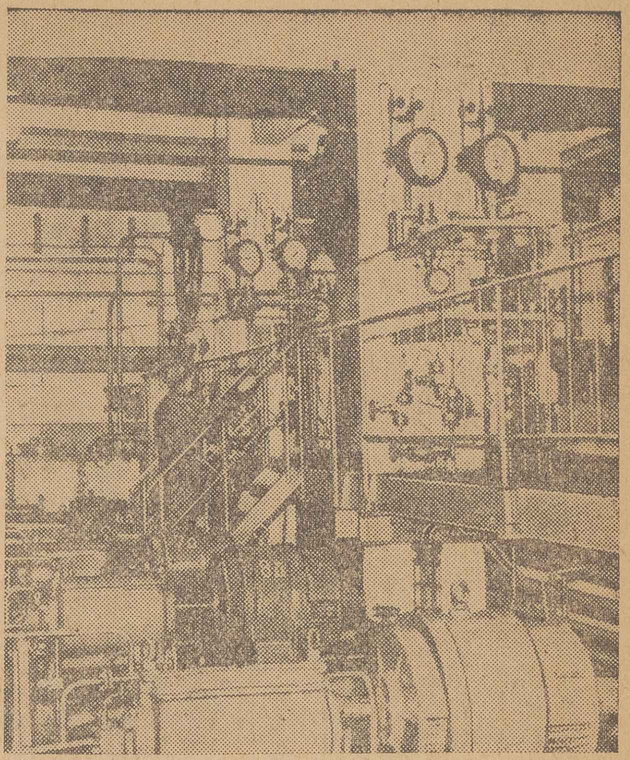
『재』가 아직 축적되지 못한 동작 초기에 있어서 이 우라늄의 여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원자 가마내에 탄화 붕소로 만든 소위 보상봉을 도입한다。 연료가 타짐에 따라 이 보상봉들은 원자 가마의 유효 구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빠져 나온다。

전체 보상봉들이 빠져 나왔다면 이것은 원자 가마가 련쇄 반응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버린 동작봉들을 『신선한』동작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동작봉들의 상태에 따라서 연료가 얼마나 소모되였으며 원자 가마내에 『재』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아직 새로운 우라늄을 추가하지 않고 얼마나 더 오래 동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어떻게 『연료를 더 적재』하는가? 주철제 원판의 중앙 뚜껑은 뗄 수 있으며 우라늄의 동작봉들의 상부―상단부는 열린다。 로동자는 빼내야 할 동작봉의 상단부에 기중기의 갈구리를 걸고 나간다。 원자 가마에서 빼낸 동작봉 결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 비록 련쇄 반응이 끝났지만 분렬의 쪼각과 동작봉의 강철제 외면은 인체에 해독을 주는 세찬 감마선 류를 방사한다。 때문에 전체 나머지 작업들은 기계들이 수행하며 그것은 저 실내에 있는 사람이 조종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사는 로대 우에 만든 돌출부를 가리켰다。 벽에 깊이 박힌 잠수용 방수복과 류사한 그것은 三개의 초자제의 큰 눈―조명구(照明口)로써 중앙 실내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실내에 들어가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연료용』동작봉의 방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명구의 반 메터되는 두터운 유리를 통하여 크나큰 중앙실은 二배나 더 적게 중앙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모형이 있는 것과 같이 눈앞에 뵈였다。 전 중앙실은 『존 바닥』우에 있는 것과 같이 뵈였다。 이것은 초자의 특수한 형태의 결과라고 안내자는 설명했다。

조명구 아래에 두개의 렬을 지어 조종대들이 나와 있다。 그것들을 움직이면서 로동자는 다리(橋)형 기중기를 조종한다。 원자 가마로부터 빼 낸 동작봉들은 많은 수의 작은 뚜껑들이 배치되여 있는 중앙실의 부분으로 이동된다。 그 한 뚜껑내에 『뜨거운』동작봉을 넣는다。 이 동작봉은 바닥 아래에 있는 깊은 저수지에 떨어지며 여기서 一년동안 『랭각』하게 되며 그것에 의하여 방사성은 기본적으로 약화된다。 한 동작


※원자 가마의 상부



※ 뽐프실

봉의『연료』의 방사능은 약 一만큐리와 같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가를 상상하기 위하여 一큐리의 방사능을 가진 물체의 곁에 一메터의 거리에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일주야간에 몇분동안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설명한바에 의하면 몇 십개의 동작봉들은 두달반내지 삼개월간에 한번씩 교체된다. 원자 가마의 빈구멍으로 동일한 기중기는 벽에 걸려 있는 동작봉들 중에서 『신선한』동작봉을 잡아 넣는다.

―당신들은 소모된 동작봉들이 그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알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사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一년동안 물안에 있은 다음에 동작봉은 이 뚜껑내에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서 기사는 원형 구멍을 막는 큰 금속제 뚜껑을 가리켰다. 그 아래에서 원거리 조종 선반기에 의하여 동작봉으로부터 우라늄이 있는 아랫부분을 짤라 낸다. 이렇게 짤라낸 것은 여기서 부터 공장에 보내여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라늄을 『재』로부터 청소한다. 원자 가마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우리는 중앙실로부터 나왔다. 계단은 우리를 원자 가마의 운영을 조종하는 동작봉의 발동 권양기들이 설치되여 있는 방으로 이끌어 간다. 매개 권양기로부터 천정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원자 가마에로 가는 철선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그중의 한 철선이 약간 우로 움직이고 그 자리에 멈추었다. 이것은 이온화 감시실로부터 신호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가 우리를 다리고 간 다음방은 긴 복도와 같았고 벽에는 두개의 계기반들이 있었다.

―이것은 소모 측정기들이다―라고 우리 안내자는 설명한다. 소모 측정기는 一二八개 있다. 각 소모 측정기는 일상적으로 원자 가마의 동작봉내에 흐르고 있는 물의 수량을 감시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하여 실시한다.

만약 우라늄을 랭각하는 물의 수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감소되였다면 이것은 동작봉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 원자 가마의 고장, 보호 계통과 련결된 소모 측정기는 임의의 一二八개의 동작봉에서 물의 소모 정도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정지시킨다. 원자 가마의 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통의 물을 사용한다.

물론 이 물안에 될수 있으면 혼합물이 더 적게 있도록 일정한 대책들이 취하여져 있었다. 보통의 물보다 대략 一〇〇―二〇〇배나 더 적게 그것은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원자 가마내에 침전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물의 방사능이 최소한도로 되게 한다.

우리가 다른 실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 안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자 가마를 통하여 흐르는 물은 일상적으로 一〇〇기압의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

다. 물은 一九〇도까지 가열되여 원자 가마에 공급되며 원자 가마로부터 二七〇도의 온도를 가지고 흘러 나간다. 물은 자체의 열을 다른 물에 전달하고 다른 물은 이것에 의하여 타빙을 회전시키는 증기로 변화한다. 원자 가마로부터 흘러온 물과 증발된 물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때문에 타빙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증기의 방사능에 의하여 어떠한 해를 받을 위험성은 없다. 그러나 제一쾨로라고 우리가 말하는 수관들은 원자 가마내에 있던 물을 흐르게 하며 크지 않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수관이 통과하는 모든 방들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벽은 콩크리트로 되고 있으며 두터운 문은 주철로 되고 있다―이러한 문을 가진 한방으로 기사는 우리를 안내한다.

이것은 크지 않은 방이며 거의 전체가 큰 뽐프로 차 있다. 이 뽐프에는 우로부터 열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는 수관들이 접근되였다.

―이것은 순환 뽐프이다.―라고 우리의 안내자는 설명한다. ―그것의 과업은 제一쾨로의 물을 운동시키며 순환시키는데 있다. 이 모든 뽐프들은 발전소에 四개 있다. 이것들은 두개씩 순차적으로 동작한다―

기사는 한줄을 지어 서 있는 기계들을 가리키면서 계속하여 설명한다.

―여기에는 제一쾨로내에로 물을 공급하는 뽐프가 있다. 문제는 이 계통으로부터 우리가 일부분의 물을 제거하고 이 뽐프들에 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있다.―각이하게 칠한 두텁고 가는 몇십개의 수관들이 여기에는 벽과 천정을 따라가고 있다. 경험 많은 사람도 전체 방의 끝에서 수관우에 쭉 나와 있는 수많은 변(辨)들을 혼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뽐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용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다. 물의 공급은 역시 자동적으로 조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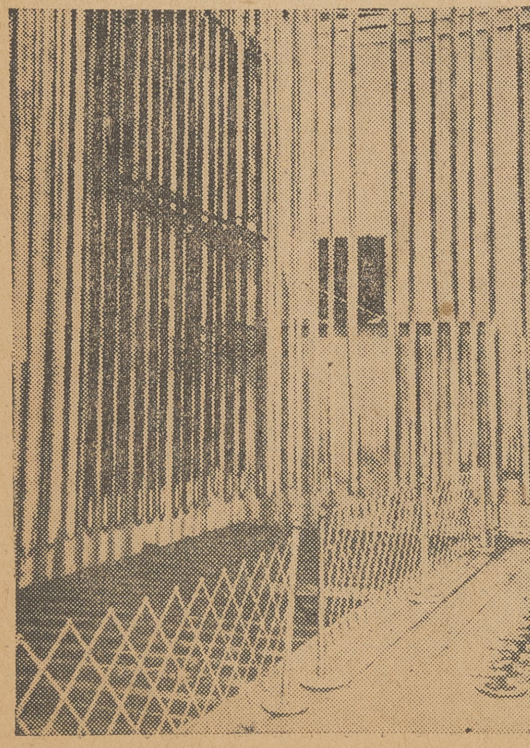
우리는 다음 방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참으로 많은 수관들로써 차 있다. 한 수관들은 벽에 따라 다른 수관들은 천정을 거쳐 지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수관들은 방안의 공간을 통과하고 있다. 비교적 비여 있는 구석에 서 있으며 전화기가 있는 작은 책상에는 아무도 없다. 잠깐 여기에는 작업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없어졌다.

좁고 낮은 문을 통하여 두개의 큰 원통이 겨우 놓인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 원통들에는 여러 방향으로부터 두터운 몇개의 적색 수관들이 오고 있다.

―이것은 증기 발생기이다.―라고 기사는 설명한다. ―여기서 원자 가마로부터 온 물은 원자에 의하여 발생된 열을 전달한다. 이것에 의하여 당신들이 벌써 아는 바와 같이 타빙을 회전시키는 증기가 발생된다.

여기서, 만약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면 발전소의 원자 부분은 기본적으로 끝 마친다. 다음에 증기는 보통의 타빙

※ 동작봉내에 있는 우라늄 "연료"의 축적



에로 가며 그것은 보통 발전기를 회전시킨다。

그런데 당신들과 함께 우리는 발전소의 전체 과정을 시찰하였지만 당신들이 가 보아야 할 방이 또 있다——우리가 간 방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계와 무한한 수관의 세계로부터 우리의 보통 정상적인 세계에로 다시금 돌아 오게 한다。 여기에는 해가 비치는 창문들이 있다。 창문 곁에 있는 책상 뒤에는 흰 작업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 그의 좌우편에는 두개의 크지 않은 계기반들이 배치되여 있다。 우리의 안내자는 설명하기를——우리는 지금 안전 상태를 감시하는 장소에 서 있다。 당신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련쇄 반응을 동반하는 방사 현상 또한 원자 가마내에서 방사한 물체들은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위험하다。 발전소에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해독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안전한 보호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연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자체는 이 위험성을 감촉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에는 특수한 안전 장치가 설치되여 있다。 그의 사명은 실내에 방사성 물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게 되여 있다。 대단히 작더라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위험성을 『감촉』할 수 있는 기계들이 설치되여 있다。 이것들은 항상 경계한다。

여기에、 이 계기반 우에는 전체 자동 감시기들의 동작이 반영되고 있다。 반대 편에 있는 계기반에 의하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실내 공기의 구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기내의 방사성 물체가 없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측정대로부터 가는 도관들은 검열하여야 할 전체 다른 방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아직 불충분하다。 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작은 정도나마 해독적인 광선을 방사하는 기계 곁에 자주 있게 된다。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는 매 사람에게는 개별적인 검사기가 있다。

우선、 첫째로 매개 로동자는 바로 이 작은 통을 자기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석냥통의 치수를 가진 더 평편한 흑색통을 뵈여 주었다。——이 내부에는 방사성 물체에 대하여 감도 높은 렌트겐 필림이 들어가 있다。 필림은 四일에 一회씩 빼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낡은 필림은 보통 사진 실험실에서 현상한다。 그것이 얼마나 거머졌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허용한 이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둘째로 다른 계기도 있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작용한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가리켜 준다—발전소의 생물학적 『보호』체계는 우리에게 이야기 한바에 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년간 작업하는 동안 여기에는 사람이 방사 영향을 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우리의 견학은 발전소의 두뇌——중앙 조종대가 배치되고 있는 실에서 끝났다。

밝고 넓은 실내에는 계기반들이 큰 반원형으로 배치되여 있다。 계기반 앞에는 그것들을 향하여 측정대 뒤에 두 사람의 기사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지금 발전소의 원자 가마、 뽐프 및 다른 기계들로 구성된 발전소의 전체 운영을 조종하고 있다。 그들이 조종하는 기술이 대단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실지 본 바와 같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며 때때로 계기들을 보고 어떠한 것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도 역시 자동화에 의하여 되고 있다。 자동 장치는 원자 가마의 일정한 운영 상태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장치들과 보조적인 장치들의 작용을 감시하며 또 발전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시하여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이 기사들에게 알린다。 그 외에 만약 어떠한 부분의 작용이 아직 정지되지 않았고 다만 그것이 예견된다면 계기들은 벌써 이것에 대하여 당직 기사에게 알린다。 당직 기사가 一二八개의 동작봉들 중의 한개 동작봉내의 물의 온도를 알아야 한다

거나 혹은 그중의 몇개의 동작봉내에서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물이 가열되였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자。 이것을 위하여 그는 파넬 우에 있는 필요한 번호를 누루면 충분하며 발광 신호는 거의 신속한 대답을 그에게 준다。

——우리 발전소에는 다만 一——二년전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 기사들이 일하고 있다。 지금 전체 그들은 익숙하고 경험 많은 일꾼들이다。——라고 우리의 안내자는 전달한다。

——당신들은 아마 우리 발전소가 열마나한 우라늄 『연료』를 소모하는가에 대하여 알구 싶을 것이다。——라고 기사는 우리에게 말하였다。——나는 당신들게에 일주야간 三〇그람이 소모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호도나무 열매만한 크기의 우라늄 쪼각이다。 동일한 전력을 가진 보통 발전소는 일주야간에 一二〇톤의 석탄을 소모한다。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그러면 왜 우리 원자 가마내에 들어가 있는 五五〇키로그람의 우라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고 당신들은 질문할 것이다。 이 三〇그람의 우라늄으로써는 할 수 없는가? 할 수 없다。 다만 우라늄이 이와 같이 많을 때에만 원자 가마는 동작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 련쇄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원자 가마는 두텁고 무거운 층의 콩크리트 주철로써 잘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원자 발동기를 가진 자동차는 아직 공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선박 혹은 기관차에는 원자 발동기가 생길 수 있다。

원자 동력학의 발달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은 보통의 발전소들과 함께 우리 나라의 풍부한 전기 동력을 주는 크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들은 원자 동력학의 첫 산물을 보았다。 그 다음에 새롭고 더 큰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지에서

주 원 필 역



민족 예술의 찬란한 개화

—八·一五 해방 一○주년 경축 전국 예술 축전을 평함—

박 승 완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경축하여 진행된 전국 예술 축전은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해방된 이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개화 발전된 우리 문학 예술의 빛나는 一○년간의 총화이기도 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의 민족 문화를 여지 없이 말살하고 총칼과 부패한 식민지 노예 문화 정책으로 우리 인민을 영원히 예속화 하려던 암담한 일제 통치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八·一五 해방은 주권과 함께 문학 예술도 인민의 수중에 돌아오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문학 예술은 선진 쏘련의 사실주의적 창조 방법을 광범히 섭취하면서 평화적 건설 시기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를 거쳐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의 무궁 무진한 생활력과 고도의 애국주의와 창조적 로력을 힘껏 구가하여 장족적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바로 그 빛나는 승리의 一○년을 경축하여 지난 七월 二五일부터 八월 一三일까지 진행된 전국 예술 축전은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명제의 구체적 표현으로 되였으며 우리 문학 예술의 무진장한 새 싹들이 인민 대중 속에서 꽃피며 급속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의 찬란한 전망을 뚜렷이 뵈여 주었다。

이번 진행된 전국 예술 축전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의 써클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자기의 민족적 유산을 열렬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유산들을 탐구 계승하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실제 자기들의 생활에 알맞고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다양한 예술적 제 형식들을 창조해 놓은 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실례를 무용 부문에서 들 수 있는바 함남도 광천군 영평리 유포협동 조합의 전 용선 로인이 안무하고 지도한 『나비춤』은 독특한 민족적 관찰로 아름다운 나비의 생활을 레알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적 률동을 창조하여 냈으며 함남도 신창군 양천서리 지 춘균、 지 영림 농민들이 출연한 『사자춤』과 자강도 종합 예술단이 출연한 『닭춤』 등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민족 무용을 새로 발굴하여 냄으로써 우리 민족 무용의 표현 범위를 넓히였으며 우리의 레빠또리를 풍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우점들은 역시 고전 음악 부문에서도 허다히 찾아 볼수 있었다。

함남도 종합 예술단이 출연한 양악기

와 우리 민족 악기의 합주는 아직도 기술적 미약점들이 있기는 하나 함경도 지방의 구전 민요곡인 『삼삼이』 『고진동 풍무가』 『승전가』를 연주함에 있어 우리 민족 악기들의 부족점들을 보충하여 양악기들의 음향을 적절히 배합하여 그로 하여금 화성적 보충을 가함으로써 민족적 관현악의 새로운 개척을 위한 대담한 시도로 의의가 컸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퉁소、 피리、 새납 등 민속 악기의 명연주가들의 배출은 이번 축전에서의 큰 성과 중의 하나이다。 함경남도 신창군 양천서리 써클의 퉁소 합주단은 『갑산 애원성』、『왜 생겼나』 등의 갑산 민요의 연주를 통하여 강의하며 락천적인 우리의 민족적 정서와 기개를 훌륭히 표현하였으며 퉁소 악기가 가지는 묘미를 충분히 발휘하였고 새납、 피리 연주에서의 높은 경지를 뵈여 주었다。

재능 있는 민요 가수의 출연들도 우리 민요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인식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예술 축전에서 특징적인 것은 민족 예술들의 다양한 프로그람들이 많이 나왔으며 그 중에는 종전까지 우리 무대에 들고 나온 일이 없는 프로그람들이 주의를 끌었다。

인형극은 아직까지 우리 무대에서 전문화되지 않았든 까닭에 모든 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평양시 종합 예술단 대성 요업 공장의 인형극 『삼을 찾아서』는 오직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만이 신기한 묘약인 산삼을 캘 수 있다는 조선의 전설을 높은 형상성과 인형극의 기교로써 연출하였다。

인형 제작의 기술에 있어서나 조명、 장치、 인형 조정법들을 능숙하게 소유한 이 써클은 관객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었으며 이 분야의 전문적 발전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이외에 발재주、 입재주、 풀피리 합주 등의 민속 연예들은 우리의 써클 무대만이 아니라 무대 예술에서의 형식상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민속 예술의 전문적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로 되였으며 한편 우리의 모든 인민 창작에 대한 고전적 문화 유산들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민의 탐구심을 높이게 하였다。

음악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는바 이번 예술 축전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음악적 재능이 거의 음악의 전 쟌르를 통하여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무반주 합창들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무반주 합창에서의 새로운 개척들은 우리 음악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시기를 형성하였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금번 축전에 있어서는 출연한 대부분이 합창과 관현악으로 된 깐따따 오라또리오와도 류사하며 구성상으로 보아 규모가 큰 대 합창들이였다。



※ 자강도 고풍군 농촌 써클의 무용 『꽃병춤』

또한 관현악도 단지 반주의 범위를 벗어나 거의 합창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새 욕망들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쏘련 인민과의 친선 및 우리 조국의 웅장한 건설 면모를 폭넓게 묘사한 강원도 종합 예술단의 합창『모쓰크바—평양』과『건설의 아침』은 그 작품 구성에 있어서나 안쌈블의 면밀성과 세련된 점에 있어서 가장 뛰여난 것의 하나이다.

중창 분야에 있어서도 작년과 달리 남성 중창, 녀성 중창 등의 공식적 제약성들을 벗어나 주제의 요구성에 의하여 새로운 형식상 고려들이 표현되고 있는바 혼성 중창들과 때로는 평북도에서와 같이『문경고개』에 알맞게 하려고 앨트 중창을 조직하는 등 재미 있는 시도들이 나왔다.

그러나 작년에 반하여 성악 쟌르에서의 성과보다도 오히려 기악 쟌르는 금년에 와서 급격한 발전을 뵈여 주었다.

합창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종합 예술단의 관현악『아름다운 강산』은 청중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으며 특히 자강도 김 상설 지배인이 지도하는 공장 써클원들이 출연한 관현악『흑룡강 물결』과『가요 련곡』은 우리 로동자들이 출연한 본격적 관현악으로서 깊은 감명을 주었다.


※평북 종합 예술 써클 합창단

보다 재미 있고 청중의 환심과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평남도 강선 제강소 써클이 연주한 만도린 三중주였다. 이와 같이 간결한 안쌈블이 주는 감명을 우리는 종전에 맛보지 못하였었다.

반드시 큰 규모의 것만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규모의 안쌈블들이 가지는 다양성, 평의성 그것이 보다 중요하며 흥미가 있는 것이다. 만도린과 키타, 아꼬데온과 같이 가장 쉽고 대중적 악기들로 연주하는 경쾌한 메로디가 얼마나 재미스러운가를 리해하면서 우리는 응당 보다 다른 형태의 각종 적은 안쌈블들의 흥미와 애착을 리해하기 위하여 우리 써클 지도자들이 연구할 것을 희망하게 된다.

대중들의 흥미 있는 프로그람은 역시『노래와 춤』으로 제작한 음악적 장면극들이다. 심각한 극적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명랑한 노래와 춤을 엮어서 생활의 즐거운 토막토막들을 련결하여 내용의 일관성을 기도한 자유로운 형식은 누구에게나 알기 쉬우며 재미 있는 대중적 형식으로 되였다.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도내 로동자, 농민들의 기쁨과 자랑이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그려져 있는 평남도 종합 예술단의 바라이데『내 고향의 새 노래』와 강원도 평강 종합 농장 써클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자랑한『자랑찬 우리 농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랑한 웃음으로 일관되게 재치 있게 엮어 놓은 작품들이였다.

아동 써클들의 사랑스런 출연은 이번 예술 축전의 자랑거리로 되였는바 아동들의 상상력을 풍부히 해주며 문학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가장 훌륭한 교양 수단으로 되는 동화의 출연은 아동들 프로그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개성 만월 인민 학교 박 영은의『참새와 여우』, 평북도 벽동 제一인민 학교 김 영옥의『여우와 단지』, 흥남 제一중학교 김 덕혜의『가난을 몰아낸 이야기』의 출연은 솔직한 과장과 이야기의 진실성들로 하여 어른들에게 까지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아동들도 역시『노래와 춤』의 자유로운 형식들을 들고 나왔는바 평양 제一一중학교 소년들이 출연한『해방탑 아래서』는 해방탑에 화환을 증정하려 온 아동들이 쏘련의 삐오넬들과 상봉하려 모쓰크바에 갔다오는 환상을 노래하면서 조, 쏘 량국 소년들의 친선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알뜰한 흐름과 훌륭한 합창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들과 함께 모쓰크바로 려행하고 오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또한 함남도 북청 제一인민 학교 써클이 출연한『행복한 별 나라』와 함경북도 아오지 제一인민 학교의『개미네 동네』는 유희와 동요로 구성된 동화극으로 재미 있는 형식이며 장려하여야 할 우수한 작품들이였다.

아동들의 출연에서 특출한 것은 개성 만월 인민 학교의 아동극『영웅을 따르는 소년들』이였다. 째마로 보나 극적 구성에 있어서나 연출적 지도에 있어서나 아동들의 연기에 있어서를 막론하고 빈틈 없이 째여진 훌륭한 이 아동극은 아동 심리의 세밀한 묘사로 하여 인상을 깊게 하였다.

연극 부문에서는 김 책 공업 대학의『점심 시간』이 훌륭하였으며 황해남도 새날 협동 조합의『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뛰여 났었다.

지난 예술 축전의 전체 프로그람과 레빠또리들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로웠으며 매개가 생동하게 사람의 가슴을 때려 주었다. 특히 무대 예술의 중요한 문제로 되여 있는 전환의 지루함과 따분함을 면하기 위한 가지가지의 고안은 모든 출연 단체의 고심사로 되였으며 이를 대담히 개척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았다.

역시 부분적 결함들과 때로는 큰 부족점들이 존재하는바 이번 예술 축전에서의 공통적인 결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작품들에만 열중하면서 힘에 겨운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우리 예술 작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추상성들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형적 생활의 구체적인 형상 대신에 지엽적 사건의 설명들로 대치하는 형상성이 박약한 작품들을 내고 있다. 또한 전체 프로그람의 편성상 다양성과 전환의 기민성들을 보장한다 하여 전체 프로그람의 흐름에만 몰두하고 기본 레빠또리의 질적 고려에 주의를 덜 돌리는 현상도 있었으며 무대에서 우리 사회의 도덕과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을 비판 폭로한다 하여 전체 막간극들을 억지 다짐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에서의 약점들과 혹은 전


※ 량강도 혜산 제一중학교 인민반 써클원들의 아동극『우등불 모임』

혀 볼 수 없는 결함들까지 상상해서 부정적으로 폭로를 함으로써 마치도 우리 사회가 부정적 현상들로만 가득차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하는 경향까지도 있는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시정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잠재 요소들을 명료하게 비판해 내며 명랑한 웃음으로 그를 부끄럽게 해주며 허물을 알고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대중을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막간극은 다만 풍자와 폭로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명랑한 우리의 생활에서의 많은 희극적 소재들도 그 좋은 재료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예술 축전에서 각종 다양한 제 형식들을 창조해 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의 형식들이 이것으로 만족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경향은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다는 것을 예술적 내용의 풍부한 표현 방법으로 리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식 자체의 다양성만을 념두에 넣고 골몰하는 데서부터 초래하는 비속성들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 각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 사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현실 생활에서 얻은 감격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작품속에 반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에 있다.

그러나 우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이번 예술 축전에서의 결함들은 성과에 비하여 극히 적은 것이며 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광범한 인민 대중속에서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속에 무진장한 자기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금번 진행된 예술 축전에서 거둔 다대한 성과와 교훈들을 살려야 한다. 그것은 참다운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사상, 예술성이 풍부한 예술에 대한 진실한 사랑, 민족 고전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태도, 무대 출연 형식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시도, 예술 창작에 집체적 총명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기풍 등이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민족 고전에 대한 무관심과 이를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외곡하는 현상들을 퇴치하여야 하며,

둘째 청년들에 대한 예술적 기술 전습을 등한히 하는 사실이라던가 예술 써클 사업을 깜빠니야식으로 조직 운영하는 경향들을 시정하여야 하며,

세째 예술적 형상화를 예술적 개념의 설명과 비속화로써 대치하려는 경향들을 시급히 시정하며,

끝으로 인민 예술 전선에서 싸우는 모든 예술인들과 청년들은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예술 창작 방법을 숙청하고 자기의 예술 창조 사업을 높이기 위하여 위대한 쏘련의 문학 예술에서 꾸준히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민족 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은 더욱 풍부하여 질 것이다.

~◇~

편집 위원 리 홍 종(주필)
김 득 준 박 철 복 허 석 선
신 호 근 장 성 준 최 만 석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 년 생 활』 1955년 제9호
1955년 9월 15일 인쇄
1955년 9월 20일 발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30167 21,000부 발행 값 40 원



민 청 원

제五차 세계 청년 학생축전 사진콩클二등 수상작품

김 진 수 작